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이 거주지 선택에 미친 영향:  
경기도 사례

The Impact of Social Networks of  
North Korean Refugees on Their Residence Choice:  
The case of Gyeonggi-Do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다문화교육전공)

최 정 호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이 거주지 선택에 미친 영향:  
경기도 사례

The Impact of Social Networks of  
North Korean Refugees on Their Residence Choice:  
The case of Gyeonggi-Do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다문화교육전공)

최 정 호




이 논문을 최정호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15년 2월

주심 김 영 순 

부심 박 신 미 

위원 정 상 우 

위원 김 결 

위원 이 용 권 

## 국문 초록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이 거주지 선택에 미친 영향: 경기도 사례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전공

최 정 호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이주민으로 성장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어느 공간에 거주지를 선택하고, 왜 그 공간을 선택하였는지에 주목하였다. 또한 이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사회연결망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들의 경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거주지 분포에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였다. 거주지 분포와 거주지 선택 요인을 통해서 한국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입지 특성을 조사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를 선택하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사회연결망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분류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사회연결망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특성이 각기 다른 3개 지역(고양시, 안산시, 평택시)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파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의 거주지 분포 변화에 대하여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이주민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중 단계방법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 경험 진술의 본질적인 의미를 도출하고 사회연결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한국에 거주한지 3년 이상 된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5~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총 16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심층면담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는 1인당 1회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하였다. 첫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분포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거주지는 지역별로 상이한 거주 분포의 특성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경기도 일부지역에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2006년에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의 구도심에 많이 거주한 반면, 2012년에는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등 경기도 서남부 권역으로 확산되어 밀집 거주하고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의 거주지 분포에 미친 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연결망부문의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변수, 주거부문의 공공임대주택 변수와 주거지역 변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은 사회연결망부문의 2006년도 거주 이주민 변수, 주거부문의 주거지역 변수와 공공임대주택 변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연결망부문은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대한 조사 결과 사회연결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연결망 특성은 혈연 중심의 연결망, 북한이탈주민 간의 연결망, 정부 주도의 연결망, 한국인과의 연결망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에서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중요한 사회연결망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강한 유대감을 나타냈다. 북한이탈주민 간의 사회연결망은 탈북과정에서 발생한 불신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표피적인 수준에서 관계가 유지되었다. 정부 주도의 사회연결망은 초기 정착과정에서는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성이 약화되거나 단절되기 쉬웠다. 북한이탈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은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나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이 그들의 거주지 선택에 미친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연결망은 새로운 정착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기제가 되었다. 또한 사회연결망을 통해서 주택시장, 주거지역, 일자리, 지역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성찰하여 본인 스스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고양시는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이 강하게 작동하였고 정보의 폐쇄성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재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산시는 중국인 사회연결망과 연계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중국인 사회연결망이 북한이탈주민의 연결망보다 크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수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다른 사회연결망을 형성하는데 폐쇄적인 경향을 보였다. 평택시는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안정적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재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이 많았다.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을 가진 이들은 다른 북한이탈주민보다 한결 수월하게 거주지를 선택하고 이주를 결심하였다. 평택시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기회,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그들이 제공한 지원이나 정보 등을 받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사회연결망은 새로운 정착국에서 더 나은 정보와 삶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의견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구조적·개인적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주류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연결망을 확충시키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하고, 안정적인 거주지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정주민 간의 평등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의식전환 및 교육의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사회연결망, 이주, 거주지 선택, 통합연구방법

#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iv
표 목 차 .....	viii
그림목차 .....	ix
부록목차 .....	x
1. 서론 .....	1
1.1. 연구필요성과 목적 .....	1
1.2. 문제제기와 연구내용 .....	7
2. 이론적 논의 .....	10
2.1. 이주민 거주지 형성에 관한 논의 .....	10
2.1.1. 소수민족 집단거주지에 관한 검토 .....	10
2.1.2. 초국가적 사회공간론과 초국가주의에 관한 검토 .....	12
2.2. 사회연결망과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 .....	16
2.2.1. 사회자본과 사회연결망 .....	16
2.2.2. 이주민의 사회연결망 유형 .....	18
2.2.3.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 .....	20

2.3.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및 정착에 관한 논의 .....	24
2.3.1.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4
2.3.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공간적 접근 .....	28
2.3.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관점 .....	32
<b>3. 연구방법 .....</b>	<b>35</b>
3.1. 연구설계 .....	35
3.1.1. 통합연구방법 .....	35
3.1.2. 연구모형 .....	37
3.2. 자료수집 .....	38
3.2.1. 양적자료수집 .....	38
3.2.2. 질적자료수집 .....	46
3.3. 자료분석 .....	50
3.3.1. 양적자료분석 .....	51
3.3.2. 질적자료분석 .....	51
3.4. 연구참여자 선정 및 특성 .....	52
3.4.1. 연구참여자 선정 .....	52
3.4.2. 연구참여자 특성 .....	53
3.5. 연구윤리 .....	56
<b>4.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 요인 .....</b>	<b>58</b>
4.1.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현황과 분포 .....	58
4.1.1. 북한이탈주민의 인구 수 .....	58
4.1.2.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 .....	59

4.2.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현황과 분포 .....	62
4.2.1. 경기도의 공간적·사회적 특징과 이주민 현황 .....	62
4.2.2.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 .....	65
4.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71
4.3.1. 기술통계 .....	71
4.3.2. 종속변수별 요인분석 .....	74
4.3.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	78
4.4. 연구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 .....	81
4.4.1. 연구지역의 지리적 특성 .....	81
4.4.2. 연구지역의 인구특성 .....	84
4.4.3. 연구지역의 주택특성 .....	85
4.4.4. 연구지역의 산업경제구조 특성 .....	88
4.4.5. 연구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기관 .....	90
4.5. 소결 .....	93
<b>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특성과 거주지 선택 경험 .....</b>	<b>96</b>
5.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특성 .....	96
5.1.1. 강한 연대감을 보이는 혈연 중심의 폐쇄적 사회연결망 .....	96
5.1.2. 약한 연대감을 보이는 북한이탈주민 간 사회연결망 .....	101
5.1.3. 단절되기 쉬운 정부 주도의 사회연결망 .....	108
5.1.4. 스스로 만들어 가는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 .....	110
5.2. 지역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특성과 거주지 선택 .....	113
5.2.1. 혈연 중심 사회연결망에 따른 이주: 고양시 사례 .....	113
5.2.2. 중국인 사회연결망에 따른 이주: 안산시 사례 .....	117
5.2.3.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에 따른 이주: 평택시 사례 .....	121
5.3. 소결 .....	125

6. 결론 .....	127
6.1. 연구결과 요약 .....	127
6.2. 논의 및 시사점 .....	129
참고문헌 .....	135
부록 .....	148
Abstract .....	159



## 표 목차

<표 2-1> 사회자본의 개념 정의 .....	17
<표 2-2> 사회연결망 유형별 구조와 기능 .....	19
<표 3-1> 경기도 시·군 지방자치단체별 변수 선정 및 산출 방법 .....	42
<표 3-2>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에 대한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분석 .....	45
<표 3-3> 연구참여자 심층면담 질문지 구성 .....	48
<표 3-4>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55
<표 4-1> 광역시·도별 북한이탈주민의 인구 변화 .....	61
<표 4-2> 경기도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규모의 상위 10개 지역 순위 변화 .....	68
<표 4-3> 경기도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규모의 하위 10개 지역 순위 변화 .....	69
<표 4-4>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선택에 미친 변수별 기술통계 .....	72
<표 4-5>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의 회귀모형 요약 .....	75
<표 4-6>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분포의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	77
<표 4-7> 경기도 이주민 거주지 분포의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	77
<표 4-8>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선택에 관한 상관분석 .....	78
<표 4-9>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관한 변수 현황 .....	79
<표 4-10>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시·군별 유형 .....	80
<표 4-11> 경기도 및 연구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증가율 .....	82
<표 4-12> 경기도 및 연구지역의 지역주민·이주민·북한이탈주민 비율 .....	84
<표 4-13> 경기도 및 연구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주거형태 .....	87
<표 4-14> 경기도 및 연구지역 산업별 입지계수 및 북한이탈주민 사업체 종사자 .....	89
<표 4-15> 경기도 및 연구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관 .....	93
<표 5-1> 북한이탈주민 사회연결망의 유형별 주요 특성 .....	113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9
[그림 2-1] 하나센터 지역적응 교육 내용 .....	30
[그림 3-1]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 경험에 관한 통합연구방법 모형 .....	40
[그림 4-1]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이주현황 .....	59
[그림 4-2] 광역시·도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누적현황(1948년~2014년 6월) .....	60
[그림 4-3] 광역시·도별 인구 천 명당 북한이탈주민 인구 변화 .....	62
[그림 4-4] 전국 및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전년대비 증감률 .....	65
[그림 4-5] 경기도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 거주 변화 추이 .....	66
[그림 4-6] 경기도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거주분포의 변화 .....	70
[그림 4-7]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밀집지역 .....	85
[그림 4-8]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밀집지역 .....	86
[그림 4-9] 평택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밀집지역 .....	87
[그림 5-1]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에 의한 거주지 선택 .....	117
[그림 5-2] 중국인 사회연결망으로 진입하기 위한 거주지 선택 .....	121
[그림 5-3]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이 제공한 정보에 따른 거주지 선택 .....	124

## 부록 목차

<부록 1>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친 변수 .....	148
<부록 2> 연구참여 동의서 .....	153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	155





# 1. 서론

## 1.1. 연구필요성과 목적

이주(migration)<sup>1)</sup>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인류는 끊임없이 더 좋은 기회,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동해왔다. 이주 현상은 경제적·정치적·인구사회학적·분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한다. 대부분의 이주민(migrant)<sup>2)</sup>들은 더 나은 주거환경, 더 높은 임금, 가족과의 재결합 등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동한다. 그러나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정착국에서 이주민들이 거주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모험일 수 있다. 선택한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s)은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Boyd, 1989; Massey *et al.*, 1987).

사람들은 사회연결망을 통해 타인과 1차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관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낀다. 이주민도 새로운 사회에 진입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사회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사회연결망은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확산되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으로 일종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다. 사회자본은 사회연결망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자원 그 자체(Bourdieu, 1986), 혹은 그러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

1) 이주는 국경을 넘었거나 혹은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 기간과 구성, 원인에 상관 없이 어떤 형태의 인구이동이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난민, 이주민, 경제적 이주민 그리고 가족 재결합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1).

2) 이주민은 자신이나 혹은 가족의 더 나은 물질적·사회적 조건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국가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국제연합은 이주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주한 이유가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그리고 이주 방법이 일반적이든 일반적이지 않든 관계없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의미한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1).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을 의미한다(Lin, 2002). 사회연결망은 특히 이주민의 정착 및 공동체 형성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1990년대 들어 이미 여러 학문영역에서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과 사회연결망과의 연계에 주목하였다. 초기 연구에서는 거주지 선택에 가족연결망, 민족연결망,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이주민간의 연결망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주류사회의 정착민과의 연결망, 정부 지원기관과의 연결망과 연계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Massey *et al.*, 1993).

한국사회는 1990년대부터 이주 배경이 다양하고 이주 규모가 큰 노동이주민과 결혼이주민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2년에 이주민의 입국이 제도화되면서 노동이주민들이 이주 해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 3D 업종에 대한 한국인의 기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남아 선호 사상에 따른 결혼 적령 여성의 부족과 이로 인한 농촌 총각과 도시 저소득층 남성들의 결혼 곤란 등은 이주민에 눈을 돌리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민도 대거 이주하게 되었다(김효선 외, 2010).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주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었다. 결혼이주와 경제이주에 대한 연구는 국제이주노동의 흐름 속에서 서구의 경험과 이론을 토대로 연구가 가능하였다(석현호, 2000; 김경학, 2007). 특히 선행연구에서 사회연결망은 이주민의 정착 및 공동체 형성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주민의 정착과정과 사회연결망 연구에 관한 국내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배균·정건화, 2004; 이용균, 2007; 김현미, 2008; 이종구·임선일, 2011; 류주현, 2012; 이진영·남진, 2012). 이들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과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이주민의 거주지 분포에 대하여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sup>3)</sup>은 노동이주민 및 결혼이주민과 다른 이주 특성 때문에 이주민 집단의 거주지 선택과 사회연결망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가 어려워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국내로 이주해 온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분단이라는 정치적·지리적·역사적 특수 상황으로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78호, 2014년 4월 22일 시행)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현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한 탈북 북한주민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인하여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작동하는 사회연결망이 일반적인 이주민의 특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들은 ‘한국인이면서도 동시에 이방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데 이는 한편으로 동일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독특한 사회적 위상과 지위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선우현, 2012: 6).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이중적 지위 때문에 다른 유형의 이주민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심한 부적응을 겪는다(강창구, 2010). 2010년 북한이탈주민이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주민 집단으로 인식되었다(연합뉴스, 2010). 정치적·이념적 갈등으로 탈북을 강행하였던 과거의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북한의 엘리트 신분이었고 한국인들에게 북한사회보다 한국사회가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보는 인식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들의 사회적응 및 정착 관련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학술논문, 정책연구, 학위논문 등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다. 연구주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념이나 인권에서부터 정책분석 및 지원방안 또는 사회경제적·심리적 적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사회문화적 관점이나, 사회복지적 관점, 노동경제적 관점, 인권 및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비교이론, 사회문화적 적응이론, 심리적 적응 이론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최대석·박영자(2011)는 2005년 이후에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동향을 정착지원, 서비스전달체계와 프로그램,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는 아직 다른 분야에 비해 학술적 관심도가 낮고 이론적 논거와 학문적 성과를 아우르지 못한 채 주로 실태 파악과 정책방향 제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문화적 적응 과정에 대한 분석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동화정책과 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지역구성원으로서 정착 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사회경제적이고 심리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적 과정이다. 이주민 거주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등의 주제는 이주민의 정착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프레임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주민이 정주민과 분리되어 그들만의 공간적 공동체를 구성한다면 이주민 간 사회적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동시

에, 정주민 집단과의 갈등을 야기하여 오히려 격리 혹은 고립되는 부정적 역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이주와 정착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지역 차원에서 공간적 정착 과정에 대한 분석과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 요인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 및 그 과정에 작동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특정 단일 집단으로서 정부 정책 선택을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로 보기보다 정착을 위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가정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결혼이주나 경제이주 집단과 달리 한국사회와의 문화차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드러내는 것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집단 거주지 형성이 일반 이주 집단의 거주지 형성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이주민들과 달리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상태로 입국하는 비율이 높아 고립된 상태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연결의 기본적인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은 탈북과정에서 만난 종교단체 및 NGO 관계자, 한국 내 가족, 하나원<sup>4)</sup>에서 만난 공무원이나 하나원 강사, 신변보호담당관 정도이다(최승호, 2010: 33-34).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로 인하여 한국 사람에게도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국민일보(2011)의 ‘국내 최대 새터민<sup>5)</sup> 거주지, 모여 살지만 그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라는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꺼리고 낯선 북한이탈주민과도 서로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정병호(2004)에 따르면 2003년 UN에서 공식적 난민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서 각 사회집단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식과 대우에서 혼란을 경

---

4) 정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1999년 7월 8일 경기도 안성에서 개원한 통일부 소속기관이다. 관계 기관의 합동신문이 끝난 탈북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12주간 총 392시간의 기본교육과 4주간 80시간의 지역적응교육으로 이뤄지는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문화적 이질감 해소, 기초직업교육 및 훈련, 심리안정 및 정서순화 교육, 역사교육, 지역사회 이해, 건강증진, 취업, 경제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5) 통일부는 2004년 9월부터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새터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선정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2007년 탈북자단체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먹을 것을 찾아 새 땅을 찾는 화전민을 연상하도록 한다고 하여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다.

힘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생소한 땅에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한국인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인식과 소외감으로 인하여 이들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연결망을 구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생존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적 난민이면서 사회적 약자의 성격을 모두 지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해준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1)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5.9%가 수도권을 1순위로 지원하지만 실제 배정받는 비율은 56.7%에 불과하다. 최승호(2010)에 의하면 충북지역으로 거주지를 배정받아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현 거주지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이중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들이 거주지를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가족과의 관계(34.5%)’, ‘일자리(28.6%)’, ‘새로운 주택 구입(7.8%)’ 때문이라고 하였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이러한 이유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은 수도권 중에서도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일·이윤희(2012)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서울시 양천구·노원구·강서구, 인천시 남동구, 경기도 화성시·안산시·부천시·수원시·용인시 등에 많이 거주한다.

한편, 최락인(2006: 137)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의 적응지연, 북한이탈주민들 간 갈등, 자유의 제한,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그들을 위한 집단거주시설을 반대한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26,000여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67%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적 경관이 드러난 지역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은 인근지역에 남동공단과 공공임대주택이 많아 전국 230개 시·군·구 중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살고 있는 12, 14단지에서조차 정기적 모임을 갖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화적 경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연결망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고 그들만의 공간적 공동체를 만들기도 어렵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염유식·김여진(2011), 백경민(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사회연결망이 작동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공간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과 이주에 미친 사회연결망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연결망이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결정이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의 배치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들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거주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최락인(2006, 128)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오래 거주했어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해 스스로 거주지나 주택을 선택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착 당시 정부에서 지정해준 공공임대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정부가 배정해준 지역에서 더 나은 취업 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지역단위 이주 및 정착지원체계를 통해서 공식적인 사회연결망을 갖게 된다. 공식적 사회연결망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공동 역할을 한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식적 사회연결망 안에서 자신의 사회연결망을 확장시켜 나가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사회연결망을 통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타인과 일차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관계를 통해 사회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윤인진 외, 2006).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소수 이주민이 지닌 특수한 이주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은 소수 이주민과 한국 국민으로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구조요인에 맞물려 있고 동시에 이들 각 개인의 탈북동기와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한국사회에 이주하게 되었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와 거주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이 거주지와 일자리를 구하는데 사회연결망과 사회자본이 다른 이주민의 정착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나아가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거주지 분포에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한다. 거주지 분포와 거주지 선택 요인을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입지 특성을 조사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를 선택하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연결망이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분류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사회연결망의 특성이 다른지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각기 다른 특성으로 거주하고 있는 3개 지역(고양시, 안산시, 평택시)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다.

## 1.2. 문제제기와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사회연결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 경험을 통해 해석하고 사회연결망의 형성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총량적 변화와 경기도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별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변화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친 요인은 무엇이며, 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적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경험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작동하는 사회연결망의 유형과 일반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4.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특성에 따른 지역적 차이는 무엇이며, 실제 그들의 거주지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와 거주지 선택에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둘째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 경험을 관찰하고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연구내용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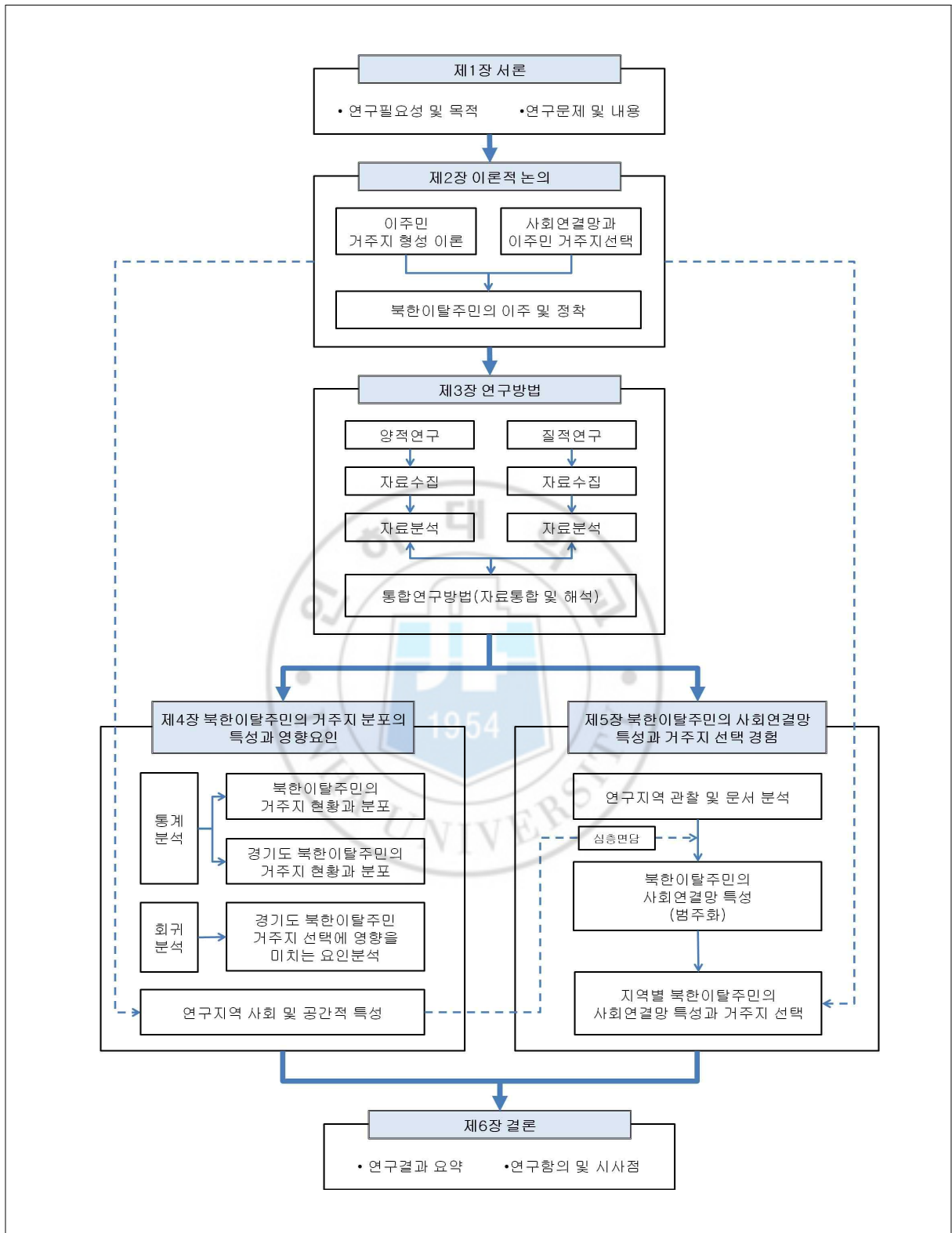
제1장은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이 연구의 연구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선행연구검토를 통하여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제2장은 소수민족 집단거주지, 초국가적 사회공간론과 초국가주의를 논의하여 이주민 거주지 형성에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였다. 특히

사회자본과 사회연결망의 개념 검토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과 정착을 국내외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도출하였다. 제3장은 이 연구의 연구설계와 연구방법론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단계는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사용한 통합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통합연구방법에서 양적연구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총량적 분포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친 요인을 검증하였고 이와 동시에 질적연구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특성과 거주지 선택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1-1]에서 연구구성과 흐름을 볼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 제4장의 양적연구와 제5장의 질적연구는 병렬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와 거주지의 형성 과정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분포를 통해 살펴보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거주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시계열화 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거주 변화는 지역 간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에 관한 기초 자료를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의 단계선택방법(stepwise method)으로 분석하고 추출된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거주지를 유형화하여 분류하였다.

제5장은 제4장에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사회연결망이론의 틀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연결망 특성과 사회연결망이 거주지 선택에 미친 영향을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함의와 정책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연구함의 및 정책 시사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펼칠 사회연결망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지원정책 및 효과적인 대응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2. 이론적 논의

이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 경험과 사회연결망의 관계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탐색하여 이론적 도구를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는 소수민족 집단거주지와 초국가적 사회공간론적 수준에서 이주민의 거주지 형성에 관한 담론을 가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공간적 맥락 속에서 이들의 거주지 선택 경험과 사회연결망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제2절에서는 기존의 이주민 거주지 형성에 관한 논의 아래, 사회연결망의 관점에서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제3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해 이주민과의 구체적인 차별성을 정립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사회공간적 관점에서 사회연결망을 논의할 것이다.

### 2.1. 이주민 거주지 형성에 관한 논의

#### 2.1.1. 소수민족 집단거주지에 관한 검토

소수민족 집단거주지론(ethnic enclaves theory)은 세계적으로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거주공간이 분리되어 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났다. 소수민족 집단거주지의 초기 형성 배경은 주류사회에서 정착민과 이주민 간의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거주지 분화와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주류사회의 차별과 배제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집단거주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공간은 그 내부에 구축하고 있는 조밀한 사회연결망을 통하여 이주민 간 사회부조를 주고받게 되고, 다양한 자원들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배규식 외, 2013). 또한 공통의 문화를 나누고, 모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되면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닌 공간으로 유지

된다(이종구 외, 2011).

이 이론은 소수민족 집단의 거주지 형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론 중 하나이다. 소수민족이 거주지를 형성하여 집단거주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사회연결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초기 이주민들은 정착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 내에 축적된 사회연결망을 활용한다. 또한 이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경제적 현실과 사회·문화적 차별 역시 이주민들로 하여금 집단을 이루게 하는 요인이 된다(박세훈·이영아, 2010). 한편 정착국의 정책적 지원도 이 이론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적 지원에 따라 정착국이 초기 이주민들에게 거주할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은 일정기간 거주시설에 머무르게 되며, 이주민들은 거주시설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대체로 그 초기 거주시설 주변에 거주지를 형성하여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은 소수민족 집단의 근거지가 되기도 한다(Castles & Miller, 2009).

이 연구자들은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일 민족의 이주민이 상호 간의 유대감을 통해 정착국 내에서 민족별로 서로 이웃하며 거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주류사회에서 소수구성원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 집중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였다. 소수민족 집중거주지는 정착국 내에서 언어 장벽에 따른 어려움을 줄일 수 있고, 생소한 정착국 문화와 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주하는 이주민의 초기 정착지로 적격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식습관, 종교 활동, 자녀의 모국어 습득과 같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보금자리가 된다(정수열·이정현, 2014). 이러한 현상은 이주민이 자신이 가진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도, 이주민들이 왜 소수민족 집중거주지에 한정하여 거주하는지에 대한 답을 준다.

이러한 소수민족 집단거주지는 한국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 다양한 소수민족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었다. 대표적인 서울시의 소수민족 집단거주지로는 화교들이 집단거주하는 서대문구 연희동의 차이나타운, 중국인과 중국 조선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구로구 가리봉동과 영등포구 대림동, 일본인마을이 있는 용산구 동부이촌동, 프랑스인이 거주하는 서초구 반포동의 서래마을, 몽골인이 거주하는 성동구 광희동의 몽골타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러시아인과 중앙아시아인이 모여 사는 동대문구 신당동이 대표적인 지역이다(이종구 외, 2011). 이들은 소수민족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여 특정 지역에 자연스럽게 모여 집단거주하고 있다. 소수민족 집단거주지에 대해 비교 연구한 김은미(2006)는 이러한 소수민족 집단거주지를 주거형 집단거주지와 문화형 집단거주지로 분류

하였다. 이들 집단거주지는 정착국과 이주민 본국과의 관계, 이들의 이주원인과 배경, 이주 거리, 이주민들의 사회연결망 등에 영향을 받아 집단거주지의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국적의 이주민 집단거주지에 대해 비교 분석한 손승호(2008)에 따르면 선진국 국적의 이주민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선진국 이주민끼리 혼합되어 집단거주지를 형성한 반면, 개발도상국 국적의 이주민들은 국적별로 각각 집단거주지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연결망의 의한 연쇄이주가 이들의 집단거주지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한국에 생성된 소수민족 집단거주지의 생성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이는 있지만, 이들의 집단거주지의 확장 및 유지는 사회연결망과 관련성이 있다.

한편, 가리봉동과 대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들은 그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국에 그들의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자생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성장시켰다(김현선, 2010). 이러한 모습은 경제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적 측면에서도 한국에서의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과 유사한 문화성을 지닌 북한이탈주민은 그들과 상이한 집단거주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병호(2014)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집중거주지는 표면적으로 소수민족 집단거주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소수민족 집단거주지와 같이 자생적인 생존이 불가능하고 그들의 삶의 공동체를 공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조선족 및 소수민족과 달리 한국정부의 전적인 지원을 받으며 정부에 의해 그들의 거주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며, 지나치게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한국인 지역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1.2. 초국가적 사회공간론과 초국가주의에 관한 검토

이주는 발생, 후속 이주 촉발, 안정적인 영속성 그리고 이주민들의 현지 사회 정착 및 적응 등 여러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의 이주이론은 사람들이 왜 이주하는지, 또 왜 특정 국가로 향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초국가적 사회공간론(theory of transnational social space)은 어떻게 이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착국에 정착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Portes, 1995; Faist, 2000). 기존의 이주민의 이미지는 영구적 단절, 즉 오래된 삶

의 패턴은 포기하거나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언어에 대한 고통스러운 학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대중적 이미지 역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새로운 국가에 적응하기 위해 오래된 사회로부터 자신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국가에 머물게 된 사람으로 인지되었으며, 이들은 단지 일을 하러 온 단기 체류자로서 일시적인 체류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한 후 결국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깊게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이주민의 이미지는 초기 역사적 순간의 여러 상황들에 기반을 둔 것으로 오늘날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주민의 특징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오늘날 이주민들은 그들의 본국과 이주 사회에 걸친 그들만의 사회연결망, 활동, 생활 패턴, 이데올로기를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새로운 용어가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새로운 이주 흐름에 맞는 용어의 수정이 뒤따르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국가 경계를 가로지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cross-border)들의 새로운 이주 과정을 초국가적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으나, 초기에는 이러한 의미로써 느슨하고 구체성 없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국가 간 접근이 가능한 시공간상의 직접적인 변화인 항공여행과 전기통신의 발전으로 초국가적 현상이 산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의 일부인 언어에 대한 변화와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고, 보다 넓은 정치적·경제적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새로운 이주민들의 경험과 의식에 맞는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분석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개념과 분석 체계가 바로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이다. 초국가주의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는 이주가 발생함으로써 지리적·문화적·정치적 경계에 걸쳐 떨어져 있는 두 사회가 하나의 사회연결망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최재현, 2007). 즉 초국가주의는 한 국가 이상에서 활동하는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초국가적인 사회·경제·정치적 관계에 대한 사회연결망과 유연한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chiller *et al.*, 1992; Basch *et al.*, 1994).

초국가주의에서 생성된 초국가적 이주민은 국가 간 경계를 공유한다. 그들은 가족·경제·사회·조직·종교·정치적으로 다양한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이주민들이다. 그들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자신들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관련짓는 연결망을 발전시켜 나간다(이용균, 2013). 초국가주의적 관점은 본국과 정착국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수많은 이동에 의해 연결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연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결의 결과로 본국과 정착국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둔



다(최병두 외, 2011). 한편, 박동훈·안화선(2012)은 이러한 관점을 본국과 정착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동과 연결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문제를 바라보았다. 초국가적 이주민들은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주한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국과 정착국 사이에서 이주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초국가주의에 대한 논의는 초국가적 사회공간론에서 시작된다. 이와 더불어 어떻게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착국에 정착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Faist, 1998; Pries, 2001). Faist(1998)는 사회자본론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사회공간론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회자본은 사회연결망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자본은 행위자 간, 그리고 사회제도 간의 사회연결망 구조 안에서 존재하는 자본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특정 목적을 가진 행위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사회구조 속에 자리 매겨진 자원으로 정의된다(박세훈 외, 2009). 따라서 사회자본의 양은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 연결망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문화적·상징적 자본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Bourdieu, 1986). 이주민이 특정 공간에 집단거주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특정 공간이 이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민들이 특정한 공간에 정착하게 되면 그들 사이의 연결망뿐만 아니라 본국과 정착국 사이의 연결망이 형성되고, 그것이 또 다른 이주민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 연결망은 이주민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상호 호혜성, 연대성, 동족에 대한 배려, 정보의 연결망 등으로써 사회자본의 속성을 의미한다(박세훈 외, 2009).

이러한 사회자본은 거주지를 기본으로 한 입지 특성을 가진다. 즉 현재 거주지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자본을 다른 지역에서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현재 거주지의 사회자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사회자본의 이러한 특성은 이주민이 특정 국가로, 특정 지역으로 왜 이주하는지를 설명해 준다(박세훈 외, 2009). 즉 이는 상대적으로 이주민을 위한 사회자본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일수록 이주민이 이주와 정착을 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착국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사회자본은 이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Pries(2001)는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핵심을 설명할 때 ‘지역들’이라는 복수의 여러 지역(본국, 경유국, 정착국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초국가적 사회공간은 하나의 지리적 장소에 여러 사회공간을 중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윤경(2014)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초국가

적 사회공간이 궁극적으로 한 지역의 사회적 맥락을 넘어 여러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실천, 사회적 자리매김, 정체성 관계로 구조화 짓는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Portes *et al.*(1999)은 초국가적 경제 공동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문화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연구자들은 초국가주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였다. 자본에 의해 국가를 초월한 통제와 지배, 간섭이 개인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와 이주민 및 그들의 출신 지역의 사회연결망으로 만들어내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로 구분하였다. 즉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sup>6)</sup>’는 세계화 과정에서 경제적 동기에 따른 노동이주민이나 결혼이주민과 같은 민중 계층(*grass roots*)의 국제적 이주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1990년대에 이르러 결혼구조의 변화로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 배우자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가족을 형성시켰다. 즉 결혼이주민과 그들의 한국 배우자는 초국가적(본국과 정착국) 가족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 배우자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했고,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위한 송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자로서 노동을 해야 했다(김영순 외, 2014). 또한 그들의 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가족 이주의 중심축이 되기도 하고 초국가적 관계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한다. 초국가주의를 분석한 연구는 초국가적 공간에서 형성하고 있는 사회연결망과 그것을 이용한 이주민 집단의 삶의 전략,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이주의 의미로 인식되며, 초국가적 이주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중국 및 제3세계에서 거주했거나 그로 인해서 파생된 초국가적 가족으로 형성된 북한이탈주민은 초국가주의의 산물인 동시에 지구적 맥락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재현하기 때문에 이주를 촉진하고 지속시키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경제생활, 가족생활, 삶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연구와 함께 초국가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자는 비엘리트라는 계급적 지위, 정착국에 귀속된 서민 계층, 본국과 정착국에서 로컬의 특수한 상황이 허용하는 기회와 부과하는 제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김정선, 2010).

## 2.2. 사회연결망과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

### 2.2.1. 사회자본과 사회연결망

인적자본이 인간 개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회자본은 누구를 아는가이다. 사회자본은 규범, 신뢰, 상호 호혜성, 연결망, 인간관계, 공동체, 연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연구주제이다(김용학, 2010). 사회자본의 개념은 1835년 Tocqueville이 미국 사회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였다. 1920년대에 이르러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서구 학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Christoforou & Davis, 2014). 사회자본이란 합리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결망, 신뢰, 규범 등의 사회조직의 속성이다(Putnam, 1993).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부르디외와 콜먼의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을 친근감이나 상호 인지적 관계가 제도화되거나 혹은 지속적인 사회연결망 덕택에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로 혹은 가상적으로 얻게 되는 이점이나 기회를 모두 합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Coleman(1998)은 사람들 간 신뢰관계의 내재여부에 따라 자본을 사회자본, 물적자본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즉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있는 것을 사회자본으로, 도구·기계·생산설비 등 관찰 가능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물적자본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회연결망은 그 자체가 사회자본이거나 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연결통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표적인 정의를 소개하면 <표 2-1>과 같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연구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은 사회연결망, 상호 호혜성의 규범, 행위자 간의 신뢰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사회연결망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사회연결망을 통해 행위자들이 신뢰를 생성·유지하고 사회적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되는 사회연결망은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 간의 전체적인 연계형태를 의미하며, 누가 누구에서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관한 관계 구조를 의미한다(문영주, 2011). 이러한 사회연결망의 형태와 양은 사회구조를 설명해주고,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



거나 격려하기도 한다.

<표 2-1> 사회자본의 개념 정의

연구자	사회자본의 개념 정의
Bourdieu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과 사회에서의 위치와 관계를 사회자본이라고 함</li> <li>• 인맥으로 혈연, 학연, 지연, 소속 단체 등</li> <li>•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적·가상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나 기회의 총합</li> </ul>
Coleman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찰 가능한 물질적 형태로 체화되어 것은 인적자본이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 관계에 내재된 것을 사회자본으로 정의함</li> <li>• 사회연결망은 그 자체가 사회자본이며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통로</li> </ul>
Putnam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결망, 신뢰, 규범 등의 사회조직의 속성</li> <li>• 비교적 집단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결속형 자본(bonding capital)과 비교적 거리감 있는 교량형 자본(bridging capital)으로 구분</li> </ul>

출처: Lin(2002) 재구성

사회자본에서 연결망은 크게 폐쇄적 연결망 이론(theory of network closure)과 구조적 공백 이론(structural hole theory)의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Coleman(1988)에 따르면 폐쇄적 연결망 이론은 사회구조 안에서 규범과 협력이 강한 연결망 안에서 강화된다는 이론이다. 폐쇄적 연결망은 행위자 간의 필수적인 정보를 이동시켜 주는 연결통로가 된다. 또한 행위자 간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연결망 안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해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폐쇄적 연결망으로서의 사회자본을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조적 공백이론(structural hole theory)<sup>7)</sup>은 폐쇄 연결망 이론과는 달리 약한 연결의 강점을 부각하는 이론이다(Granovetter, 1983; Burt 1995). 약한 연결의 강점은 연결망을 유지

7) 구조적 공백이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 내에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A라는 사람은 B, C와 연결망을 가지고 있고, B와 C는 연계를 없다고 한다면, A는 조직 내에서 상대적 이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A의 위치를 구조적 공백이라고 한다.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약한 연결은 강한 연결보다 연결망이나 집단을 연결하는데 상대적으로 쉽다는 강점을 보인다(이병민, 2013). 또한 정보의 중복성이 낮아 다양한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 2.2.2. 이주민의 사회연결망 유형

최근 연구자들이 사회연결망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의 특정 연계를 통해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와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Mitchell, 1969: 2; 김용학, 2010). 사회연결망 연구에서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혹은 관계의 유무 그 자체보다는 사회연결망이 개별 행위자의 삶에 미친 영향과 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해석하는데 초점을 둔다(Morrison, 2002). 사회연결망 연구는 다양한 관계가 갖는 내용을 기술하는 기능적 접근과 관계 간 구조에 초점을 맞춘 구조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기능적 접근은 사회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제공하는 지원의 내용으로 지원 출처, 지원 형태, 만족도 등에서 물질적·정보적·정서적 차이를 기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능적 측면은 사회연결망 내 관계의 범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가족과 같은 1차 집단은 대체로 정서적 지원을, 직장·사회생활과 관련된 2차 집단은 물질적·정보적 지원을 제공한다(Weiss, 1974). Ong & Ward(2005)도 이주민의 정서적 지원은 강한 연계를 맺고 있는 가족과 친구에게서, 물질적·정보적 지원은 약한 연계를 맺고 있는 정주민의 의해서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구조적 접근은 구성원과의 접촉빈도, 밀도, 크기, 범주, 유대강도, 지속기간 등 사회연결망과 관련된 사람의 수와 연계 구조에 따른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Antcliff *et al.*(2007)은 사회연결망의 구조를 폐쇄적이고 강한 연대와 개방적이고 약한 연대로 구분하였다.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폐쇄적이고 강한 연대를 보이는 사회연결망은 구성원 간에 서로 잘 알고 동질적이지만 사회연결망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에게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폐쇄적이고 강한 연대를 가진 사회연결망은 구성원끼리 상호 지원 및 지지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역할을 하며 구성원 집단의 규범을 유지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개방적이고 약한 연대를 나타내는 사회연결망은 구성원끼리 잘 알지 못하고 이질적이지만 사회연결망에 속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개방적이고 약한 사회연결망의

구성원은 자신의 출세나 구직기회를 잡기 위해 혹은 프로필이나 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결망에 진입한다.

<표 2-2> 사회연결망 유형별 구조와 기능

유형	구조	기능
폐쇄적이고 강한 연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집단 구성원끼리 서로 잘 앎</li> <li>② 다른 구성원에게 배타적임</li> <li>③ 동질적 구성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호 지원·지지</li> <li>② 구성원 집단의 규범 유지</li> <li>③ 상호 호혜성</li> </ul>
개방적이고 약한 연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집단 구성원끼리 잘 알지 못함</li> <li>② 다른 구성원에게 포괄적임</li> <li>③ 이질적 구성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출세</li> <li>② 개인적 프로필 향상</li> <li>③ 구직기회 향상</li> <li>④ 개인의 명성 향상</li> </ul>

출처: Antcliff *et al.*(2007, 377) 재구성

이주민 집단의 폐쇄적 연결망과 개방적 연결망 중 어떤 종류의 연결망이 사회자본의 창출과 축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 구조적 접근 중에서 사회 연결망의 크기를 연구한 Erwin(1995)에 따르면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이주민의 사회연결망이 다수 민족 이주민의 그것보다 작고 폐쇄적이며 강한 연대감을 나타낸다.

이주민 집단의 작고 폐쇄적인 연결망이 사회자본의 창출과 축적에 유리하다는 입장에서의 대표적인 연구자는 Coleman(1988)과 Portes(1998)를 들 수 있다.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의 창출과 축적을 위해서는 집단의 폐쇄적 연결망이 개방적 연결망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Coleman(1998)에 의하면 집단의 경계가 모호한 개방적 연결망에서는 규범에 대한 강제력이 적어 효과적인 규범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신뢰가 약화되기 쉽다. 그래서 신뢰와 효과적인 규범은 폐쇄된 사회연결망에서 창출되기 쉽다.

Portes(1998: 15)도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자격을 바탕으로 최소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자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간의 연대감과 상호 간의 기대와 의무에 기초한 사회자본이 폐쇄적 연결망을 통해 더 잘 축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주민들의 이

주 시작과 지속뿐만 아니라, 정착국 사회에서 이주민 집단 결성과 공동체 형성에 이주민의 폐쇄된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사회연결망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Portes(1998)는 이주민의 폐쇄적 연결망이 주류사회와 격리되는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소수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그들의 정착국에 대한 적응을 한층 더 순조롭게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박경태 외(1999)도 이주민이 소수민족 집단거주지에서 자국민 또는 같은 민족끼리의 폐쇄적 사회연결망을 사회자본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문화적 적응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폐쇄적 사회연결망을 통해서 음식, 거주지, 고용, 건강, 종교 등의 정서적 지원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재정이나 다른 재원을 통해 정착국에서 이주를 지속하여 해 주는 동력이 된다.

반면, Granovetter(1973, 1983)는 사회연결망을 그 강도에 따라 강한 연결망과 약한 연결망으로 구분하고 어떤 연결망이 개인의 경제적 성취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강한 연결망은 가족, 친족, 가까운 친구 등 친밀도와 감정적 유대가 강하고 일상생활에서 협력하는 빈도가 높은 연결망을, 약한 연결망은 그저 알고 지내는 사람들처럼 감정적 유대가 약하고 느슨한 연결망을 의미한다. 강한 연결망에서 교환하는 정보는 반복적이고 동질적인 반면, 약한 연결망에서 교환하는 정보는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연결망이 개인의 경제적 성취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Burt(1995, 2000)도 개방적인 약한 연대의 사회연결망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유리하고 유입국 사회 적응에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강한 연대의 폐쇄적인 사회연결망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약한 연계에 기반 한 개방적인 연결망이 특정 집단의 범위를 넘어 협력·정보교환·규범 공유 등의 사회자본 구축에 더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폐쇄적인 강한 연결망이 외부 집단과의 연대나 정보 공유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폐쇄적인 강한 연결망에 의존한 이주민들이 정착국에서 적응이 더딘 경향이 나타난다.

### 2.2.3.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

일반적으로 이주는 한 개인이나 가구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면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주택규모나 질, 가구 구성원의 연령, 성별, 소득, 교육수준 등 개인적인 여건이나 요인을 고려하게 된다(Myers, 1985; 이성우, 2002). 그리고 특정 지역의

산업이나 주택 및 교육 환경 등의 개선은 이주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고려된다(Huang & Clark, 2002).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지역 외부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하면 지역 내 고용기회 및 지역 구성원에도 변화를 가져오며 지역 내부의 이주도 증가하게 된다(Goodman & Kawai, 1982).

사람들은 소득수준, 직업, 교육, 연령 등이 유사한 사람들과 더불어 거주함으로써 집단적 거주지를 형성하고, 특정 도시 내에서 거주 지역은 지역적 분화가 이루어진다(Marcuse, 2005).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소득, 직업, 교육 수준 등 일반적 요인 이외에 문화적·민족적·인종적 요인이 결부되는 국제 이주자의 특정 지역에서의 정착 과정은 좀 더 복잡하다. Farley & Frey(1994)는 소수민족 집단이 이주 초기에는 민족적·인종적 주거에 정착하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주거환경이 좀 더 나은 교외로 이주하는 사례를 통해 민족적·지리적 거주지는 초기 이주의 지리적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족적·인종적 거주지 분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소수민족 집단 또는 그 집단 내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동화 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정수열(2008)은 이주민이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육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민족적·인종적 거주지 분화 현상은 사라진다고 하였다. 그는 소수민족 집단거주지가 새로운 이주민들이 동화되기 전에 거주하는 임시 거처이자 주류사회로 적응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Peach(1996)는 민족적·인종적 소수자 집단거주지가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 지원, 소수집단의 제도·산업의 발전, 문화의 계승·발전, 집단 정체성의 유지 및 정치적 행위의 보장 등을 위한 지역적 기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질적인 문화적 속성을 지니는 민족·인종이 그들만의 독립적인 거주지를 형성하면 동일한 민족적·인종적 배경을 지닌 새로운 이주민들이 연쇄 이주함으로써 독특한 문화경관을 지닌 거주지 공동체를 발달시킨다. Logan *et al.*(2002)은 이주민들이 도심에 형성된 이주민 집단거주지를 거치지 않고 교외지역에 정착하면서 동일 민족 집단거주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교외지역의 집단거주지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집단거주지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동일 민족 선호에 따른 민족 집단거주지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특정지역으로의 집중은 그들만의 사고방식을 공유하거나 유대감의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손승호, 2008). 김은미(2006)는 이러한 집단거주지를 민족·인종별 집단거주지 성격을 지닌 주거형 공동체와 문화적인 공동체의 성격을 지니는 문화형 공동체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발달한다고 하였다.

이주민들이 특정 공간에 입지하게 되는 것은 그 공간이 이주민이 요구하는 사회자본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이란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사회연결망과 신뢰(trust)를 일컫는다(Putnam, 1993). 물질자본이 도구와 같은 물질 내의 자본이고, 인적자본이 기술, 능력 등 인간 내의 자본인데 비해, 사회자본은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른 자본으로서 구성된 서로를 존중하고 공유된 표현·해석·의미 체계를 가지며, 구성원의 관계 및 유대를 증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Putnam, 1993).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 상호 호혜성, 연대성, 동족에 대한 배려, 정보의 연결망 등 이주민들이 낮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들이 존재하는데 이 모두가 사회자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Coleman, 1988: 100-101).

사회연결망은 사회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에게 내재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보았다(Portes, 1995: 12-13). 따라서 사회자본의 양은 개인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 연결망에 접속되어 있는 경제적·문화적·상징적 자본의 양에 의해 달려있다(Bourdieu, 1986). 사회연결망은 특히 이주민의 정착 및 공동체 형성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주민 집단은 그들의 고유한 종교기관, 공동체 모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서비스 산업이 입지한 특정 지역을 선호하고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확장시킨다. 이러한 공간적 형성은 가족의 재결합과 연계된다. 이주민들은 체류가 길어질수록 자신이 거주한 지역으로 고국에 남겨진 가족을 데려오거나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새로운 문화와 교육을 배움으로써 이주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과정은 함께 접촉하는 정주민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고용주는 유능한 이주민근로자를 붙잡아 두기를 원하며, 따라서 장기 체류를 지원하게 된다. 현지의 지역 공동체가 문화적으로 다양해질수록 이주민들이 현지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집단에서 맡는 역할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주민들은 정착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Castles & Miller, 2009).

한편, 한국인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보면, Kim(1981)은 뉴욕에 있는 한인 공동체를 사례로 재외 한국인에 대한 사회연결망의 형성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한인 기업가의 성공에 대해 현지사회의 한인들의 사회연결망이 수행한 역할에 주목하여 민족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자원은 특정의 민족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민족성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교육수준, 기업을 지향하는 직업 가치관 또는 친족이나 지인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 자금지원, 경영의 노하우 등 다양한 자원

이 포함된다. Kwon(1997)은 교회가 한인 기업가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가 한인들의 사회연결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한인의 민족교회가 이주민들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실제의 비공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윤인진(2000)은 미주 한인들의 수적 증가로 인해 미국 대도시들에 한인 타운이 형성되면서 새로 이주해 온 한인들이 주택, 직업, 종교, 여가 등을 이주 한인들이 친숙한 한인 타운에서 찾고 의존하려는 성향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영어가 부족한 한인들은 미국의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직장을 찾지 않고 한인 업소들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한인 교회를 다니면서 한인들과 강한 유대를 맺으려하기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와 고립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한인 타운이 새로운 이주민에게는 정착의 장애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반면, 김두섭(1998)의 연구에서는 밴쿠버 한인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가 자발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밴쿠버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결과 한국인들은 공동체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한국인들끼리 공동체를 결성하여 사회연결망을 형성하고 상호호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중국인, 인도인 등 다른 소수민족 사회와 대비된다고 하였다. 그는 밴쿠버에서 한인 집단거주지의 규모가 매우 작고 활동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인 이주민이 현지 사회에 정착하고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주민들이 민족·인종 중심의 집단거주지의 사회연결망을 활용하려는 이유는 정착국에서 사회적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김현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족 이주민들 대부분의 해외 초기 정착이 대부분 한인 타운에서 이뤄진다고 하면서 한인 타운 내 조선족 이주민들과 사회연결망이 형성되면, 초기 이주에 따르는 이동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베트남 이주민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하순(2007)은 베트남 이주민들이 그들의 학력과 재능, 직장의 경험 등과 상관없이 저임금 노무직에 종사하였고, 그나마 정상적인 직장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과거의 직업 및 경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자기 경력에 맞는 정상적인 직종에서 일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베트남 이주민들은 1차 정착지인 소도시의 분산된 거주지를 떠나 대도시로 이주하여 가족, 친척 및 동향인들과 합류하여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였다(하순, 2010). 베트남 민족 집단거주지에서 일자리나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며, 이주민으로서의 이주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고통 및 민족·인종차별에 의한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면서 정착국에서의 적응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베트남 민족 집단거주지의 출현은 베트남 이주민들로 하여금 미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보다 유리하게 이끄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그들의 집단거주지 형성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심리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민족 집단거주지에서 거주 기간이 늘어나면 가족 재결합이 증가하게 되고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이 증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연 중심에서 민족 또는 비민족 배경의 자발적 조직에 가입하게 되면 사회연결망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이주민의 거주지도 변화하게 된다.

## 2.3.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및 정착에 관한 논의

### 2.3.1.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몇 차례 바뀌었다. 1993년 이전에는 귀순자·귀순용사, 1994년~1996년에는 탈북자·귀순북한동포, 1997년~2004년에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으로, 2005년~2008년까지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으로, 2009년 이후부터는 그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부른다<sup>8)</sup>.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는 북한의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수적으로 극소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적 극심한 대치 국면으로 인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이들은 ‘귀순용사’로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입국한 이들이 북한에서 대부분 주류인 군인출신, 북한체제에 불만을 가

---

8) 사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이 내포하고 있는 언어의 상징성 때문이다. 정부의 공식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은 그 이전의 귀순용사, 귀순자, 귀순북한동포 등의 명칭에 비해서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윤인진, 2009). 그러나 독고순(2001)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이탈’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의미를 탈북과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개인이 의도하여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는데 배제된다는 것과 더불어 아직도 한국사회의 정식 주민으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주변부에 맴돌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 한국사회와의 구별 짓기를 통한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진 일부 인사로 체제저항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며 대부분의 탈북 경로도 육지나 해상을 통한 국경선 뚫기라는 직접적인 경로를 택한다(윤인진, 2007). 당시의 냉전체제하에서 이들의 탈북이 한국체제의 우월함을 홍보하는데 유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입국한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알선이나 주택제공 등은 물론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선하였다(김범수 외, 2008).

1989년의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의 구소련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1990년대 들어 공산권 국가가 전반적으로 붕괴되었다. 이러한 대외정세의 변화를 통해 동구 공산권의 몰락을 지켜본 북한 엘리트 계층의 동요가 일어나면서 외국에 주재하던 유학생, 외교관, 무역종사자, 고위인사들이 북한으로 귀환하지 않고 ‘귀순자’로서 한국으로 망명하게 되었다(김순양, 2013). 이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수준과 중상층 계층 배경, 그리고 한국 정부의 관대한 정착지원금으로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김혜순 외, 2006).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정치적 불안은 북한주민의 일상적 삶의 토대를 위협했다. 많은 북한주민이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식량을 구하러 다녔고, 결국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게 되었다.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의 증가로 중국 등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가족 단위의 탈북이 나타나는 등 먼저 탈북한 사람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의 대량 탈북이 이루어졌다(이순형 외, 2007). 즉, 먼저 탈북을 한 사람들이 중간에 탈북 브로커(Broker)<sup>9)</sup>를 개입시켜 북한 또는 중국에 남아 있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의 탈북을 성사시키는 가족 결합 성격의 이른바 ‘기획 탈북<sup>10)</sup>’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윤여상, 2002). 이러한 형태의 탈북 방법은 ‘더 많은 더 안전한 탈북’ 형태로써 한국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010년에는 2만 명을 넘었다. 이러한 증가세로 인하여 한국정부는 대량탈북사태와 한국사회의 소수자 집단의 일환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에 대해 보완하고자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

9) 브러커는 중개상인, 거간, 중개인을 의미하는데 사기성이 있는 거간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이희승, 2014). 탈북 브로커는 북한, 제3국, 한국의 이주 정책과 제도의 특징이나 약점을 파악하고, 그로써 송출과 수용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면서 이윤을 만들어 내는 존재이다.

10) 한국으로 탈출한 북한 군인, 보안요원 출신인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 북한 주민을 한국으로 탈출시키는 행위이다.

착 지원에 관한 법률」 11)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시작하였다(윤인진, 2009).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이주민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으로 이주해 온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통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이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배경이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바뀌게 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식량난 해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이주의 성격이 보이기 시작했다(김혜순 외, 2006). 한국에 이주해 온 북한이탈여성의 단일년도 기준에 따르면 2002년 북한이탈주민 1,143명 중 여성이 632명으로 처음으로 과반수가 넘는 이주 비율을 보였으며 현재에 이르러서 전체 누적 북한이탈주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대부터 40대의 혈혈단신의 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탈여성이 남성보다 탈북 하는데 용이하고 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인 중국 및 제3국에서 남성보다 은신과 취업이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정길호 외, 2009). 한국으로 이주해 온 북한이탈주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탈북 초기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한 정보와 자본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체류 생활을 경험하다가, 정보와 자본을 마련한 이후 현지인 또는 브로커의 도움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문남철, 2004; 이순형 외, 2009). 북한이주민 중 7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할 만큼 여성 이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윤인진, 2009). 아울러 향후 북한이탈여성의 이주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이탈여성에 관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구성 면에서 가족동반 이주 비율이 늘어가고 있다. 과거 단독세대 중심에서 가족동반 이주가 증가하면서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유아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증가하였다(전우택 외, 2009). 특히, 북한이탈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 부모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먼저 이주해 온 가족들로 인하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기획 탈북과 이주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2006년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이주민의 비율이 30~50%를 차지하고 있다(조정아, 2007). 가족동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중국 등 체류 국가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류국가의 단속이 강화되어 북송되는 사례가 빈

---

11) 이 법의 제정(법률 제12278호, 2014년 4월 22일 시행)과 함께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 공식적으로 불리게 되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번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미 한국으로 이주해 온 북한이탈주민이 잔여 가족을 연쇄 이주시키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급속한 증가와 특히 가족 단위 이주민의 증가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정길호 외, 2009).

셋째, 국제결혼의 성격을 띠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주가 증가 추세이다. 특히 북한이탈여성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조선족이나 중국인들과 함께 이주를 시도하는 사례의 증가이다. 이러한 경우 남편의 지원을 받아 아내인 북한이탈여성이 먼저 이주한 후 그 자녀와 남편을 이주시키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사회에 사회연결망을 보유한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이 먼저 이주하여 정착한 후에 북한이탈여성이 이주해 오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이우영, 2003). 또한 북한이탈남성의 경우에도 중국 등 제3국 체류시 자신을 보호하고 지원해준 여성과 혼인관계를 맺고 이주한 이후 배우자를 이주시키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곽해룡, 2005; 이윤진 외, 2012).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적인 특징이 초국가적 이주 요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렇게 함께 이주해 온 초국가적 성격의 배우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인 또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해외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탈북 후 국내로 이주해오기까지 한국 내 가족 및 이주 조력자가 있을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경우는 대체로 6개월 이내에 이주해 온다. 2005년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체류기간은 총 41개월로 나타났다(김수암, 2006: 13).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아니면 국경선을 넘어 곧바로 이주하는 특성을 나타냈으나(서윤환, 2004), 그 이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제3국에서 체류 혹은 이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윤인진, 2009). 북한이탈여성들은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현지 남성과 결혼을 하거나 출산 후 자녀양육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남성들에 비해 체류 기간이 긴 것으로 알려졌다(통일연구원, 2008).

다섯째,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장년 연령대의 비율의 증가이다. 연령별 이주 현황 누계를 살펴보면, 20~30대가 14,042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40대까지 포함한다면 74%에 다다른다. 이들은 대체로 개인생존 및 가족부양을 담당해야 하는 경제활동인구이다. 따라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 찾기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이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인 유아·아동·청소년층,

그리고 노인층이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문제, 학교생활문제, 노인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서윤환, 2004).

여섯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거주 당시보다 직업적 측면에서 계급이 낮아지고 있다. 이들은 무직이나 가족 부양 대상자로서 한국에 이주해 온 자들이 상당수이다. 2012년 10월말 기준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거주 당시 직업으로 무직이나 가족부양자가 12,432명(50%)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자가 9,160명(30%)이면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능력을 요구하는 지식 기반 사회로 전환된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용직 등 단순 노동 직업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염유식, 2010). 또한 이런 현상은 한국으로 이주해 온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북한의 주류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비주류 구성원으로 안정된 사회, 경제생활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정길호 외, 2009).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이주민들의 특성과 다른 점을 보이는 것이다(Castles & Miller, 2009). 즉 일반적인 이주민은 대체로 경제활동 인구이자 취업가능인구인데 반해 북한이탈주민은 비경제활동 인구와 부양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탈북 동기가 다양해지면서 이주 목적 또한 변화하고 있다. 탈북 동기는 일시적으로 식량이나 약을 구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단기 경제적 동기, 생계가 어려워 중국에서 정착하려는 장기 생계적 동기,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탈출한 정치적 동기, 북한에서 차별적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탈북한 인권적 동기, 남은 가족을 데리고 탈북하는 복합적 동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윤인진, 2009: 82). 특히 경제적 동기에 주목해 볼 때,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이주민 성격이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탈북으로 말미암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이주민으로 규정할 것인지, 난민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길준규, 2009).

### 2.3.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공간적 접근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정착에 관련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현황 분석 연구, 정서장애와 해결 방안 등 심리학적 연구와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적응 과정과 정책에 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2004년을 기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 사회와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의 방향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시적인 측면으로

전환되었다. 초기의 연구는 정부조사자료, 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통해 북한을 이해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주도 하에 지원 대책, 법규, 교육, 훈련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2004년 이후의 연구는 현장경험사례, 해외사례, 설문조사, 심층면담, 문헌연구 등을 통해 개인적·심리적·문화적 적응, 경제적 여건, 사회복지 수준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적인 이주민 특성과 더불어 난민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수한 이주 집단이다. 이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주민으로서의 특성과 난민으로서의 특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난민의 지위는 정치적 박해, 인권 유린, 빈곤 등으로 자국에서 삶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Haddad 2008). 대부분의 난민들은 최초 피난처가 되는 이웃 국가에 머물게 되는데, 이들 국가 대부분 역시 빈곤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이곳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경제적·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최종 목적지 국가로 재이주할 수 있는 사람은 목적지 국가에 금전적 자원, 인적 자본, 공식적·비공식적인 사회연결망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이다(Smith, 2001). 난민의 경우 목적지 국가의 지원과 통제 속에서 정착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련해준 공식적 연결망의 지원과 통제를 받는 한편, 자신들의 자발적인 비공식적 연결망에 의존하여 정착국 사회에 적응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공식적·비공식적 연결망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택과 일자리 제공이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최성일·이윤희, 2012). 그런데 염유식(2010)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난민이자 사회적 소수자로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주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이주민에 비하여 주택 마련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반면, 이주민으로서 그들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난민이자 이주민으로서 이중적 지위 덕분에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의 적응 여부는 주택보다는 일자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은 관리주의적 접근으로 가장 잘 설명된다. 관리주의적 접근 방법은 주택 공급·배분의 정책 선택에 참여하는 도시 관리자에 의하여 거주지 분화가 선택된다고 보는 것이다(Pahl, 1975a; Knox & Pinch, 2009). 특히 Pahl(1975b)의 의하면 도시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하나의 보상·분배 체계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불평등은 희소자원과 시설을 통제·조정·할당하는 도시 관리자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보았다. 도시 관리자는 정부, 주택



공급과 관련된 기관, 관료, 도시 계획과 공공 정책 입안자, 주택 중개업자, 주택 조합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중국으로 탈출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이주해 온다. 그들은 대부분 탈북과 이주과정을 보면 북한에서의 생계난, 가족과의 이별, 탈북과 중국이나 제3국에서의 긴장과 공포에 따른 정신적 외상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와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하여 하나원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과 정착금지원, 주택지원 등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상담제도를 통한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통일부, 2013).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출처: 통일백서(2013)

[그림 2-1] 하나센터 지역적응 교육 내용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마친 북한이탈주민은 호적을 취득하게 되고 기본 정

착금과 자격 여부에 따라 취업기회를 제공받으며, 공공임대주택을 배정한 후 해당 거주지에 전입하도록 한다. 2005년부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 정착금을 축소하고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정착금은 1인 세대 기준으로 최소 600만원과 주거지원비 1,300만원을 더한 1,900만원이다. 그들이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선택은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지만 해당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고려하여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배정받는 주거지는 주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지역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이다.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에 편입하게 되면 3주간 지역안내교육과 1년간의 사후관리 등 지역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적응훈련을 받게 된다. 2005년부터는 정착도우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간자원봉사자가 1년 동안 거주지에 전입된 이후 낯선 지역에서 일상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응을 돕고 취업이나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상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역 내 보호담당관, 지역사회복지관,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도 조직되어 지역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사업 내용이 달랐다. 유기준(2011)의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1인당 연간 지원규모는 2010년 기준 울산시가 가장 많았고(213,439원), 강원도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167,347원). 반면, 충청남도가 가장 적게 지원하였다(8,230원). 수도권인 서울시(16,603원), 인천시(27,352), 경기도(23,860원)도 매우 적은 편이다. 이 자료는 북한이탈주민 지역 거주 비율에 맞게 연간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용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별 취업 박람회 개최하고 있었다. 취업박람회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에 따른 기업의 혜택(고용지원금 지급)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홍보 활동을 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의 2분의 1(70만원 한도)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정착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수한 이주의 현상 파악에 치우쳐 있거나 한국사회에 성공적 동화 과정에만 집중되어 있는 나머지 그들의 실제 어디에



정착하고 왜 그 곳에 정착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성경(2011)은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정착이라는 행위를 한국사회의 특정한 구조와 연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정착의 경험에서 행위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 구조를 내재화하고 동시에 행위 수행 시 구조를 재구성하는지와 어떻게 행위자의 제고적 지식이 확장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그들의 행위를 성찰적으로 반성하고 정당화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사회에서 제공하는 정착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을 행위와 구조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적극적 주체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은 안정된 직장을 얻기를 원하지만 대부분 일용직으로 불안정한 고용 조건하에서 일한다. 그들 대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착금과 일용직 일당으로 한국사회에서 최저 생활을 한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용접이나 배관 등 위험하거나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3D업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고용된 북한이탈주민들이 다른 북한이탈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정착 초기 배정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빌라나 단독 주택으로 이사하거나(강창구, 2012: 6), 좀 더 나은 고용과 교육기회 등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한다.

최승호(2010)에 의하면 충북지역에 전입한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배정해 준 공공임대주택에 머물지 않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이중으로 지출하면서까지 수도권으로 이주하려고 한다. 수도권에 취업 기회가 많고, 북한 사람들이 특권층만이 거주하는 북한 수도권 평양에 대한 막대한 동경으로 한국 수도권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박용순·신영희(2005)연구에 의하면 정부가 배정한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비율보다 자발적으로 재이주하는 비율이 더 높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은 정부가 정해준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주거지로 자발적으로 진입한다. 그러나 현재 있는 지역보다 좋은 일자리가 있는지, 현재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하였을 때의 순이익(net advantage)이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다면 이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2.3.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관점

서로 아는 사람들 간에 다양한 정보의 흐름을 막는 사회적 조건은 언제나 존재한다 (Granovetter, 1995).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보의 흐름을 막는 사회적 조건은 남북한 간의 정치 지형과 탈북에 따른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한국사회로 이주한 특별한 이주민으로 가족 이외에는 사람들을 잘 믿지 않는 가족 중심의 강한 폐쇄적 유대관계를 보이는 사회연결망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윤인진, 2009).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은 대체로 가족 중심으로 매우 작고 폐쇄적인 경향이 있고 그들이 가진 사회연결망의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 중 직장 생활을 한 경험자들의 구직 경로를 보면 ‘친구·친지·아는 사람 소개’(38.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문·잡지’(26.8%), ‘인터넷’(9.9%), ‘공공지원 기관’(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이 말하는 친구·친지·아는 사람이라는 사회연결망은 대체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발적 이주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하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정착에 관한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고 적응하는 요인을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의사소통능력 등 주로 개인적 요인으로 설명해 왔으나, 최근에는 사회연결망이나 사회적 지지 체제 등과 같은 사회자본 요인에 초점을 두면서 그들의 정착과정에 접근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이주민의 적응 문제를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박배균, 2010, 91).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과 사회연결망에 대한 연구(박현식, 2006; 박영자, 2010; 서창록, 2010),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관련된 연구(최용환·김을식, 2009), 거버넌스와 연계된 연구(김선화, 2010; 김연희, 2010) 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공간 분포에서 입체적인 정착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연결망을 연구한 임정빈(2012)의 연구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에 관해 연구한 염유식·김여진(2011)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임정빈(2012)은 기초자치단체가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사회연결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염유식·김여진(2011)은 심층면담을 통해 사회연결망의 형성 과정을 검토하였다. 그들 연구는 사회연결망의 유형을 성별 차이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을 뿐 실제적 공간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다. 이지경(2012)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자립문제, 취업, 교육, 건강이나 직장생활, 한국 사람들의 사회적 편견, 언어적 문제, 남북한 문화적 차이,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참기 어려운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라고

하면서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연고주의가 심한 한국사회에 덩그러니 떠있는 섬과 같은 존재인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사회연결망은 한국사회라는 육지와 연결에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이지경, 2012, 105).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연결망을 어떻게 구축하여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연결망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러한 연결망이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분포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3.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 경험을 사회연결망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방법을 자세히 서술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를 설계하였고 적용할 연구방법론을 제1절에 다루었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제3절에서는 자료분석 과정을 기술하였다. 제4절에서는 연구참여자 선정과정과 그들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제5절에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 3.1. 연구설계

연구설계는 철학적인 세계관, 세계관과 연계된 탐구모형, 접근을 실천할 구체적인 연구절차 및 방법으로 이루어진다(Creswell, 2007). 본 연구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 경험에 관한 연구로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결합시켜 탐구한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s Research)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 3.1.1. 통합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방법인 통합연구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왜 통합연구방법론을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연구설계적 논의가 필요하였다.

양적연구는 사회실재가 부분들로 분리되며, 부분들의 합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즉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특정 이론이나 가설을 검증하고 일반화를 추구하지만, 질적연구는 사회실재라는 것을 부분들의 합을 통해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로써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다(김미숙, 2006: 46). 따라서, 양적연구는 미리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는 분석이 주요내용이라면, 질적연구는 사전에 설정된 가설 없이 자료수집 과정 속에서 관계 유형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김미숙, 2006: 46-47).

오랫동안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각각 고수한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 연구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분법적 방법론으로 활용하여 적용해 왔다. 그러나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발전과 함께 따라 두 연구의 통합적 접근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연구방법이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여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통합연구방법이 중요한 연구방법론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사회과학연구 분야에서 복잡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는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가지만으로는 적절하지 못하였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각각 수행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연구하는 방식이 더 많은 통찰을 이루어 내었다. 또한 이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온전하고 광범위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이현철 외, 2013).

통합연구방법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결합 또는 연합시켜 탐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연구자의 철학, 양적 및 질적연구의 방법의 이용, 하나의 연구에 두 연구방법의 혼합을 담고 있고 있는 방법이다(Johnson & Onwuegbuzie, 2004).

통합연구방법론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설계해야 한다. 첫째, 통합연구방법의 철학적 가정은 실용주의적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실용주의적 지식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부터 자유롭게 때문에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철학은 연구자의 필요성과 목적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 기술,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통합연구방법의 탐구모형은 연구의 설계 절차에 대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통합연구방법의 탐구모형은 순차적, 동시적, 변형적 모형과 모형 내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변형적 탐구모형은 여성, 소수 민족과 인종, 장애, 빈곤한 계층, 성적 소수자, 노인과 어린이, 비주류 종교 등과 같이 소외되고 차별받는 집단을 옹호하고 이들의 행동과 사고를 주류사회의 구성원에게 광범위하게 알려 그들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탐구모형을 사용한다(Mertens, 2003). 셋째, 통합연구방법의 연구과정은 연구를 위해 제안하는 자료수집의 형태, 분석, 해석의 구체적인 과정이다. 즉 양적·질적 자료를 모두 아우르는 추론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통합연구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관련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연구는 드물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의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지만 아직까지 거주지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며, 사회연결망 이론이 연계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해결하고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친 요인에 대해 통계중심의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였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 경험에 대해 사례연구중심의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통합으로 본 연구는 각각의 연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상호보완하고,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답을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 시 연계되는 사회연결망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 이들의 거주지 선택을 바라보는 관점은 연구자와 이론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민과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선택경험에 대해 사회연결망 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연결망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 3.1.2. 연구모형

연구에서 통합연구방법 모형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연구방법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통합연구방법 모형은 달라진다. 통합연구방법의 대표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 Morse(1991)는 2가지 연구 분류체계를 만들었고, Creswell *et al.*(2003)은 모형을 6가지 형태의 분류체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Tashakkori와 Teddlie(2003)은 통합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통합방법다층설계에서 5가지 모형을 제시하였고, Creswell과 Plano Clark(2007)은 4가지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에 미친 요인 및 거주지 특성에 관한 분석을 하고,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관한 경험 탐구라는 두 가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Creswell *et al.*(2003)의 순차적 변형 모형을 선정하였다.



여러 통합연구방법의 모형 중에서 순차적 변형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이 연구모형의 연구절차가 성별, 인종, 종교, 계층, 장애 등 소외된 구성원 및 공동체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사회과학의 명확한 이론적 관점을 투영하여 순차적 절차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Creswell, 2009). 또한 이 연구모형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관점은 연구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자료수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모든 절차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Creswell & Plano Clark, 2011). 즉 순차적 변형 모형은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 관점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연구결과의 변화과정과 현상을 잘 이해시켜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순차적 변형 모형의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이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자 소외계층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지 선택에 사회연결망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현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적연구인 조사 및 실증연구를 통해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사회연결망 이론으로 논의하고 검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검증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이 거주지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질적연구인 사례연구방법(Case study methods)을 통해 분석 및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2. 자료수집

### 3.2.1. 양적자료수집

#### (1) 자료수집

본 연구목적은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선택에 관한 경험을 사회연결망 이론을 토대로 그들의 사회연결망 유형과 특성을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목적에 접근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분포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 지역을 파악하였다.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거주 분포는 통계자료를 통해 그들의 분포 특성을 산출하였다.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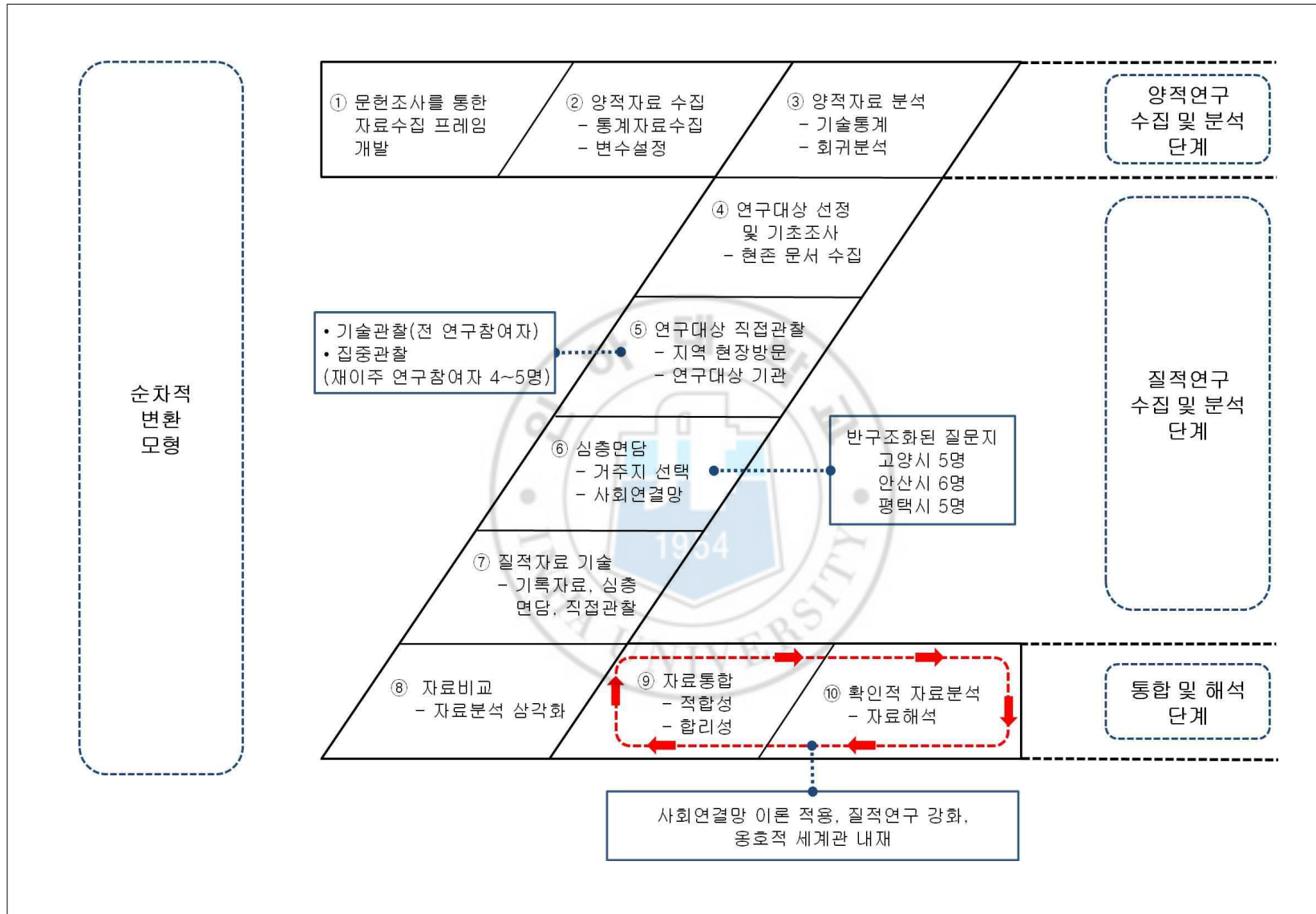
기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분포 현황은 그들의 거주 변화 폭을 수치 및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각각 2년 간격의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분포에 관한 전국단위 자료는 통계청의 문헌자료와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취합하였고, 지역단위 자료는 경기도청,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및 관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제도·정책 및 지원체계의 자료는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이용하였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분석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비롯한 각각의 연구기관 및 정책기관에서의 발행한 보고서를 획득하여 활용하였다.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비교분석 하였으며 연구지역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자료는 횡단면 자료<sup>12)</sup>를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자료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를 적용하여 수집하였다. 우선 경기도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절대 다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변동추이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시계열상 변화를 보였다. 또한 경기도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의 31개 지방자치단체(시 28개 지역, 군 3개 지역)로 한정하였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내의 일반구는 변수의 전체 자료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서 제외하였다<sup>13)</sup>. 시간적 범위는 한국에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이 본격적으로 이주한 1998년부터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나, 2006년 이전 자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6년 이후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거주지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인을 고려하여 전체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점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2012년을 단일시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일부 자료의 경우, 통계 자료로 공개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모든 자료를 수집 가능한 최근 연도로 시점을 통일하였다.

12) 횡단면 자료는 동일 시점 또는 동일 기간에 여러 변수에 대해 관찰된 자료를 의미한다(이종수, 2009).

13)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일반구가 존재하는 시는 6개 지역이며, 일반구는 총 18개이다. 해당 일반구는 다음과 같다.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이다.



[그림 3-1]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 경험에 관한 통합연구방법 모형

변수자료는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실의 내부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실태조사, 통일부 통일백서 및 현황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이주민 정책 통계연보, 2013지방세통계연감과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 (2) 변수설정

변수설정은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의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경기도의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비율과 2012년도 거주 이주민 비율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의 수를 변수로 사용하면 지역의 인구규모에 의한 편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 변수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지역별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지역 비율로 전환하였고, 이주민은 한국정착민과 이주민을 결합한 인구를 지역 비율로 삼았다.

최웅선 외(2013)에 의하면 거주지 선택은 개인의 의사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이 중 어느 특정요인에 의해서 거주지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앞선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은 경제, 정치, 사회적 요인과 문화, 지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선택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이주민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진영·남진, 2012; 최웅선 외, 2013)에서 선정한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은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경제부문, 주거부문, 재정부문, 사회복지부문, 교육부문, 사회연결망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세부 독립변수들을 이용하였다.

첫째, 산업경제부문에서의 요인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이자 노동이주민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는 기존의 정치적 망명의 성격과 더불어 경제적 동기가 이주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주민에게 일자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새로운 정착지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한국이라는 공간은 지리적·환경적으로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직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이주민의 경우는 경제적 동기로 이주한 경우 위와 같이 거주지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진영·남진, 2012). 특히 노동이주민은 직

장과 지리적 근접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주현, 2009; 송주연·이혜경, 2009).

<표 3-1> 경기도 시·군 지방자치단체별 변수 선정 및 산출 방법

구분	변수	산출방법	출처	
종속변수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수/ (지역 주민)×1,000	경기도 남북협력 담당관실	
	2012년도 거주 이주민	이주민 수/ (지역 주민+이주민)×1,000		
독립 변수	산업 경제	고용밀도	총 종사자 수/ 시가화 면적(명/km <sup>2</sup> )	국가 통계 포털
		제조업 사업체	해당 사업체 수/인구×1,000	
		건설업 사업체	해당 사업체 수/인구×1,000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해당 사업체 수/인구×1,000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해당 사업체 수/인구×1,000	
	주거	주거지역	주거지역 면적/ 시가화 면적(%)*	지방세 통계 연감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호수/ 총 주택호수(%)	
		재산세	시·군 재산세액/ 시·군 면적(1천 원/km <sup>2</sup> )	
	재정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인구(1천 원)	국가 통계 포털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사회 복지	복지 시설	10만 명당 복지 시설 수	국가 통계 포털
		사회복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비중(%)	
	교육	초등학생	소재 전체 초등학교 재학생수/인구×100(%)	교육 통계 서비스
	사회 연결망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2006년 북한이탈주민 수/ 2006년 (지역주민)×1000	경기도 남북협력 담당관실
2006년도 거주 이주민		2006년 이주민 수/ 2006년 (지역주민)×1000	국가 통계 포털	

주: \*시가화 면적은 도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을 의미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2)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분야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종사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특성은 학력결손, 기술부재 등으로 인한 단순 기능 일력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국내의 노동 인력 구조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산업경제부문에서는 고용 밀도와 제조업 수, 건설업 수, 숙박 및 음식점업 수, 도매 및 소매업 수의 5개의 대표변수를 선정하였다. 고용밀도는 시가화 면적에 총 종사자 수를 변환하여 산출하였고, 사업체와 관련된 변수들의 값은 인구 규모를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 1천 명당 업체 수로 변환하여 산출하였다.

둘째, 주거부문은 이주민이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은 소득수준에 의한 경제적 제약을 받게 된다(윤인진, 1998; 정수열, 2008). 따라서 한국에 이주해 온 이주민들은 거주지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체로 한국에 이주해 온 대부분은 저개발국에서 이주해 온 단순기능 인력 노동이주민이거나 주로 동남아시아의 저개발국에서 이주해 온 결혼이주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약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지가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거지역보다는 공업·상업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90% 이상이 경제적 제한과 무관한 주거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이들은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배정받게 된 지역에 정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주거부문에서는 주거지역 비율, 공공임대주택비율, 면적당 재산세를 대표 변수로 선정하였다. 주거지역 비율은 시가화 면적 중에서 주거지역 면적의 비율이 거주지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정하였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 지원정책에 대한 자료이며, 면적당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가 대부분 부동산 과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가 수준의 대리변수로 적용하기 위한 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정부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적 격차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관·이주형, 2010; 윤호, 2012). 지방자치단체의 소득부분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인당 지방소득세는 소득부분을, 재정자립도는 재정 여건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주민의 경우 체류유형에 따라서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재정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웅선 등 2012).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을 살펴보면 15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75.6%에 달한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북한이탈주민 역시 지역적 재정에 따라서 거주지 선택



지역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은 공공임대주택을 배정받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쾌적한 환경과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우수한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사회복지부문에서 공공 서비스와 지방공공재의 격차가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창석, 2002; 신상영, 2010). 사회복지부문은 사회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욕구충족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한 부문이다. 따라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문에 적극 개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을 상기하면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정치·경제·문화·사회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민감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사회복지부문은 10만 명당 복지시설 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대표 변수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교육부문은 초등학생 비율을 대표 변수로 선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주민이 2014년 6월 전체의 69%이며, 가족단위 이주의 비율도 높아져 가고 있다. 이것은 특히 제3국을 체류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높아지면서 자녀들의 교육 환경 요인이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의 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공교육에 의한 환경이 더 중요시 될 것으로 예측된다.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학교 수 대신에 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 재학생 수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주민들은 정착국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소수민족 집단거주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공동체가 연대성, 동족에 대한 배려, 사회연결망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주민들은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초기 공동체는 그들의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송주연·이혜경, 2009; 최웅선 등, 2012). 이 변수는 2006년도의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비율<sup>14)</sup>과 2006년도의 거주 이주민 비율로 추정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은 지역별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지역 비율로 전환하였고, 이주민은 한국정착민과 이주민을 결합한 인구를 지역 비율로 삼았다.

각 부문별 대표 변수를 선정하고 구성된 독립변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위에서 선정된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

14)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사회연결망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 거주인구 천 명당 북한이탈주민을 독립변수로 선정함.

<표 3-2>. 본 연구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분석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의 제약을 덜 받는 편이었다. 그러나 역행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주성분 분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석 방법에서 다중공선성이 발견되거나 변수 특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이들 변수는 중복된 정보를 갖는 것을 의미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성태제, 2007). 따라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산팽창 계수(VIF)와 공차한계 값을 통하여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였다.

<표 3-2>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에 대한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분석

독립변수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공차	VIF	공차	VIF
산업 경제	고용밀도	0.371	2.697	0.372	2.688
	제조업 사업체	0.381	2.627	0.139	7.187
	건설업 사업체	0.155	6.450	0.164	6.095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0.199	5.038	0.213	4.699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0.412	2.426	0.411	2.432
주거	주거지역	0.479	2.087	0.517	1.936
	공공임대주택	0.360	2.782	0.356	2.811
	재산세	0.233	4.292	0.263	3.803
재정	지방소득세	0.318	3.143	0.274	3.654
	재정자립도	0.152	6.587	0.163	6.130
사회 복지	사회복지 시설	0.144	6.930	0.143	6.972
	사회복지 예산	0.250	4.006	0.252	3.969
교육	초등학생	0.132	7.563	0.129	7.731
사회 연결망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및 2006년도 거주 이주민	0.592	1.688	0.115	8.662

일반적으로 산출된 공차 한계 값이 0.1에 가깝거나 분산 팽창 계수의 값이 10에 근접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중공선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산 팽창 계수가 10이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의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검증은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해 주었다.

### 3.2.2. 질적자료수집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작동하는 사회연결망의 일반적인 유형과 특성을 해결하고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유형에 따른 지역적 차이와 실제 그들의 거주지 선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를 대상으로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 간 영향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서정보 및 공문서기록을 수집하였다. 심층면담과 직접관찰은 각 지역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1) 문서정보 및 공문서기록

문서정보(document)와 공문서기록(archival records)은 사례연구에서 중요한 자료원이다 (Yin, 2009). 본 연구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 경험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정보를 획득하였다.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기 전 이메일 교신을 통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과 연계된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 담당자, 민간단체 담당자와도 이메일 교신을 통해 비공식적 문서를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시청 및 민간단체를 방문할 때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행정문서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내부분서, 업무제안서를 획득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홍보 브로슈어와 행사내용에 탑재된 책자 등도 취합하였다. 연구자는 신문기사 및 대중매체 등에서 보여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자료화 하였다.

이렇게 획득한 문서정보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 자료들은 심층면담 또는 직접관찰에서 언급되는 기관명, 회사명, 그들만이 주로 사용되는 언어 등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직접관찰 등 다른 자료원에서 수집된 자료들끼리 교차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 (2) 심층면담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은 사례연구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핵심적인 자료원이다.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일관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질문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질문의 흐름이나 내용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Rubin & Rubin, 1995).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주관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주된 자료수집은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6명과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에 앞서 연구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각 지역의 인구구조, 주택현황, 산업경제구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기관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5명, 안산시 6명, 평택시 5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면담 횟수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간 상호작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각 1회씩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면담은 2014년 4월에 실시하였다. 각 심층면담 시간은 50분에서 120분 정도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의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선정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절차를 고지한 후 연구참여자가 면담에 응할 경우 그들이 원하는 면담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면담 일정을 잡았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면담 전에 연구자의 소개,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연구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불편함, 연구참여자에 대한 자발적 연구 참여와 연구 참여중단의 권리, 연구참여에 대한 혜택,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및 익명처리, 연구결과의 공개 범위, 면담내용의 녹음처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문서화된 연구참여 동의서<부록 2>에 서명을 받았고, 연구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셋째, 연구목적에 해결할 수 있는 반구조화(semi-structurization)된 질문지를 제작한 후 각 지역별 연구참여자 1명을 선정하여 예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예비 심층면담 내용을 토대로 연구목적 및 문제에 적합한 질문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질문지를 완성한 후 다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질문지는 <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기초

질문, 거주지에서의 사회연결망, 거주지 선택, 직업 선택으로 구분하였다. 기초 질문은 한국 입국 시기, 거주지 위치, 거주 기간 등이고, 거주지에서의 사회연결망은 거주지 내의 사회연결망의 규모와 빈도, 사회연결망의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거주지 선택은 정착 및 이주형태, 거주지 선택 시 고려 요인과 정보원에 관한 정보 등이고, 직업 선택에 대해서는 종사 직업군 및 직업 만족도, 지역의 고용조건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표 3-3> 연구참여자 심층면담 질문지 구성

구성	질문지 내용
기초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입국 시기, 거주지 위치, 거주 기간, 주택 유형, 동거 유형</li> </ul>
거주지에서의 사회연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 내에서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는 북한이탈주민</li> <li>• 거주지 내에서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는 한국 정주민</li> <li>• 연결망 대상자와의 모임 빈도, 지속성, 연결망 대상자로부터의 정착 도움 정도</li> <li>• 지역내 북한이탈주민 리더의 존재 여부 및 리더로 선택한 이유</li> <li>•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 기관 유무</li> </ul>
거주지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착 및 이주형태(정부 배정/자발적 이주), 거주지 선택 시 고려 요인,</li> <li>• 거주지 선택 요인 및 거주지 특성, 거주지 선택 시 정보원,</li> <li>• 거주지의 만족도, 타인에게 거주지 추천, 재이주시 고려지역 및 선택 배경</li> </ul>
직업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 직업군 및 직업 만족도(심리·사회·경제적), 직장위치 및 거주지와의 거리</li> <li>• 구직활동 및 취업알선 정보원, 구직활동과 지역의 고용조건</li> <li>• 직장에서의 동료(북한이탈주민, 한국정주민, 이주민), 타인에게 취업 알선 여부</li> </ul>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일체를 녹음하였고, 연구참여자의 거주지 선택 경험과 사회연결망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부록 3>. 특히, 면담 간에 연구참여자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조성하였고,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 하였다. ‘지금 거주하는 곳에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가족·친지와 같이 오셨나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나요?’를 통해 기본적인 거주지 유형과 가족 연결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중심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를 통해 거주지에서의 사회연결망에 탐색하고자 하였다. ‘거주지 선택에서 가장 고려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거주지

를 선택할 때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 지역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한국정부 기관, 시민단체, 교회 등이 있나요?'를 통해 거주지 선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자리는 어떻게 구했고,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있나요?',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쉬운가요?'를 통해 직업 선택에 대해 찾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이 종료된 이후에는 심층면담 자료의 생성을 위해 3일 이내에 전사를 하였다. 심층면담 자료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용지 10포인트 크기로 작성하였다. 연구자 및 동료 연구자가 전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질문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답변에 구두점을 찍어 구분하였다(Kvale, 1996). 연구참여자와 면담 한 건당 약 10~15매의 A4 분량을 차지하였다. 면담 자료를 전사할 때 언어적 자료뿐만 아니라 기침, 웃음, 한숨, 잠시 멈춤, 외부 소음, 말더듬음 등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함께 기록하였다(Seidman, 2006).

자료수집 중단은 연구참여자의 수적인 충분함과 연구참여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충족의 정도를 고려하였다(Rubin & Rubin, 1995; Seidman, 2006).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로부터 같은 정보나 유사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여 더 이상 사례를 부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시점에 자료수집을 중단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면담한 녹음을 전사하였고, 면담 시 관찰했던 내용을 작성한 관찰일지를 토대로 면담 상황을 입체적으로 형상화 하였다. 전사내용은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확인하였고, 2차례에 걸쳐 2인의 동료 연구자로 하여금 녹음내용과 전사내용을 비교하였다.

### (3) 직접관찰

연구자는 연구대상이나 현장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친숙해지기 위해서 직접관찰(direct observation)을 통해 현장 구성원의 삶에 적극 참여하였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의 참석, 현장에서의 구경, 면담과 같은 다른 자료 수집을 위해 현장방문 등이 포함된다(Yin, 2009).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현장 구성원의 행위, 말, 연구자가 참여자로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느낀 점, 그들의 순간적인 대화내용까지 자료로 수집하였다(김석우·최태진, 2009). 연구자는 직접관찰의 자료수집 방법을 준수하여 개인·집단과 우연적 또는 간접적으로만 상호작용하였고, 단지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상황에 참여하였다.



관찰수집 방법은 연구목적과 범위에 따라 기술관찰과 집중관찰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첫째, 기술관찰은 연구 가능한 목적을 인식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기술관찰은 정착지원기관 담당자, 한국사회 이주한 이후 한 번도 이주하지 않은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을 통해 그들의 거주공간, 거주지 선택의 행동, 거주지 선택의 목적 등을 확인하였다. 둘째 집중관찰은 기술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보다 중요한 연구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자료수집이 필요할 때 수행하였으며, 집중관찰은 한국사회에 이주한 이후 재이주의 경험이 있고, 한국사회에 다양한 사회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을 심층면담하기에 앞서 각 지역별 현장방문을 1회씩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업무를 주관하는 시청,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을 담당하는 하나센터, 민간단체인 적십자사 봉사회 담당자를 만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지원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각각의 정착지원 기관은 부여된 업무범위 및 업무상 한계점을 소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활동경험을 알려주어 자료화 할 수 있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안산시장이 주관하는 북한이탈주민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간담회 진행 간 언급된 안건,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시청의 수용여부 및 태도 등을 관찰함으로써 그 조직의 분위기나 태도 및 자세에 관한 짐작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관찰의 자료수집의 방법 중 연구참여자의 거주지의 위치, 거주지 주변의 환경, 가족관계 내에서의 위치, 주변 인적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대부분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으며, 타자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면담은 주로 연구참여자의 집 또는 거주지와 가까운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면담이 이루어지면서 연구자는 그들의 생활공간을 직접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가정문화, 주거공간의 내·외관의 활용 등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태도, 주거활용, 주변환경 적응, 지역의 거주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직접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관찰을 통해 수집된 증거는 연구목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하였다.

### 3.3. 자료분석

### 3.3.1. 양적자료분석

양적자료분석은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현황과악을 위한 공간분석은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였다. 문헌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공간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 현황과 영향 요인은 분석하기 위해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포 현황 분석은 기술통계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영향 요인 분석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중에서 단계선택방법을 활용하였다. SPSS 18.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관련이론을 토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가장 먼저 도출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각 독립변수 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고려하여 단계선택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변화량을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나 예측을 위해 14개의 독립변수를 회귀모형에 포함시켰다. 14개의 독립변수를 회귀모형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종속변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형은 무엇이지를 밝히기 위하여 분석하였다.

### 3.3.2. 질적자료분석

질적자료로 수집한 데이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특성, 거주지 선택의 경로, 지역별 차이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크게 3가지 질적자료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코딩에 있어서 개방 코딩을 바탕으로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의 특성 범주화, 북한이탈주민 간의 사회연결망 특성 범주화, 정부 주도의 사회연결망 특성 범주화,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 특성 범주화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4가지 사회연결망의 특성에 대한 비교를 위해 축 코딩을 적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과 거주지 선택에 대한 지역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면담내용을 전사한 후 의미 있는 어구나 구절을 추출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서정보 및 공문서기록, 심층면담, 직접관찰 등에 나타나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대한 그들의 행동이나 언어를 살펴보고 여러 맥락에 숨겨진 의미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추출은 연구참여자로부터 얻은 질적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도출된 의미와 구조들을 점검하였다(Crotty, 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기록을 분류하면서 그들의 거주지 선택의 사례가 있었다면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 3.4. 연구참여자 선정 및 특성

#### 3.4.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목적의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언어를 통해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표집방법은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sup>15)</sup>과 최대편차 표집방법(maximum variation sampling)<sup>16)</sup>을 사용하였다.

눈덩이 표집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특정 모집단의 구성원들을 찾아내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표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고 그로 인하여 구축한 비공식 사회연결망을 통하여 정보원(informant)<sup>17)</sup>을 확보하였다. 이후 그들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

15) 눈덩이 표집은 현장연구에서 자주 전개되는 비확률표집 방법으로, 면담을 한 각 개인들에게 다음에 면담할 사람들을 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즉, 이는 임의 표집의 한 형태로 간주대기도 하며, 이 절차는 노숙자,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등과 같이 특정 모집단의 구성원들을 찾아내기 어려울 때 적절하며, 연구자는 자신이 찾아낼 수 있는 몇 명의 목표 모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집단의 다른 성원들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대표성이 의심스러운 표본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탐색적 목적에 주로 사용된다(Barbbie, 2007).

16) 최대편차 표집은 다양한 편차를 기록하며, 중요하고 공통적인 패턴을 확인할 때 사용된다. 즉 사전에 다양한 참여자나 현장을 포함하는 몇몇 기준을 정하고 그 중 기준에서 가장 다른 현장이나 사람들을 고르는 방식이다(Miles & Huberman, 1994).

평택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정보원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를 확장시켜 나갔다. 최대편차 표집방법을 택한 이유는 사례연구방법에서 이 표집방법이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여러 관점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Creswell, 2007). 표집과정은 사전에 다양한 대상을 모집한 후 연구주제에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거주지 선택 경험’과 ‘사회연결망’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표집방법을 근거로 하여 연구참여자는 연구주제에 부합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나타낼 수 있는지, 고유한 특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이주하여 3년 이상 정착하고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Castles & Miller(2009)에 의하면 이주민이 정착국의 문화, 사회공동체의 안정에 통합되는데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이주민과 유사한 이주특성을 지닌 집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둘째, 이론적 논의에서 고찰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편차의 대표성을 지닌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성별, 연령, 가족관계, 제3국에서의 거주기간, 한국에서의 재이주 여부, 주택유형 등을 정하여 가장 다양한 경험을 진술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한국에 가족 및 친지가 있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취업활동 및 사회활동을 하고 있거나 했던 북한이탈주민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배경은 본 연구가 사회연결망에 의한 거주지 선택 경험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 3.4.2. 연구참여자 특성

이주민에 대한 소식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실제 생활에서도 연구자는

---

17) 정보원은 집단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집단의 성원이며,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현상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 바를 연구자에게 기꺼이 말해 주는 사람이다(Barbbie, 2007).

가시적으로 구분 할 수 있는 피부색, 언어, 종교 등을 통해서 그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적인 이주민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구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들을 자주 접했지만 막상 그들을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한국인과 유사한 그들의 외모적인 특징, 그들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이었다.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그 존재 자체가 베일에 감춰져 있었다.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연계된 지역단체 및 기관을 찾았다. 연구자는 그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들이 주로 참석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동참하였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세미나, 그들의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공청회 등을 찾아다니며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적응 생활상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민·관·학 분야로 확장시켜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2008년부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들과 접촉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단체에서 연구자는 학업결손 및 학업중단을 경험한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청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자원봉사 강사직을 수행하였다. 강사직을 수행하면서 그들의 언어, 습관, 태도 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직접관찰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청년 3명과 그들의 부모, 형제들을 심층면담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이주 특성, 거주지 선택이유, 한국사회 적응 특징, 그들의 사회연결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연구의 성과 및 한계점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설정하고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에 부합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연구자가 직접 섭외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중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인, 하나센터서 전문상담사로 종사하는 1인, 통일교육전문강사 2인의 추천을 받아 북한이탈주민 16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4>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현재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였다. 또한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거주지 선택을 직접하거나 또는 거주지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위치에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거주지, 성, 연령, 제3국 정착여부, 한국에서의 재이주 여부, 주택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4>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지역	코드	성별	연령	현재직업	정착경로*	가족원 및 동거여부	주택 유형
고양시	G1	여	38세	사무직	중국→광주광역시 →고양시→고양시	남편(조선족 /중국거주) 자녀1(별거)	국민 임대
	G2	남	53세	무직	중국→고양시	미혼 독신	영구 임대
	G3	여	53세	서비스업	중국→고양시→파주시 (고양시 직장)	자녀1(동거)	국민 임대
	G4	남	41세	자영업	고양시 (파주시 직장)	아내(북한인/동거) 자녀1(동거)	영구 임대
	G5	여	43세	제조업	고양시	남편(북한인/동거) 자녀1(동거)	영구 임대
안산시	A1	여	48세	무직	중국→안산시	이혼(중국인/중국) 독신	국민 임대
	A2	여	46세	서비스업	중국→안산시	이혼(중국인/한국) 자녀1(동거)	국민 임대
	A3	여	41세	주부	중국→안산시	남편(한국인/동거) 자녀1(동거)	영구 임대
	A4	여	33세	주부	안산시	남편(북한인/동거) 자녀2(동거)	국민 임대
	A5	여	56세	서비스업	서울시→안산시	자녀1(동거) 자녀1(별거)	월세
	A6	여	40세	자영업	중국→안산시	남편(중국인/동거) 자녀2(중국거주) 아들2(동거)	자가
평택시	P1	여	35세	제조업	중국→서울시→평택시	남편(한국인/동거) 자녀2(동거)	자가
	P2	남	29세	제조업	서울시→평택시 →포천시→평택시	어머니(동거)	국민 임대
	P3	여	27세	대학생	중국→서울시 →천안시→평택시	부모(동거) 자매2(동거)	국민 임대
	P4	여	60세	강사	중국→서울시→평택시	자녀1(동거) 자녀1(분거)	국민 임대
	P5	여	38세	강사	중국→부천시 →시흥시→평택시	남편(한국인/별거) 자녀1(동거)	월세

주: \*정착경로는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만 기술함.



첫째, 연구참여자의 거주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 5명, 안산시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 6명, 평택시에 연구참여자 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지역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여성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여성 분포는 81%이었으며, 연구참여자 G2, 연구참여자 G4, 연구참여자 P2를 제외한 13명이 여성 연구참여자였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연령별 분포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20~60대 모두를 선정하되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30~40대를 주축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그들의 평균연령은 42세였으며, 20대 2명, 30대 4명, 40대 6명, 50대 3명, 60대 1명이었다. 넷째, 중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연구참여자는 11명으로 고양시 연구참여자는 3명, 안산시 연구참여자는 4명, 평택시 연구참여자는 4명이었다. 다섯째, 한국에서 재이주의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는 8명이었으며, 고양시 연구참여자는 2명, 안산시 연구참여자는 1명, 평택시 연구참여자는 5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 4명,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 8명, 월세 및 자가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가 각각 2명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의 비율이 75%였다.

### 3.5. 연구윤리

본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합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어떠한 방법론을 선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Hesse-Bieber & Leavey, 2011). 연구자는 인간에 관한, 인간으로부터 자료수집을 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를 보호해야하고, 그들을 신뢰하였다. 특히 연구과정에서 자료수집과정은 많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하는 동안 연구현장에 대해서 윤리적 절차를 준수하였다.

연구윤리 기준은 Guba & Lincoln(1994)의 기준을 준수하여 연구의 신빙성, 전이가능성, 확실성, 확증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네 가지의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함

으로써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통계자료를 엄격하게 통제하여서 관리하였다. 통계자료수집 시 관련기관에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협조 및 동의를 얻어 자료를 수집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양적연구는 통계자료에 대해 임의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고 출처 및 원자료의 수치를 논문에 기재하여 신빙성을 높였다<부록 1>.

둘째, 연구내용에 대한 전이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심층면담 수행 시 의도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연구참여자가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논문에 반영하지 않았다(Seidman, 2006). 심층면담 진행시 학문적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알리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셋째, 연구자료의 확실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단계부터 분석의 단계까지 연구참여자를 통한 재확인 작업을 반복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동의서를 통해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허락받았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면담 전에 연구자의 소개,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연구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불편함, 연구참여자에 대한 자발적 연구 참여와 연구 참여중단의 권리, 연구참여에 대한 혜택,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및 익명처리, 연구결과의 공개 범위, 면담내용의 녹음처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넷째, 연구자료의 확증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의 과정을 기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심층면담한 녹음 내용을 전사하여 자료화 하였고, 이 자료는 동료 연구자 2인을 통해 검토 받아서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4.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 요인<sup>18)</sup>

본 장에서는 제1절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현황과 분포에 대해 알아보고, 제2절에서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공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다중회귀 분석 중 단계선택방법을 통해 경기도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친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한 자료를 통해 제4절에서는 연구지역을 유형화하여 연구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사회연결망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 4.1.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현황과 분포

#### 4.1.1. 북한이탈주민의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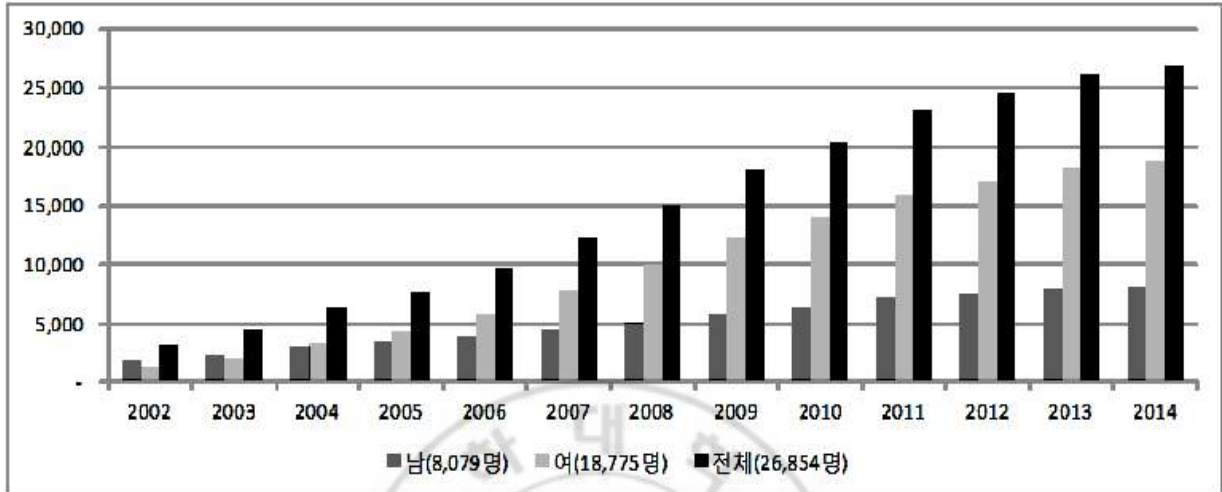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잠정누적 인구수는 2014년 6월 현재까지 남성 8,078명, 여성 18,776명으로 총 26,854명이다(통일부 홈페이지). 한국에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1]과 같다.

한국전쟁 이후 1998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누적인원은 947명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천명 이상 이주하였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천 명 이상 이주하였고, 2012년부터는 매년 1천 5백 명 이상 이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2007년 2월을 기점으로 누적 이주민원이 1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2천 명 이상 이주하여 2010년 11월에는 누적 이주민원이 20,360명으로 북한이탈주

---

18) 본 장은 최정호·박선미(2013)의 학술논문(ISSN: 1226-9492)에서 일부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민 2만 명 시대를 열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매년 2천 명 이상 한국에 이주해 온다면 향후 5년 이내에 북한이탈주민 5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통일부(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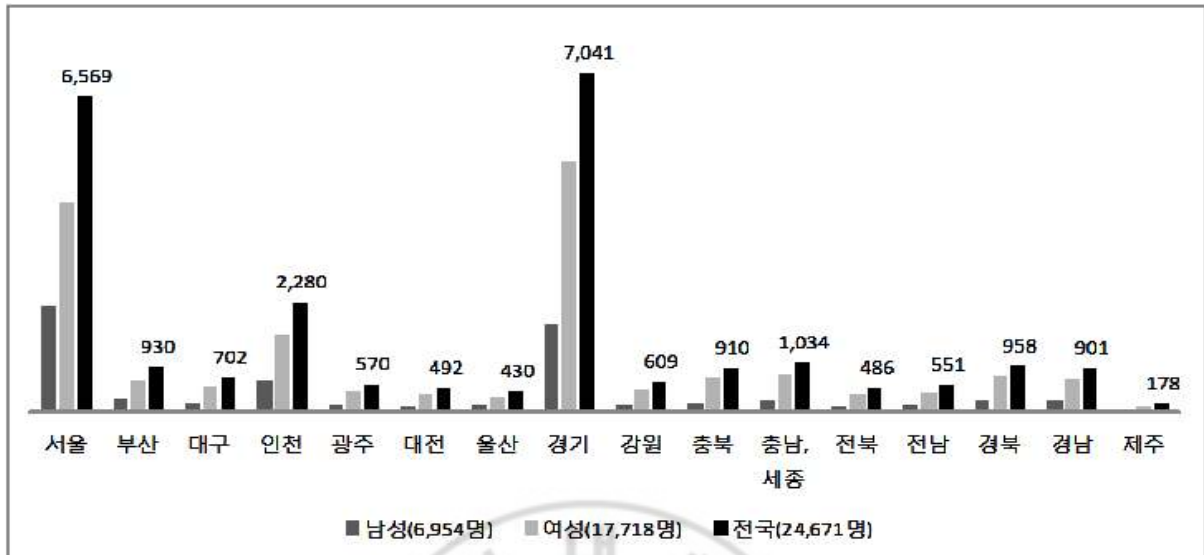
[그림 4-1]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이주현황

위의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추이가 일정하지 않고 몇 차례 변동이 있었다. 그 원인은 김일성·김정일 사망 및 김정은 권력계승 등과 같은 북한의 정치변동에 따른 영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방지를 위한 주변 강대국의 외교적·경제적 공세,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수용여부, 남북의 정치·외교적 관계변화 때문이다.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의 남녀 성별추이를 보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에는 북한이탈여성이 1천 명을 넘어섰고, 현재는 북한이탈여성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북한주민 중 여성이 남성보다 탈북이 용이하며, 이들을 비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중국 및 제3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1.2.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

본 연구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들

의 광역시·도 거주 누적현황은 다음과 같다[그림 4-2].



출처: 전영숙 외(2013), 통일부(2014)

[그림 4-2] 광역시·도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누적현황(1948년~2014년 6월)

194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 거주 누적현황은 경기도<sup>19)</sup> 거주자가 7,04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 거주자는 6,569명, 인천시 거주자는 2,280명, 충남·세종시 거주자는 1,034명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대비 수도권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2006년 63.1%였으며 2009년 69.7%, 2012년 65.0%로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거주 비율은 초기 정착시기 보다 감소 또는 정체하여 낮아졌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전체 누적 거주 비율로 비교분석하면 수도권지역이 다른 광역시·도를 압도하여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수도권에 북한이탈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취업기회가 집중되어 있고, 취업정보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19) 한국으로 이주해 온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경기도 거주하는 비율 27.4%임. 2012년을 기점으로 광역시도 중에서 서울시를 제치고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시도가 되었음(통일부 2014).

<표 4-1> 광역시·도별 북한이탈주민의 인구 변화

(단위: 명, %)

지역	2006년		2009년		2012년	
	전체(명)	비율(%)	전체(명)	비율(%)	전체(명)	비율(%)
전체	7,621	100.0	14,428	100.0	22,683	100.0
수도권*	4,809	63.1	10,062	69.7	14,741	65.0
서울	2,900	38.1	5,209	36.1	6,351	28.0
부산	495	6.5	688	4.8	882	3.9
대구	311	4.1	441	3.1	688	3.0
인천	421	5.5	1,345	9.3	2,100	9.3
광주	189	2.5	330	2.3	570	2.5
대전	363	4.8	397	2.8	472	2.1
울산	122	1.6	167	1.2	340	1.5
경기	1,484	19.5	3,508	24.3	6,290	27.7
강원	204	2.7	320	2.2	557	2.5
충북	168	2.2	400	2.8	767	3.4
충남·세종**	259	3.4	459	3.2	885	3.9
전북	127	1.7	202	1.4	428	1.9
전남	129	1.7	318	2.2	496	2.2
경북	220	2.9	407	2.8	887	3.9
경남	192	2.5	480	3.3	811	3.6
제주	37	0.5	96	0.7	159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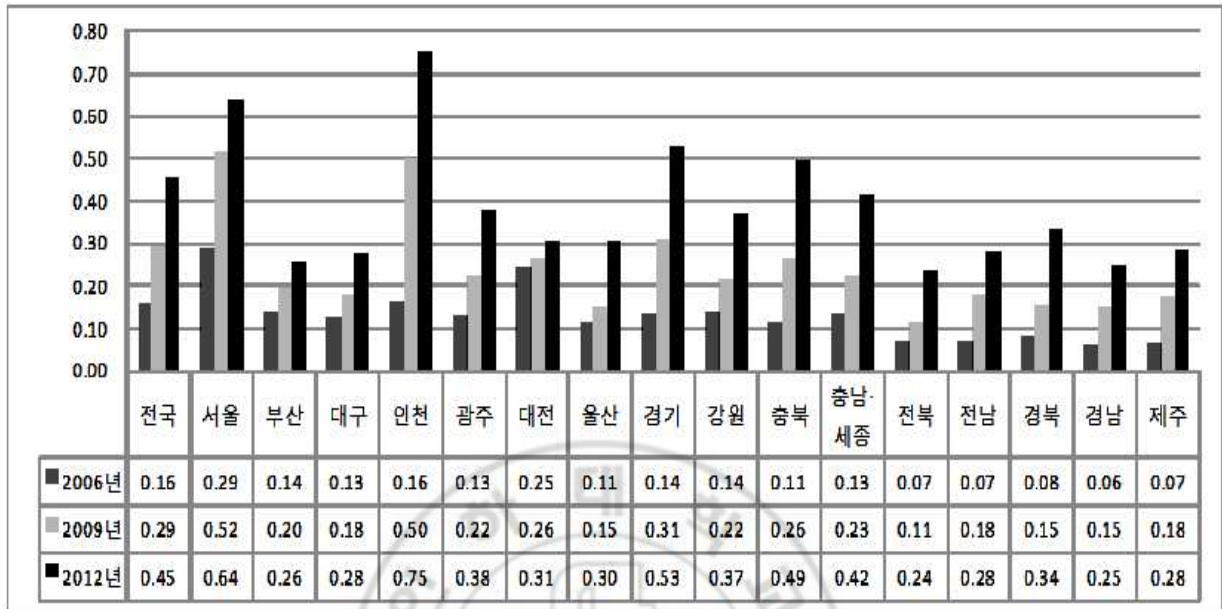
주: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의미함,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

출처: 통일부(2013)

둘째, 본 연구는 지역 인구 천 명당 북한이탈주민의 인구비중을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살펴 보았다. 2006년에서 2012년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거주 지역 주민등록인구 천 명당 북한이탈주민의 인구비중은 다음과 같다[그림 4-3]. 인천시는 0.16명에서 0.75명으로 서울시는 0.29명에서 0.64명으로, 경기도는 0.14명에서 0.53명으로 증가하였다. 시기별 북한이탈주민의 인구비중 역시 수도권 지역이 타 광역시·도 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북한이탈주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비중이 높은 지역에 집중거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출처: 통일부(2013)

[그림 4-3] 광역시·도별 인구 천 명당 북한이탈주민 인구 변화

셋째, 본 연구는 2012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거주 분포 현황을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5백 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은 총 8개 지역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3개 지역(양천구, 노원구, 강서구), 경기도는 4개 지역(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그리고 인천시 1개 지역(남동구)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이 1천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총 3개 지역으로 인천시 남동구(1,475명), 서울시 양천구(1,121명), 서울시 노원구(1,032명)이다.

## 4.2.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현황과 분포

### 4.2.1. 경기도의 공간적·사회적 특징과 이주민 현황

경기도 인구는 2012년 12월 12,381,550명이며 남자가 6,260,055명으로 50.6%이고 여자가 6,121,495명으로 49.4%이다. 경기 남부지역이 9,183,587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74.2%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 북부지역은 3,197,963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25.8%를 차지한다(경기 통계연보, 2013). 경기 남부지역의 인구가 북부지역의 인구에 비해 약 3배 정도 더 많다.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수원시이며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연천군이다.

경기도 면적은 전 국토의 약 10%인 10,184km<sup>2</sup>이다. 경기도 북쪽은 86km의 비무장지대(DMZ)와 접해있으며 서쪽은 332km의 해안선과 인천시에 접해있다. 동쪽은 강원도와 접해있으며 남쪽은 충청남·북도와 인접해있다. 경기도 중앙에는 서울시가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서울시의 정치·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인구밀집 현상을 막기 위해 수도권이라는 편의적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경기도는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지역적으로 남부와 북부로 분할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분할은 지역 주민간의 심리적 거리감 생성과 행정 및 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도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어렵다. 또한 두 지역 간 격차는 1997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2012년 북부지역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up>20</sup>이 경기도 전체의 80.5% 수준에 머물러 지역경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경기통계연보, 2013). 경기도 남·북부 지역의 지역경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경기도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와 직접적으로 맞대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로 인한 인프라 미비가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경기개발연구원, 2007). 경기도 도민 중 상당수는 서울통근권이라는 거주목적

---

20) 약칭으로 GRDP라고 한다. 일정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합계를 말하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모두 계상된다. 이는 각 시도의 경제 규모,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여 지역경제분석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경제의 실태를 지역별 소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유용성이 높게 평가된다. 그리고 GRDP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 지방자치기관의 재정의 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GRDP가 낮다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함을 뜻한다. 또한 GRDP를 그 지역의 총인구로 나누어 주민 1인당 GRDP를 얻을 수 있다(두산백과 홈페이지, 2014년 11월 14일 검색).

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도민일지라도 상당수가 직장을 따라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지역의식 및 애향심이 희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희연, 2008).

경기통계연보(2013)에 따르면 최근 이주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주민등록상의 이주민은 2013년 기준으로 1,569,470명으로 국내 체류 이주민이 15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은 2014년 현재 전체 이주민의 31.4%에 달하는 492,790 명이며 2006년 200,708명에 비하면 245.5%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주민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경기도청(2014)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본 연구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 현황을 이주 유형, 국적, 지역 거주지로 분류하여 특징을 도출하였다. 경기도 이주민을 이주 유형으로 구분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주민은 395,786명(80.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중 노동이주민이 40.9%, 결혼이주민이 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 국적을 가진 이주민은 45,044명(9.2%)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 자녀는 51,960명(10.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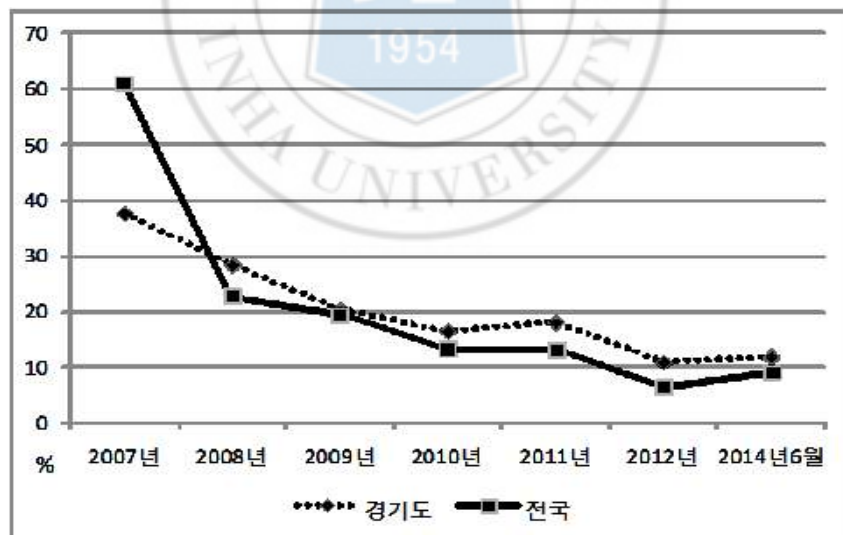
경기도 이주민을 국적으로 분류하면 중국 국적자(조선족 포함)가 293,386명(5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40,816명), 필리핀(18,608명), 미국(17,444명) 순이다. 노동이주민의 국적은 중국(48.3%), 베트남(7.9%)순이며, 남성이 71.4%인 144,02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주민의 경우에는 중국(68.1%), 베트남(13.1%), 필리핀(4.0%), 일본(3.8%)순이며 여성이 80.5%인 69,544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노동이주민은 남성이, 결혼이주민은 여성이 각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의 비중 역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이며 결혼이주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이주민을 지역 거주지로 살펴보면, 이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은 17개 지역이며, 안산시(75,137명), 수원시(47,237명), 시흥시(38,921명), 화성시(36,731명), 부천시(30,566명), 성남시(29,560명), 용인시(23,592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이주민 밀집거주지역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 대비 이주민의 수가 5% 이상 거주하는 시·군은 7개 지역이고,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안산시(10.5%), 시흥시(9.8%), 포천시(9.2%), 화성시(6.9%), 안성시(6.2%), 김포시(5.8%), 양주시(5.0%) 순이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는 이주민 밀집거주지역(원곡동)과 산업기반시설(반월신공업단지)이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이주민을 공공연하게 결합해 주는 이주민 지원기관, 지자체, 민간단

체가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 스스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민족중심의 이주민집단 공동체, 종교단체, 본국의 송금을 보낼 수 있는 금융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박배균·정건화, 2004; 장원진, 2006).

#### 4.2.2.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

2014년 6월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은 7,041명(통일부, 2014)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28.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6년에 2,000여 명에서 2014년 6월 기준 7,000여 명으로 3.5 배 증가하였다. 경기도 전체 인구대비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인구변화와 비교해 본다면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기도 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4-4]. 경기도는 2014년 6월 현재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시·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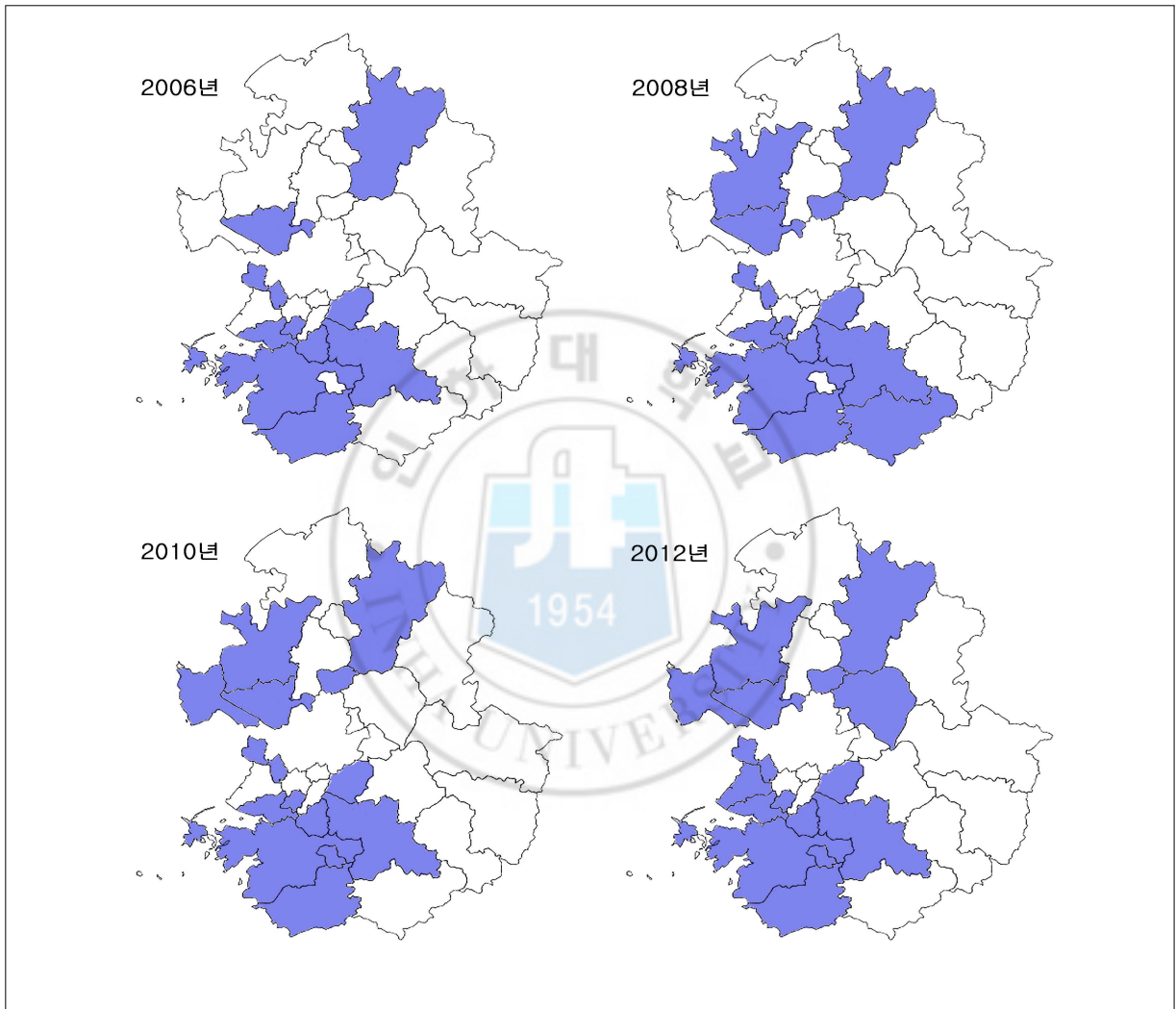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2014)

[그림 4-4] 전국 및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전년대비 증감률

[그림 4-5]은 북한이탈주민 거주 분포의 증감 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시

기별로 나열한 것이다. 2006년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분포패턴을 지방자치단체 시·군별로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100인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부천시, 성남시, 평택시, 광명시, 포천시, 안산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군포시 11개 지역에 한정되었다.



자료: 최성일·이윤희(2012), 전연숙 외(2013) 재구성  
 [그림 4-5] 경기도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 거주 변화 추이

2006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부천시(227명)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07년까지 지속되었다. 2006년 북한이탈주민 거주 분포의 상위지역은 부천시, 성남시, 광명시, 용인시, 고양시 등지로 대체로 서울시와 인접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2008년에 들어서 기존



지역에 의정부시, 안성시, 파주시가 포함되어 14개 지역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 들어 기존 지역에 김포시, 오산시가 포함되었으나 이전까지 100인 이상 거주하던 안성시가 제외되어 15개 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화성시가 되었고, 화성시와 인접한 안산시, 평택시도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기도의 전체적인 북한이탈주민 거주분포 패턴이 바뀌었다. 거주분포의 상위지역이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군포시, 김포시 등지로 재구성되었다. 2012년에는 북한이탈주민 100명 이상의 거주지에 시흥시, 남양주시가 추가되어 17개 지역으로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거주 분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수가 많은 상위 10개 시·군을 시기별로 나열해 보았다. 그 결과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경기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화성시로 경기도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9.2%에 해당하는 577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화성시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부천시(527명), 안산시(525명), 수원시(523명), 용인시(482명), 평택시(447명) 순으로 이어졌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밀집거주지역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인구수는 평균적으로 202명이고 표준편차는 191명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별 편차는 2006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2006년과 2012년을 비교하기 위하여 변이계수를 도출한 결과 1.06과 0.94로 나타나 6년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인구 비율의 변동추이를 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성남시는 2006년만 해도 경기도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10.7%의 비율을 보였으나 2012년에는 5.8%의 비율로 감소하였다. 한편 포천시, 군포시, 고양시 등은 북한이탈주민 인구 비율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인구의 변동추이를 보면 지역별 인구의 변화 폭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수에서 상위 10개 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는 것도 거주변화를 측정하는데 의미가 있다. 2006년 경기도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에 상위 10개 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75.2%이었다. 그러나 상위 10개 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1.6%, 2010년 71.4%, 2012년 69.7%로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구비중의 변화는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던 지역의 인구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지역이 이전보다 광범위해지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 경기도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규모의 상위 10개 지역 순위 변화

(단위: 명,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지역	인구 (비율)	지역	인구 (비율)	지역	인구 (비율)	지역	인구 (비율)
1	부천시	227(11.7)	부천시	328(9.8)	화성시	440(9.3)	화성시	577(9.2)
2	성남시	207(10.7)	안산시	272(8.1)	안산시	428(9.0)	부천시	527(8.4)
3	평택시	157(8.1)	평택시	267(8.0)	부천시	414(8.7)	안산시	525(8.3)
4	광명시	144(7.4)	화성시	266(8.0)	용인시	378(8.0)	수원시	523(8.3)
5	포천시	138(7.1)	수원시	265(7.9)	평택시	374(7.9)	용인시	482(7.7)
6	안산시	129(6.7)	용인시	232(6.9)	수원시	357(7.5)	평택시	447(7.1)
7	수원시	120(6.2)	성남시	224(6.7)	성남시	267(5.6)	성남시	358(5.7)
8	고양시	118(6.1)	포천시	191(5.7)	광명시	249(5.3)	김포시	346(5.5)
9	용인시	109(5.6)	광명시	180(5.4)	군포시	244(5.1)	광명시	311(4.9)
10	화성시	109(5.6)	군포시	172(5.1)	의정부	238(5.0)	군포시	291(4.6)
평균	62.4		107.8		152.9		202.9	
표준 편차	66.4		104.1		149.5		191.2	
변이 계수	1.06		0.97		0.98		0.94	

주: ( )비율은 당해 연도 경기도 전체 북한이탈주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는 경기도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수치임. 변이계수는 표준편차/평균으로 도출함.

자료: 최성일·이윤희(2012), 전연숙 등(2013) 재구성

그러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상위 5개 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인구비중 역시 2006년에 45.0%를 시작으로 2008년과 2010년에는 41.8%와 42.9%로 2012년까지 41.9%로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상위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기보다는 상위지역에 밀집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상위지

역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변동 폭이 좁다는 것은 기존에 상위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 하지 않으며, 새롭게 이주해오는 북한이탈주민 역시 상위지역으로 이주해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의 하위 거주 10개 지역의 거주분포를 살펴보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연천군, 과천시, 구리시, 가평군, 여주시 순이다. 연천군, 가평군, 여주시와 같은 지역은 서울 및 경기도의 기존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한 농촌지역이다. 과천시, 의왕시는 비교적 서울시와 인접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가가 높아 전체 거주인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구리시, 하남시는 산업경제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경기도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규모의 하위 10개 지역 순위 변화

단위(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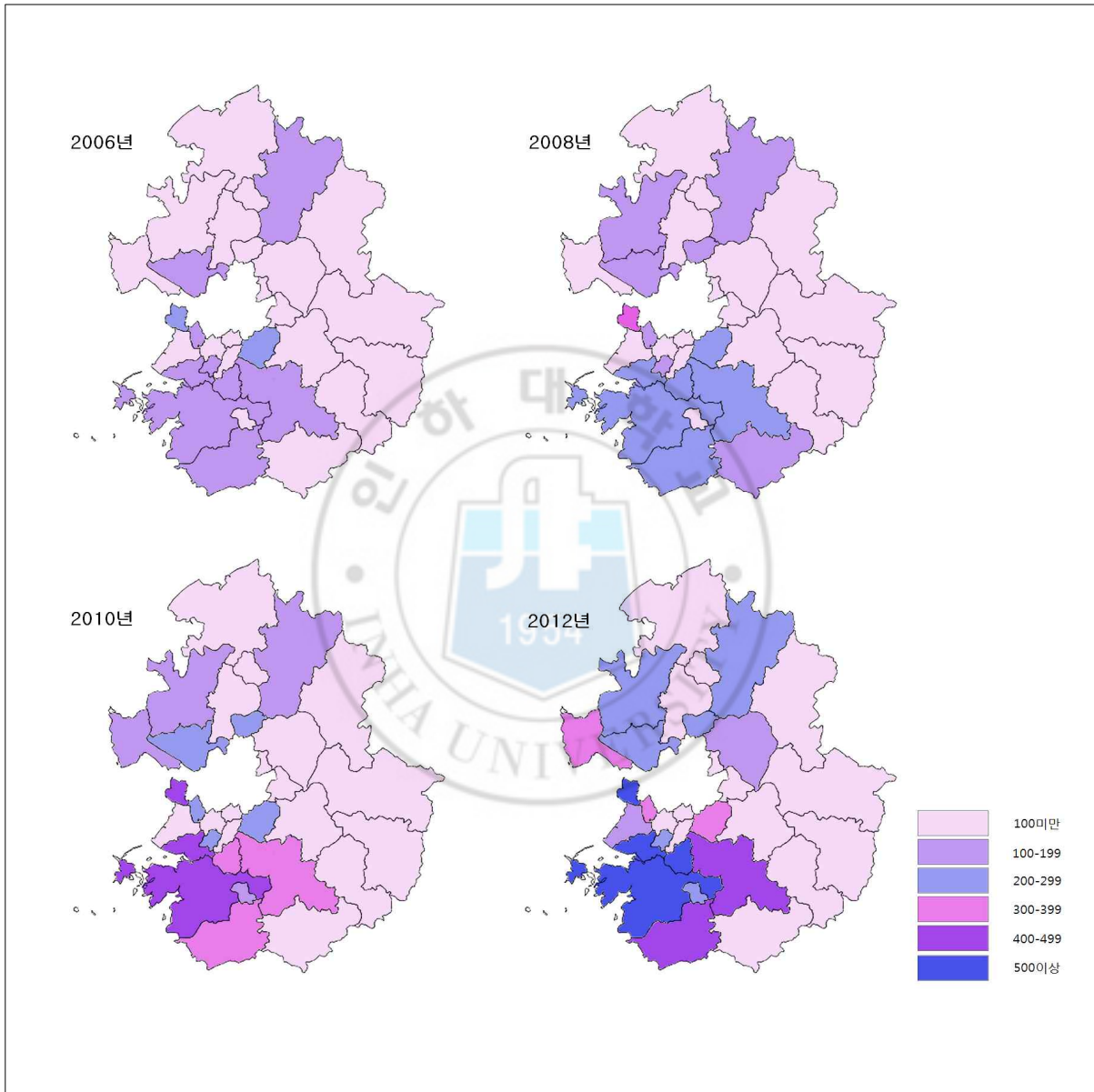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지역	인구 비율	지역	인구 비율	지역	인구 비율	지역	인구 비율
1	의왕시	1(0.1)	연천군	2(0.1)	연천군	2(0.0)	연천군	2(0.0)
2	여주시	1(0.1)	의왕시	3(0.1)	여주시	2(0.0)	과천시	6(0.1)
3	양평군	2(0.1)	여주시	4(0.1)	의왕시	5(0.1)	구리시	8(0.1)
4	연천군	2(0.1)	양평군	5(0.1)	과천시	7(0.1)	가평군	9(0.1)
5	하남시	3(0.2)	과천시	5(0.1)	하남시	7(0.1)	여주시	13(0.2)
6	과천시	3(0.2)	가평군	5(0.1)	구리시	8(0.2)	하남시	16(0.3)
7	가평군	5(0.3)	구리시	6(0.2)	양평군	11(0.2)	의왕시	18(0.3)
8	양주시	6(0.3)	광주시	9(0.3)	가평군	11(0.2)	동두천	19(0.3)
9	동두천	6(0.3)	동두천	10(0.3)	동두천	13(0.3)	양평군	20(0.3)
10	구리시	6(0.3)	하남시	12(0.4)	광주시	15(0.3)	광주시	27(0.4)

주: ( )비율은 당해 연도 경기도 전체 북한이탈주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최성일·이윤희(2012), 전연숙 외(2013) 재구성

지역별 북한이탈주민의 증감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화성시의 북한이탈주민 규모는

2006년에 경기도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5.6%인 109명이었고, 2008년에는 8.0%인 266명이었으며, 2010년에 440명으로 증가하여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에 달하였다. 2012년에는 577명으로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2%를 차지하였다.



자료: 자료: 최성일·이윤희(2012), 전연숙 외(2013) 재구성  
 [그림 4-6] 경기도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거주분포의 변화

포천시와 안산시의 북한이탈주민 규모는 2008년을 기점으로 순위가 뒤바뀌었다. 포천시와

안산시 두 지역은 경기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포천시의 경우는 2006년에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7.1%에 해당하는 138명이었고, 안산시의 경우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6.7%인 129명이 거주하였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 안산시가 포천시보다 더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고 2010년, 2012년에는 안산시가 8.3%이고 포천시가 3.5%로 두 도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06년과 비교해보면 포천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안산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폭이 매우 넓어졌다.

[그림 4-6]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분포 변화를 각 시기별로 반영하고 있다. 2006년에는 부천시의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후 부천시의 북한이탈주민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동안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의 북한이탈주민 유입이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화성시는 201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 되었다. 반면 성남시, 광명시, 포천시, 고양시의 북한이탈주민 규모는 증가폭이 크지 않아 북한이탈주민 거주비율에 따른 시·군별 순위가 2006년에 비해 변화하였다.

### 4.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4.3.1. 기술통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영향 요인분석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과 이주민에 관한 변수로 단위는 지역의 인구 1천 명당 각각의 수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군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은 약 1명(표준편차 약 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분포가 상당히 적음을 의미하지만, 지역적 편차를 통해서 일부 특정지역에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반면 이주민의 경우 평균이 약 23명(표준편차 약15명)으로 나타나 경기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주민이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넓게 분포하고 있고 지역별 편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는 6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대표 변수를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로 구성된 변수는 총 14개로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표 4-4>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선택에 미친 변수별 기술통계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종속 변수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31	0.04	1.40	0.48	0.39	
	2012년도 거주 이주민	31	4.34	62.96	23.12	15.22	
독립 변수	산업 경제	고용밀도	31	2,330.33	10,087.02	6083.88	2,361.79
		제조업 사업체수	31	1.06	28.24	9.09	7.41
		건설업 사업체수	31	1.14	3.91	2.04	0.68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	31	7.46	40.23	12.62	6.03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수	31	3.24	11.27	4.76	1.53
	주거	주거지역	31	50.21	95.56	78.23	11.71
		공공임대주택	31	0.17	13.43	4.99	3.59
		면적당 재산세	31	6,779	1,992,400	526,711	539,209
	재정	지방소득세	31	56.04	384.87	148.84	79.29
		재정자립도	31	20.00	63.00	46.12	11.98
	사회 복지	사회복지 시설	31	3.66	36.02	15.27	10.01
		사회복지 예산	31	11.85	34.94	26.04	5.72
	교육	초등학생	31	4.42	7.91	5.95	0.80
	사회 연결망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31	0.01	0.88	0.17	0.18
		2006년도 거주 이주민	31	6.19	58.12	19.49	13.83

산업경제부문에서 고용밀도는 km<sup>2</sup>당 인구로 측정한 고용밀도의 평균은 약 6,088명(표준편차는 약 2,361)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수는 1천 명 당 업체수로 측정하였다. 제조업체 수의

평균은 9.09개(표준편차는 7.41개)이다. 건설업체 수의 평균은 2.04개(표준편차는 0.68개)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체의 평균은 12.62개(표준편차는 6.03개)이다. 도매 및 소매업체의 평균은 4.76개(표준편차는 1.53개)이다. 경기도는 고용밀도와 모든 사업체수 대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용밀도와 숙박 및 음식점업체 수에 대한 차이는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주거부문에서 주거지역 비율은 시가화 면적에서 주거지역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였다. 주거지역 비율의 평균은 78.23%(표준편차는 11.71%)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총 주택 호수에서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평균은 4.99%(표준편차는 3.59%)이다.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역적인 편차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당 재산세는 지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하였고 변수를  $\text{km}^2$ 당 1천 원 단위로 계산하였다. 평균은 526,711원(표준편차는 539,209원)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비율은 지역 간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지가에 대한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문에서 1인당 지방소득세의 평균은 14만8천 원(표준편차는 7만9천 원)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비율의 평균은 46.12%(표준편차는 11.98%)이다. 재정부문에서 지역 간 편차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부문에서 사회복지 시설 수는 10만 명 당 시설 수로 확인하였다. 복지시설 수의 평균은 15.27개(표준편차는 10.01개)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였다. 평균은 26.04%(표준편차는 5.72%)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부문은 전반적으로 지역 간의 차이가 보였다.

교육부문에서는 초등학교 비율은 지역 인구에서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로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비율의 평균은 5.95%(표준편차는 0.80%)로 측정되었다.

사회연결망부문은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2006년도 거주 이주민의 비율을 2006년도 지역별 지역주민 1천 명당으로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비율의 평균은 약 1명(표준편차 약1명)이었고, 2006년도 거주 이주민 비율의 평균은 약 19명(약 13명)으로 산출되었다. 각각의 변수를 통해 분석한 기술통계를 유추해 볼 때, 경기도 지역은 지역 간의 편차가 두드러진 공간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이주민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이러한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 4.3.2. 종속변수별 요인분석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은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후 이주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분포에 미친 영향 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2년도 거주 인구 천 명당 북한이탈주민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단계선택방법을 실시하였다. 단계 선택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독립변수의 추가와 제거를 적절히 조합하여 최선의 회귀식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종속변수인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14개의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역 변수가 모형에 포함되었다. 모형 요약에서는 각 단계에 따른 회귀모형의 설명량과 그에 대한 유의확률 및 각 단계에서 투입된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R제곱 변화량과 그에 대한 유의 확률이 제시되었다.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변수만 포함되었을 때 결정계수는 0.628로서 종속변수의 변화량의 62.8%를 설명해 준다. 이때의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변수를 추가하면 R제곱은 0.176만큼 증가되어 0.804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 된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역 변수가 추가되면 R제곱은 0.032만큼 증가되어 0.836로서,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세 독립변수는 종속변수 총 변화량의 83.6%로 설명할 수 있다<표 4-5>.

비교대상인 이주민의 경우 종속변수인 2012년도 거주 이주민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15개의 독립변수를 투입하였다. 단계선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2006년도 거주 이주민, 주거지역, 공공임대주택 변수가 모형에 포함되었다. 회귀모형 요약에서는 각 단계에 따른 회귀모형의 설명량과 그에 대한 유의확률 및 각 단계에서 투입된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R제곱 변화량과 그에 대한 유의 확률이 제시된다. 2006년도 거주 이주민 변수만 포함되었을 때 결정계수는 0.758로서 종속변수의 변화량의 75.8%를 설명해 준다. 이때의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여기에 주거지역 변수를 추가하면 R제곱은 0.847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변수가 추가되면 R제곱은 0.879로서,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세 독립변수는 종속변수 총 변화량의 87.9%로 설명할 수 있다.

<표 4-5>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의 회귀모형 요약

종속변수	모형	R	R <sup>2</sup> (결정계수)	수정된 R <sup>2</sup>	F 변화량	유의 확률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0.792	0.628	0.615	48.923	0.000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공공임대주택	0.897	0.804	0.791	25.298	0.000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역	0.914	0.836	0.818	5.172	0.031
2012년도 거주 이주민	2006년도 거주 이주민	0.871	0.758	0.750	90.928	0.000
	2006년도 거주 이주민, 주거지역	0.920	0.847	0.836	16.268	0.000
	2006년도 거주 이주민, 주거지역 공공임대주택	0.937	0.879	0.865	7.104	0.013

주: 유의확률은 P<0.05임.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의 다중회귀계수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면 분석 결과 <표 4-6>에서 볼 수 있듯이 p<0.05 수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업경제부문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를 보면, 구직 및 취업활동에서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자가 63.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시·군 간 통계적 표본이 적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및 정착 특성에 따른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취업을 통해서 이주 및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한 후에 취업을 하는 구조적인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정주민에 의해서 고용 구조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이주민의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주거부문에서 공공임대주택 변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공간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교육을 마친 후 첫 거주지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받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주거 구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한 특정 지역으로 밀집시키는 원인이 된다. 북한이탈주민 기초조사(북한이탈주민재단, 2011)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98.6%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또한 정착 시 배정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71.5%는 이사하지 않고 정착하며 살고 있었다. 이는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목적으로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비자발적인 주거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주거지역 변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변수가 부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는 주거지역보다는 공업·상업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통계 결과는 거주지 선택에 그들의 취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재산세 변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문, 사회복지부문, 교육부문의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연결망부문을 측정하기 위해 선택한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의 변수가 새롭게 이주해 오는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두 집단 모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선택에서 사회연결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이주민과 다른 점은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이주하기 전 제3국과 한국에 이주한 후 하나원 생활을 통해 최초 정착하게 될 거주지에 대해서 이주민보다 더 많은 경제·사회·지리적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수월하다. 그들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밀집거주지에 의존하여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공동체 규모가 커질수록 그들을 위한 민·관 관련시설 및 지원 등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이 밀집거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표 4-6>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분포의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7.596	0.076		0.000	1.000
주거	공공임대주택	0.414	0.083	0.414	4.999	0.000
	주거지역	-0.188	0.083	-0.188	-2.274	0.031
사회 연결망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0.609	0.085	0.609	7.201	0.000

주: 상수는 종속변수로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이며 유의확률은  $P < 0.05$ 임.

비교집단인 이주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4-7>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경제, 재정, 사회복지, 교육부문의 변인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경우 주거부문에서 주거지역 변수와 공공임대주택 변수가 유의 수준 이하에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변수와 공공임대주택 변수는 종속변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주거지역이 부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주민은 주거지역보다는 공업·상업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21)</sup>.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에 이주민이 평균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7> 경기도 이주민 거주지 분포의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720	0.066		0.000	1.000
주거	주거지역 비율	-0.335	0.071	-0.335	-4.710	0.000
	공공임대주택 비율	-0.198	0.074	-0.198	-2.665	0.013
사회 연결망	2006년도 거주 이주민 비율	0.845	0.076	0.845	11.080	0.000

주: 상수는 종속변수로 2012년도 거주 이주민이며 유의확률은  $P < 0.05$ 임.

21) 이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부분과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분석의 범위와 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4.3.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다중회귀분석에서 단계선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공공임대주택 변수, 주거지역 변수,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각각 변화할 때 다른 변수는 증가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감소하는지, 혹은 변화가 없는지를 밝히고, 그 정도를 추정하며 변수들 간의 관계 정도와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표 4-8>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변수와 공공임대주택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642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고,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변수와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792로 이 역시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변수와 주거지역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442로 낮은 상관이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종속변수와 3개의 독립변수는 각각 상관관계는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선택에 관한 상관분석

구분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역
공공임대주택	0.642***	-	-
주거지역	-0.466*	-0.222	-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0.792***	0.305	-0.304

주: 유의확률은 \*P<0.05, \*\*P<0.01임, \*\*\*P<0.0001

상관관계의 결과를 토대로 종속변수인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변수와 정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공공임대주택,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변수를 통해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거주 현황을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577명)는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5.6%에 머물렀으나,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보유 기준이 8.03%를 보이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하고 있어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보다는 공공임대주택 보유가 거주지 선택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표 4-9>. 이러한 유형은 화성시를 비롯하여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등이 해당된다. 반면, 부천시(527명)는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보유 기준 4.50% 불안정한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11.7%로 현재의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보다는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형의 시·군은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군포시 등이 해당된다. 수원시(523명)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과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비율 모두가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유형의 시·군은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서 확인된 변인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데 있어서 사회연결망과 주택공급은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표 4-9>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관한 변수 현황

단위(명, %)

구분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2012년도 공공임대주택**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역	인구	비율	지역	호수	비율	지역	인구	비율
1	화성시	577	9.2	용인시	17,179	8.33	부천시	227	11.7
2	부천시	527	8.4	화성시	16,564	8.03	성남시	207	10.7
3	안산시	525	8.3	수원시	16,200	7.86	평택시	157	8.1
4	수원시	523	8.3	성남시	16,046	7.78	광명시	144	7.4
5	용인시	482	7.7	파주시	15,671	7.60	포천시	138	7.1
6	평택시	447	7.1	김포시	13,354	6.48	안산시	129	6.7
7	성남시	358	5.7	광명시	12,741	6.18	수원시	120	6.2
8	김포시	346	5.5	고양시	12,645	6.13	고양시	118	6.1
9	광명시	311	4.9	남양주시	9,990	4.85	화성시	109	5.6
10	군포시	291	4.6	부천시	9,283	4.50	용인시	109	5.6
11	의정부시	278	4.4	오산시	8,354	4.05	군포시	102	5.3
12	고양시	256	4.1	안산시	7,974	3.87	안양시	58	3.0
13	파주시	225	3.6	의정부시	7,875	3.82	의정부시	56	2.9
14	포천시	221	3.5	평택시	6,715	3.26	남양주시	53	2.7
15	오산시	207	3.3	양주시	5,626	2.73	오산시	48	2.5

주: 변수의 비율은 당해 연도 경기도 전체 해당 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 전연숙 외(2013), \*\*정희정 외(2013), \*\*최성일 외(2008) 재구성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공공임대주택 변수를 통해 2012년도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4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이들 유형화는 다음과 같다. ①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도 높은 지역, ② 2006년도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낮는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높은 지역, ③ 2006년도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은 지역, ④ 2006년도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낮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도 낮은 지역이다. 이들 중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300명을 넘은 도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유형은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이고, ②유형은 화성시, 용인시, 김포시이며, ③유형은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이다. ④유형은 300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이 없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인 사회연결망과 거주지 선택에 관한 영향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시·군별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①유형에서는 사회연결망과 주거부분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적은 고양시를 선정하였고 ③유형에서는 사회연결망이 높지만, 주거부분이 낮은 안산시와 평택시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 4-10>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시·군별 유형

구분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높음	낮음
공공 임대주택	높음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 고양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김포시*, 파주시, 시흥시, 남양주시
	낮음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군포시, 포천시, 안성시	안양시, 이천시, 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가평군, 구리시, 과천시, 연천군

주: 2012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300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을 \*표기함.

출처: 경기도 시·군별 북한이탈주민·공공임대주택·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현황 재구성

안혜경·이금순(2007)은 비공식적 사회연결망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단위 이주 및 정착지원체계에서 나타난 지역 내 사회연결망 조직을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공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공식적인 연결망으로 분류하였

다. 본 연구에서 이들 지표를 토대로 연구지역의 공식적 사회연결망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양시는 21개 기관, 안산시는 23개 기관, 평택시는 16개 기관을 통한 공식적 연결망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①과 ③유형의 특성에 각 지역의 공식적 연결망의 영향 지수를 반영한 결과, 안산시는 가장 많은 23개 기관의 공식적 사회연결망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거주율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기관 간 연계가 다른 지역보다 강하였다. 한편 평택시는 공식적 사회연결망의 조직이 비교적 탄탄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고양시는 공식적 사회연결망의 조직이 비교적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연결망이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만든 비공식 사회연결망과 한국사회가 공식적 사회연결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조직한 기관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지원체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 4.4. 연구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

##### 4.4.1. 연구지역의 지리적 특성

본 절에서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먼저 적절한 사례 연구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지역을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유형별로 대표성을 갖는 지역이다. 앞 절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를 유형화한 바 있다<sup>22)</sup>. 따라서 이러한 각 유형을 반영하여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집중도가 높고 공동체 활동이 있는 지역이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 세 개 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세 지역의 차이점은 북한이탈주민이 200인 이상 거주하고 경기도의 평균 북한이탈주민 증가율을 상회하는 지역이지만, 주거공급 및 사회연결망이 각기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고양시의 경우 공공임

22)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거부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사회연결망 부분에서는 기존 북한이탈주민 비율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여 유형화하였다.

대주택 공급과 사회연결망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안산시의 경우 사회연결망부문은 양호하였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평택시의 경우 안산시와 같이 사회연결망은 안정적인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하였다. 그러나 평택시 북한이탈주민은 고양시의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표 4-11>. 따라서 이들 지역을 비교하면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변수 이외에 사회연결망이 미치는 영향을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4-11> 경기도 및 연구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증가율

지역	북한이탈주민		
	2006년	2012년	증감율
경기도	1933명	6290명	△225.4%
고양시	118명	256명	△116.9%
안산시	129명	525명	△306.9%
평택시	157명	447명	△184.7%

출처: 전연숙 외(2013)

사회 및 공간적 표현의 핵심 요소는 해당 지역의 공간특성, 인구구조, 주거유형, 산업경제 구조, 정부의 정착지원기관 등을 의미한다. 이 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연구지역에 왜 거주지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연구지역의 사회 및 공간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의 지리적 특성, 인구 특성, 공공임대주택, 고용시장, 공식적인 사회연결망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해당 지역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해당지역의 사회 및 공간적 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기초정보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고양시는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계획도시이다. 1990년대 초 서울시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산 신도시를 비롯한 7개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1992년 고양시로 승격되었다. 지리적 특성으로는 남동쪽으로 서울시, 북동쪽으로 양주시, 북서쪽으로 파주시, 남서쪽으로 김포시와 인접하고 있다. 고양시에는 3개의 일반구가 있다.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일산신도시에 있으며, 덕양구에는 구도심인 원당동이 있고, 인구의 30% 이상이

덕양구에 밀집되어 살고 있다. 고양시의 교통망은 경의선, 교외선, 일산선의 철도망이 있고, 자유로, 제2자유로, 통일로의 도로망이 있다. 이러한 교통망으로 서울시와의 유출입이 편리하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로 인하여 부천시, 안산시, 구리시, 의정부시로 이동이 용이하다.

고양시의 인구밀집지역을 살펴보면, 구도심 즉 덕양구 화정동, 행신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며, 1989년 일산 신도시 계획 수립 후 상업, 교통 등이 중심이 된 백석동, 주엽동, 대화지역이고, 일산계획도시 이전 중심 지역인 일산, 탄현, 중산지역이다.

안산시는 반월신공업단지와 함께 건설된 신도시이자 계획도시이다. 서울시 공업기능의 분담을 목적으로 정부는 1978년 서울 내 용도지역 위반공장 중 공해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켜 인구분산과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였는데, 그 결과로 조성된 것이 안산신도시이다(박세훈 외, 2010). 안산시는 서울시의 서남쪽에 입지하여 서울과 직선거리 35km, 수원 14km, 인천 20km 등 접근성이 좋고, 갯벌을 이용하여 순수 농촌지역을 도시화하였기 때문에 개발여건이 좋은 지역이었다.

안산시의 인구밀집지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시 건설의 초기에는 안산시 중앙동이었던 고잔2동, 성포동, 고잔1동, 선부동, 군자동, 원곡1동 등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고잔1동, 고잔2동, 성포동, 부곡동, 율피동, 와동 등에서 인구증가율이 높았다(권용우, 1997). 둘째, 초기 도시계획 상에서 군자, 수암, 반월 등 3개의 생활권 중에서 군자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수암, 반월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2012년 기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원구 초지동이며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본오 2동이다(안산통계연보, 2013). 한편 등록 이주민의 다수인 84.7%가 단원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70.3%가 원곡본동과 초지동에 몰려있다. 초지동은 원래 노동자 계층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가 지금은 노동이주민들의 집단거주지로 바뀐 곳이라 할 수 있다(오경석·정건화, 2006).

평택시는 경기도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경기도의 4.5%인 457.4km<sup>2</sup>이다. 평택시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동쪽은 안성시, 남쪽은 아산시와 천안시, 북쪽은 화성시, 오산시와 접하고 있다. 1995년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을 각각 폐지하고, 도·농 복합도시 형태의 평택시가 되었다.

평택시의 교통망은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경부선철도, 고속철도, 국도 등을 통해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의 주요 도시와 1~3시간대에 접근

할 수 있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이중복 외, 2012). 평택시는 최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평택항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급속한 도시발달로 인하여 가파른 인구증가와 개발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평택시의 인구밀집지역은 첫째, 평택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인 평택시청 및 공설운동장 지역, 둘째,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배후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산동, 신장1, 2동, 서정동, 중앙동, 셋째,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인 팽성읍, 넷째, 평택시의 중심시가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청북택지개발지구로 구분된다(오세현, 2012).

#### 4.4.2. 연구지역의 인구특성

고양시의 인구는 2011년 기준 973,665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7.95%를 차지하고, 안산시의 인구는 2011년 총 759,902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6.21%를 차지하고 있다. 고양시와 안산시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 중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반면, 평택시는 444,183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3.60%로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 안산시와 평택시는 고양시에 비해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각각 0.2%, 0.5%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른 지역 주민의 전입 효과일 수도 있으나 이와 더불어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12> 경기도 및 연구지역의 지역주민·이주민·북한이탈주민 비율

연도	구분	지역주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2007	경기도	11,340,241(100%)	234,030(100%)	2,590(100%)
	고양시	935,643(8.25%)	10,804(4.62%)	151(5.8%)
	안산시	734,713(6.48%)	29,673(12.68%)	208(8.0%)
	평택시	412,757(3.64%)	10,299(4.40%)	231(8.9%)
2011	경기도	12,239,862(100%)	302,447(100%)	5,692(100%)
	고양시	973,665(7.95%)	12,426(4.11%)	230(3.9%)
	안산시	759,902(6.21%)	44,316(14.65%)	485(8.4%)
	평택시	444,183(3.60%)	43,897(14.51%)	423(7.3%)

자료: 경기통계연보(2007, 2011)

특히 <표 4-12>을 보면 2007년 고양시의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각각 4.62%,



5.8%였던 반면, 2011년에는 4.11%, 3.9%로 감소하였다. 이는 고양시의 이주민 비율이 경기도에서 낮은 편임을 보여준다. 안산시는 2007년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각각 12.68%, 8.0%였는데 2011년에는 각각 1.97%, 0.4% 상승하여 이주민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택시의 경우에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이주민 10.11%가 증가한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1.2%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 4.4.3. 연구지역의 주택특성

고양시의 경우 2003~2004년 급격한 가구증가에 비해 주택공급량이 부족하여 주택보급률이 88%로 낮아졌다가 그 이후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2011년 기준 주택 보급률은 94.8%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의 주택보급률 99.6%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다. 2011년의 고양시의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29.0%, 아파트 62.3%, 연립주택 3.8%, 다세대주택 4.4%이다. 이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이 7.5%로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초기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진입하였다. 고양시는 행정구역별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로 나뉘어져 있지만 생활권역별로는 일산신도시와 구도심으로 구분된다. 일산신도시는 대단위 아파트로 개발된 반면, 구도심 지역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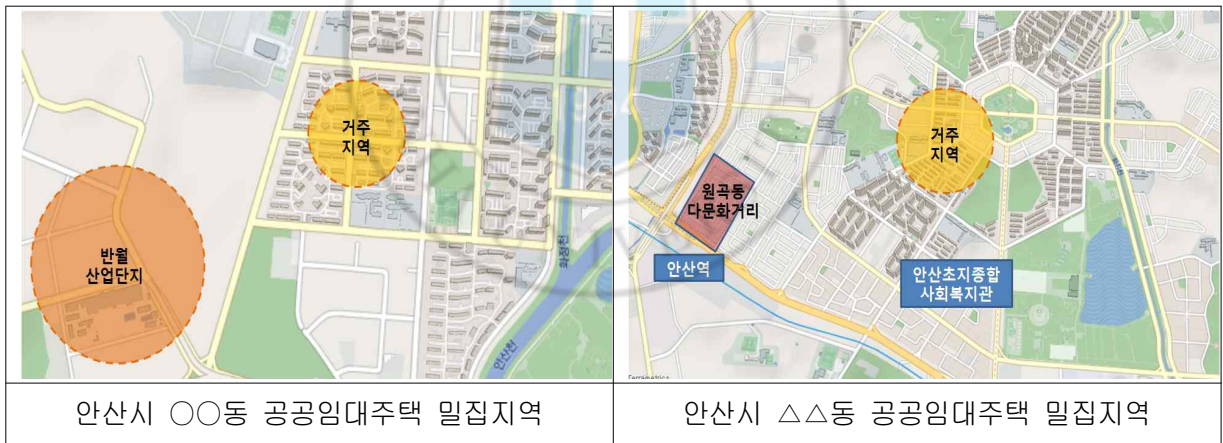


출처: 다음 지도 홈페이지(2014년 11월 15일)

[그림 4-7]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밀집지역



안산시의 인구변동은 대략 세 시기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77년 반월신공업 도시건설계획이 발표되는 시점부터 1986년 안산시 승격을 전후한 시기, 두 번째 시기는 1986년 안산시 승격 전후부터 2000년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까지, 마지막 시기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이다. 각각의 시기별 안산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였다. 안산시의 주택 보급률은 2011년 기준 97.9%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주택 보급 속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안산시 생활권역이 반월, 수암, 군자지구로 구분되는데, 반월지구는 단독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파트의 비율이 낮은 저렴한 노동자 주거지가 되었고, 수암지구는 거주환경·교육여건이 좋으며 아파트 비율이 높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안산시의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41.5%, 아파트 37.9%, 연립주택 6.1%, 다세대주택 14.5%로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아파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안산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안산시 총 주택 호수 중에서 1.86%에 불과하다.



출처: 다음 지도 홈페이지(2014년 11월 15일)

[그림 4-8]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밀집지역

평택시도 북한이탈주민 수가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평택시는 농촌인구가 다른 도시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공가가 많은 편으로 주택 보급률은 2011년 기준 111.5%로 매우 높은 편이며, 주택공급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하다. 평택시의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39.10%, 아파트 52.98%, 연립주택 4.19%, 다세대주택 7.76%이다. 평

택시의 도시 특성은 경기도 다른 시·군에 비하여 단독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아파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원도시형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 총 주택 호수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45%로 경기도 평균 수준이다.



출처: 다음 지도 홈페이지(2014년 11월 15일)

[그림 4-9] 평택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밀집지역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표 4-13>와 같다.

<표 4-13> 경기도 및 연구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주거형태

구분	주택보급률	공공 임대주택	북한이탈주민			
			자가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기타
경기도	99.6%	100%	2.4%	77.8%	11.9%	7.9%
고양시	94.8%	7.50%	3.6%	75.2%	17.7%	9.4%
안산시	97.9%	2.50%	1.7%	66.9%	21.3%	10.1%
평택시	111.5%	2.45%	1.5%	79.1%	17.2%	2.2%

출처: 최성일, 이윤희(2012). 정희정 외(2013) 재구성.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평택시의 경우 79.1%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고, 안산시의 경우는 경기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전·월세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비율은 안산시 21.3%, 고양시 17.7%, 평택시 17.2% 순으로 이들 지역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로는 고양시가 3.6%로 경기도 내 다른 시·군 평균인 2.4%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지역에서 대다수의 북한이탈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전·월세 비율도 높았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낮고 전·월세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안산시는 국가에서 공급해주는 공공임대주택 비율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에게 매력적인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 4.4.4. 연구지역의 산업경제구조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은 대체로 낮은 편이고, 취업한 경우라도 주로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이탈주민재단, 2012). 박성재·김화순(2008)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향이 있는 비율은 46.7%에 불과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가 30명 미만인 제조업체에 취업하였다. 주로 단순노무직이 많았고, 근속기간도 8.3개월에 불과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장 안정성도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전문성 부족과 직업훈련의 미비로 인해 비교적 단순 노동 직종에 취업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한 직종은 조립, 포장, 식당종업원, 주방보조, 미용, 건설기계, 자동차운전, 요리사, 기계조작, 용접, 경리, 간병인, 청소, 물건 상하차, 관광가이드를 포함한다. 강일규·김종우(2006: 35)에 의하면 단순노무직은 사료제조, 주유원, 세차원, 식당종업원, 제조, 조립, 사무직 업무보조, 운송기사, 일용노무, 목수, 미싱보조, 청소부 등이며, 서비스 및 영업직은 판매, 수선, 세탁, 음식물 수거, 배달, 미용 등이고, 기능 및 기술직은 선반, 자동차정비, 세탁, 용접, 자동차운전 등이었다. 전문직은 하나원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상담사, 북한관련 정책 및 인권 연구소 연구원 등이었다(강창구, 2012).

경기도의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4개, 일반산업단지 111개, 농공단지 1개, 도시첨단단지 1개로 총 117개이다. 이 중 고양시는 산업단지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 안산시에는 반월특수지역인 반월지구와 시화지구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1개로 총 3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평택시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15개의 산업

단지가 입지하고 있다.

<표 4-14> 경기도 및 연구지역 산업별 입지계수 및 북한이탈주민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일자리사업체
농업·어업·임업	0.67	0.25	0.11	2.48	0.9%
광업	0.55	0.00	0.44	0.94	0.0%
제조업	1.41*	0.37	1.53*	1.47*	33.6%
전기·가스·수도사업	0.70	0.95	1.06*	1.75*	1.0%
하수·폐기물 처리사업	1.11*	1.10*	0.97	1.15*	0.6%
건설업	0.79	1.21*	0.67	0.99	3.6%
도매·소매업	0.86	1.35*	0.80	0.84	5.7%
운수업	0.87	1.17*	0.85	1.04*	3.6%
숙박·음식점업	0.94	1.21*	0.82	0.94	20.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0.81	1.19*	0.32	0.27	1.3%
금융·보험업	0.65	1.47*	1.04*	0.99	0.8%
부동산업·임대업	1.21*	1.55*	0.64	0.65	0.2%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0.53	0.62	0.59	0.31	2.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0.72	0.94	1.33*	1.29*	5.0%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0.76	0.92	0.62	0.86	1.4%
교육서비스업	1.02*	1.35*	0.74	0.71	3.3%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0.94	1.52*	0.92	0.68	7.1%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1.06*	1.24*	0.79	0.50	1.7%
협회·단체·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1.12*	1.34*	0.81	0.87	2.0%

주: 입지계수가 1 이상인 경우 \*로 표기함.

출처: 최성일, 이윤희(2012). 전연숙 외(2013) 재구성

산업경제구조의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sup>23)</sup>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산업경제 특화 업종은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사업, 부동산업·임대업, 교육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기반산업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가장 높다. 또한 숙박·음식점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 역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높다(최성일·이윤희, 2012).

<표 4-14>에 제시된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의 산업별 입지계수를 보면 고양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이 특화되어 있다. 안산시와 평택시는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이 특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 중 고양시에서는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관련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고, 안산시와 평택시에서는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 관련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종사할 수 있는 취업 기회가 이들 지역에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양시에 특화된 건설업, 숙박·음식점업은 주로 일용직 일자리인 반면, 안산시와 평택시에 특화된 제조업이나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은 정규직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 4.4.5. 연구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고양시에는 2013년 247명(남 77명, 여 17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1990년대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문촌동, 주엽동, 중산동에서 살고 있다. 고양시에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를 담당하는 경기서북부하나센터가 있다. 경기서북부하나센터는 통일부와 경기도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 고양시 우림복지재단이다. 이곳은 하나원 수료 이후 경기서북부 지역으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착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서북부하나센터는 경기도 서북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로써 정착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 및 정착할 수 있도록

---

23)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는 어떤 지역의 산업에 대해 전국의 동일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그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12일간 총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적응교육 이후에는 1년간 전문적인 사후지원을 실시하며 상담, 건강관리 및 위기대응, 취업, 직업훈련, 진학, 정기적인 모임, 법률문제, 의료문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서로간의 이해와 인식개선 및 화합을 이루고자 지역사회 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명절 및 송년행사, 문화체험, 남북한 지역사회통합 활동 등 주민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서북부하나센터에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양시청은 자치행정과에 보호담당관을 배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는 보안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매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선물 증정, 장학금 지급, 명절 선물, 송년의 밤, 범죄예방 교실, 애로사항 청취 등 정착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고양고용센터를 두어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통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20명의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는 고양시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민등록 신고를 도와준다. 이들은 월 2회의 고정적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이웃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단체기관 역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안산시는 경기도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다. 현재 50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안산시 선유동, 초지동, 팔곡동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 안산시에 자리 잡은 경기중부하나센터는 안산시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군포, 수원, 안산, 의왕 4개시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있다. 안산시도 하나원 퇴소 후 2~3주간 지역적응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 정착지원교육, 진로탐색과 직업준비교육, 개인역량 강화교육, 인생설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기존 전입자 정착지원 사업은 사후지원사업과 지역주민 교류 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후 지원 사업은 기존의 7개 사업과 더불어서 진로 및 취업지원, 부모교육, 인문학강좌, 지역사회네트워크 연계, 연합동아리(뭉게구름) 등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교류 사업으로 체육문화지원, 명절행사 체험, 전입 3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에게 김장김치 나눠주기, 송년회, 여름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 자치행정과에도 보호담당관이 배치되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인 지역정착과 지자체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중심축 역할을 하기 위하여 안산시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경찰서·고용센터·경기중부하나센터 등의 실무진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초청 문화체험, 저소득 탈북가정 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법률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며 기관·단체가 상호 공유하여 그들의 효율적인 정착지원을 돕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가 경기중부하나센터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안산시도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20명의 정착도우미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일을 돕고 있다. 안산시를 관할하는 경찰서로는 안산단원경찰서와 안산상록경찰서가 있는데 두 곳 모두 보안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탐방, 장학금 지급, 명절 선물 지급,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안산고용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는 두 곳의 민간 지원기관이 있으며, 이곳은 지역복지와 교육서비스(대안학교, 돌봄 기관)를 제공한다.

평택시는 경기도 남부에 위치하며 산업시설과 농업지대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곳은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남부하나센터는 평택시에 있는 자리 잡은 YMCA가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등 남부 지역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역적응교육과 사후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초기지역적응교육은 거주지 전입 직후 실시하는 3주 집중교육으로 진학, 가족관계, 건강관리, 문화이해, 사회생활, 취업교육 등을 소집단 또는 개인별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초기정착 지원교육, 진로탐색과 직업준비교육, 개인 역량강화 교육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초기적응교육을 마치면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를 통해 강화된 적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에도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가 경기남부하나센터에 배치되어 있다.

평택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조례를 2013년 11월에 제정하였으며 지역협의회는 지자체, 하나센터, 민간단체 등 11명의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다. 평택시청 자치행정과에서는 보호담당관을 배치하여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돕고 있고, 평택경찰서는 보안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합동결혼식, 지역 탐방 및 산업시설 견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에도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센터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정착도우미 40명이 배치되어 북한이탈주민이 전입하면 그들의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지역적 특수

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센터 등을 통해 철저히 정부 중심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실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협의회와 같은 제도는 대부분 형식적인 협의체로 기능하고 있으며, 실제 지역 내 정착 지원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표 4-15> 경기도 및 연구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관

구분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
사회적 안전망 기관	관청	31	1	1	1
	복지관	53	5	4	2
	고용지원센터	8	1	1	1
	자활후견기관	33	1	2	1
	경찰서	35	2	2	1
	대한적십자봉사단	18	1	1	1
	자원봉사센터	32	1	1	1
	교육청	25	1	1	1
	청소년지원센터	32	1	1	1
	보건소	42	2	2	1
	정신보건센터	24	1	1	1
	건강가정지원센터	19	1	1	0
지역 적응 기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9	0	1	1
	민주평화통일자문 협의회	31	1	1	1
	하나센터	6	1	1	1
	민간단체연대	8	1	2	0
	협약된 의료기관	6	1	0	0
총 계	412	21	23	16	

출처: 통일부(2012) 재구성

## 4.5. 소결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이주는 한국사회에서 기존의 결혼 이주민 및 노동이주민과 함께 다문화사회에서 중요한 대상자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그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과 사회연결망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한국에 이주해 온 북한이탈주민은 200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분포를 보였다. 그 중 자료구독 및 자료접근의 용이성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주 목적과 행동이 유사한 이주민 거주지 분포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산업경제부문, 주거부문, 재정부문, 사회복지부문, 교육부문을 통한 지역적 특성요인과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변수와 2006년도 거주 이주민 변수를 사회연결망부문으로 선정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 중 단계선택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2006년에는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의 구도심에 많이 거주한 반면 2012년에는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등 경기도 서남부 권역으로 확산되어 집중 거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 거주지 선택 지역이 수도권과 가까운 곳이면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지역 기반이 갖추어진 구도심형 거주지가 선택의 대상지였다면, 이후 거주지 선택 지역은 주거공급과 경제적 기반이 갖춰진 신도심형 거주지로 확장되었다. 이는 사회연결망의 크기 및 범위가 일정부분 성장하였고, 비교적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모여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친 요인을 비교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요인 중 사회연결망부문인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변수와 주거부문인 공공임대주택 변수는 정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부문인 주거지역 변수는 부적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요인은 사회연결망부문인 2006년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변수가 정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부문인 주거지역 변수와 공공임대주택 변수는 부적적으로 의미 있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 모두 사회

연결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회연결망은 다른 변인이 갖지 못한 내적 상호의존성을 높여 정착을 강화시키고 독특한 그들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있어 정착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정량적 접근으로 사회연결망이 거주지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정성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특성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 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특성과 거주지 선택 경험<sup>24)</sup>

본 장에서 제1절은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인 사회연결망 특성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연결망 형성 과정과 그 특징을 범주화 하여 제2장에서 논의하였던 사회연결망의 유형 분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지역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과 그들의 거주지 선택 경험을 지역 사례별로 도출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연결망의 생성·유지·확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5.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특성

#### 5.1.1. 강한 연대감을 보이는 혈연 중심의 폐쇄적 사회연결망

##### (1) 탈북과정을 통해 더 위축된 신분

최대석·조영주(2008, 93-95)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한 경제적 이주민 성격의 탈북자뿐만 아니라 여전히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반대와 열악한 인권에 대한 반발 등 정치적 난민 성격의 탈북자도 늘어가고 있다.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으로의 탈북 과정이 매우 험겁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법입국자로서 강제송환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 중국당국에 의해 강제북송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불안감이 심하기 때문에 타인을 쉽게 믿지 못하고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탈북과정의 심리적 압박감은 한국 정착 이후에도 지속적

---

24) 본 장은 최정호·박선미(2014)의 학술논문(ISSN: 1226-9492)에서 일부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으로 나타났다.

여기로 오는 길에 죽을지 아니면 잡혀서 북송이 될지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디서 잡혀서 인신매매 될지...

(연구참여자 P5)

연구참여자 P5는 어린나이(17세)에 탈북하여 중국에서 거주하였다. 그녀는 중국에 있는 동안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위에 면담 기록에서 보듯이 그녀는 북송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한국에 이주한 이후에도 쉽게 자신을 드러내고 나설 수 없게 하였고, 따라서 그녀의 사회연결망은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 있을 때 브로커가 한국 가는 길이 있는데 3국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서 돈은 얼마데 갈 의향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거기서 살다가 온 사람들 보면 의심이 많아요. 솔직히 쉽게 한국행을 못 나서는거예요. 갔다가 잡혀서 개죽음 당하지는 않을까...

(연구참여자 P1)

연구참여자 P1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탈북 브로커를 종종 접할 수 있었다. 그녀는 탈북 브로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으로의 이주가 확실히 성공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탈북 브로커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했지만 여전히 그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생존과 결합된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게 되고 안전한 경로를 담당해줄 존재로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한다(진미정 외, 2009).

## (2) 초기 정착의 사회적 안전망

탈북과정에서의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으로 북한이탈주민은 혈연 집단을 제외한 사회연결망을 갖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과 친족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북한의 흔적과 경험을 지우려고 하다 보니 가족 이외의 북한이탈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들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 고향 사람 등 지연이나 학연으로 이루어진 사회연결망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한국사회의 정착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사회연결망만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한다. 이들에게 혈연 집단은 일차적인 사회연결망이며 생존과 복지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지이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기회에 연결될 수 있는 사회연결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착을 위한 사회자본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을 통해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을 시작한다.

안산을 와야 한다. 왜 남편(중국인)이 안산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산에 와야 한다. 그때는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댁 식구들 나보다 먼저 와있었어요. 중국에서 만난 남편이 먼저 와 있었고, 남편 시누이가 있는데 자기네 시집 쪽을 초청받아서 시어머니가 국적을 해줘서 안산에 살고 있어요. 남편 형들도 먼저 와서 이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만 못 왔다가 제일 늦게 왔어요. 안산에 대해서 들은 것은 안산은 공단이 많잖아요. 시화공단, 반월공단. 우리 같이 사람들은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려면 공단이 가까운 곳으로 와야 하잖아요. 이쪽으로 와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1순위 2순위든 모두 안산을 선택했어요.

(연구참여자 A2)

위에 면담 내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 A2는 한국에서 처음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족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쉽게 생성 및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새로운 공간에서의 사회자본의 생성 및 유지는 더 어렵다(Lin, 2002). 연구참여자 A2의 행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 (3) 혈연 집단의 연쇄이주와 거주지 선택

Castles & Miller(2009)의 연구에서 이주민들은 1차적인 사회연결망에 의해서 이주가 시작되고 확장된다는 결과처럼 혈연에 의한 사회연결망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한국에 도착하여 처음 거주지를 선택할 때도 가족이나 친족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통일부(2013)의 북한이탈주민 이주현황을 보면, 2000년대 이후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한국에 가족이나 친족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안정된 이주 경로가 확보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자본이 결합된 이주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한 이주경로, 이주에 필요한 많은 자본 그리고 이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가족과 친족으로 이루어진 사회연결망은 이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심점 역할을 한다. 하나원에서 주거지 선호도를 조사할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주하여 정착한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곳에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정부도 가족들이 순차적으로 이주한 경우에 나중에 온 사람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온 가족이 있는 곳에 거주지를 배정해 주려고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은 첫 번째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족이나 친지 등이 있거나 그들이 조언한 대로 거주지를 선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누나가 조카딸하고 먼저 나왔어요, 2005년도에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누나가 고양시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원에 있을 때 고양시에 누나가 있으니까 고양시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누나 집에서 가까운데 서로 가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가 좋잖아요.

(연구참여자 G4)

연구참여자 G4가 북한에 있었을 때, 먼저 탈북하여 중국에 거주하던 친누나와 소식을 전하며 지냈다. 그는 누나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탈북하였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중국에 불법 입국한 노동자 신세였다. 그의 누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를 선택했고,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이주해 올 수 있었다. 그의 이주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항상 누나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연쇄이주는 거주지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는 뭐 서울이나 시내 쪽에서 사는 게 더 좋죠. 편하고 근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 나이가 있고 솔직히 뭐 누나도 그렇고... 사촌 이제 친척들도 이쪽에서 살다보니까 이제 편한 거 같

아요 어떻게 보면.

(연구참여자 P2)

중국에서의 연쇄이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연쇄이주는 지속되고 있었다. 이 모든 연쇄이주의 근간은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P2의 최초 거주지는 서울시 ○○동이었으나 이후 그의 혈육이 있는 평택으로 이주하였다. 그의 면담내용에 의하면 그는 서울시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지만, 친척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을 따라 재이주를 하였다. 그는 혈육과 같이 사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모셔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고 맞벌이도 해야하고...

(연구참여자 P5)

가족이 살아가기 힘든 경제적 상황에서 자녀를 돌봐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이순형 외, 2009). 혈연 간의 유대와 신뢰가 이미 형성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선택이다. 연구참여자 P5는 한국에서 결혼 후 자녀를 낳았으나 경제활동을 대신하여 아이를 돌봐 줄 것을 그의 이모에게 부탁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이모가 있는 평택시로 이주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여성에게 자녀의 양육은 거주지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 (4) 약한 취업 정보제공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주 후 초기 정착 단계에서 혈연 중심의 폐쇄적 사회연결망에 의존하여 생활하지만 혈연 중심의 연결망에서는 취업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거주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모색을 한다. 거주 기간이 길어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인적자본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필요성을 깨닫고 교육 등을 통해 더 넓은 취업 시장을 향해 가는 경향이 있었다.

처음에 가족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가족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기술이 없으니까

노가다만 다녔어요. 길가다가 인력사무소에 써 붙인 것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무작정 가는 거죠. 그런데 죽어라 일했는데 돈 몇 만원 안 되잖아요. 일 하는 동안 보니까 기술자들은 별 반 일안해도 돈 팍팍 받더라고요. 아 이 기술을 배워야겠구나 해서 학교를 간 거죠. 직업훈련 이니까 폴리텍 대학이라고 돼 있지만 직업훈련 학교 같은 데예요. 그 때 배운 용접기술로 일 자리 찾기가 쉬웠어요... (중략)... 가족이 제 일자리 찾는 걸 도와주진 못했지만 전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남한에는 제 가족만 있으니까요.

(연구참여자 G4)

연구참여자 G4는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에서 혈육이 있는 곳에 최초 정착하였다. 그는 혈육의 도움을 받아 첫 직장인 세차장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직장 및 임금의 불안정으로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되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의 면담내용에서 보듯이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은 취업에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즉 취업활동에 대한 정보부재는 새로운 연결망을 찾게 되는 요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을 약화 시키지는 않았다. 그에게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은 여전히 강한 사회자본이기 때문이다.

### 5.1.2. 약한 연대감을 보이는 북한이탈주민 간 사회연결망

#### (1) 북한이탈주민 단체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자동지회’, ‘탈북인연합회’, ‘북한인권시민연합’, ‘자유북한방송’,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백두한라회’와 같은 단체를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연결망을 확장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주 초기에 이런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지만 나중에는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백경민(2007)은 탈북자 관련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취업하지 못하는 등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탈북자 모임에 들어가면 제가 예술단에 들어갔었다 했잖아요. 그곳에 탈북자들만 있으니까

여기(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솔직히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저는 탈북자 모임이 나 그런데 안 나가요.

(연구참여자 P1)

북한이탈주민은 그들의 비영리를 위한 민간단체를 많이 설립하였다(통일부, 2012). 이 단체는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지원금을 받거나 그들을 후원하는 개인·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보수적인 특성과 내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연구참여자 P1는 한국 이주 초기 탈북무용단에서 활동하였다. 그녀는 대외적으로 북한의 문화를 전파하고 한국인과의 친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단체를 선택했었다. 그러나 보수적인 단체의 특성에 대한 거부감과 북한문화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한 한국의 언어, 문화, 습관 등에 대한 더딘 학습은 그녀를 이 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녀의 면담내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단체는 새로운 정착민에게 매우 불필요한 단체였다.

## (2) 정착 지원기관을 통한 연결망 확대

북한이탈주민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연결망은 ‘탈북자동지회’와 같은 보수단체보다는 주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집단적 정체성을 갖게 된 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된다(진미정 등, 2009).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중에서도 초기 정착과정에서 갖는 가족 이외의 사회연결망은 하나원이나 하나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기간동안 알게 된 사람들 간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모임을 갖는 친구들이 5명 있어요. 하나센터 교육가서 알게 된 친구들인데 가끔 모여서 밥도 먹고 사는 이야기도 해요. 모두 여자죠... (중략)... 각자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여러 정보를 알게 되요. 농사짓는 친구도 있고, 공장에서 생산직에 있는 친구도 있고, 자영업하는 친구도 있고...

(연구참여자 G1)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끼리 접촉하는 것을 스스로 차단한다. 그러나 초기 정착기관에서의 만남, 지속적인 모임이 유지되면서 혈연과 같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임은 개인적인 모임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집단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연구참여자 G1은 첫 거주지 선택을 하고 하나센터에 방문하였다. 그녀는 일정시간 정착 교육을 받으면서 같이 교육받던 북한이탈주민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그녀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이 모임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임은 확장되지 못한 채 여전히 개인적인 만남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하나센터에서 무슨 대회가 있거나 지역박람회 한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송년회 한다든가 이럴 때 연락이 오면 가게 돼요. 가볍게 그래서 서로 얼굴 알고 지내면서 아니 내가 조금 필요한 사람이면 연락처도 가지고 있어요. 여자를 알게 되면 그 가족도 알게 되고 그 남편도 알게 되고 그렇죠.

(연구참여자 G3)

북한이탈주민 지역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센터와 정착도우미 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관련단체가 지역별로 산재하여 있다. 이 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하여 그들을 해당 지역으로 이송하고 거주지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연스럽게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하게 된다. 오랜 시간 친분이 쌓아가면서 그들은 개인적인 모임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G3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그녀의 사회연결망을 확장시켜 나갔다.

### (3) 상호 호혜성 없는 그들만의 모임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간의 모임도 있지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인 이주민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민족의 자조적 모임을 통해 사회연결망을 형성하고 상호 부조하는 지역적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으나(김두섭, 1998),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같이 한 집에서 모인 적 있었는데요. 뭐 모임이라기보다는 언니, 친구 통해서 커피마시고 놀기도 하고 우리는 (아파트) 한동에 살거든요. 옆집 통해서 알게 됐고요. 한 명은 같은 동은 아니고 건너 동인데 모임을 통해서 아는 분이라...

(연구참여자 G1)

연구참여자 G1은 지역모임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집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인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모임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지역적 공동체로 성장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 내 활동은 달갑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들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죠.

(연구참여자 P4)

연구참여자 P4는 2000년 초반에 한국에 이주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단체라는 것은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여실히 보여 진다고 한다. 따라서 상호 간의 이해관계의 목적을 상실하면 언제든지 단체를 이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모임은 구성원들이 원하는 목적을 설정해야 하고, 만약 모임에서 이탈시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거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면담자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민족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발적인 공동체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신분 노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

북한이탈주민 간 사회연결망은 신뢰나 협동과 같은 상호 호혜적 특성이 뒷받침될 만큼 연대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크고 북한이탈주민의 신분노출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최성일·이윤희, 2012). 북한이탈주민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 이주에 따른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

하여 공식적·비공식적인 사회연결망을 형성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이금순, 2005).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자모임, 탈북방송 및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북한이탈주민과 자주 만나는 경우에도 불신과 불안감 때문에 자신들의 사회연결망을 확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금 피하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 반가운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 텔레비전 뉴스 이런 것 보면 그 북한에서 왔다가 다시 넘어가거나 자기... 본의가 아니겠지만, 브로커들에게 중국으로 납치돼 넘어가서 북한에서 다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도 같은 고향 사람들이지만 만나는 것을 자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P5)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노출된 정보가 정치적, 오락적으로 부각되어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내부적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이탈주민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 이주에 따른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 연구참여자 P5는 이러한 불신과 두려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북한에 아직 자신의 가족이 남아 있고, 한국에 가정을 꾸리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가족에게 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페이스북 보면 북한 사람들이랑 연동되고 친구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뜨잖아요. 그런 것이 두려워서 저는 북한 사람들이랑은 페이스북 안해요.

(연구참여자 P2)

연구참여자 P2는 20대 후반으로 다양한 요즘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타인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려하여 대부분의 SNS는 비공개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 공동체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에 부담감은 없지만 면담내용처럼 대중적으로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불편한 시선

윤인진(2012)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문화를 지키기 보다는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고자 하기 때문에 같은 북한이탈주민끼리 모이는 것을 피하고 스스로 북한이탈주민임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면담 과정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가명을 사용하는 등 본인들이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리고 특히 북한이탈주민과의 잦은 만남이 이 사회에 정착하는데 이득이 없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보였다.

처음에 왔을 때 택시기사 분들이, 뭣 모르고 택시 탔다고 했잖아요. 아저씨 어디 가주시겠습니까? 하면 한국사람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 중국 사람이예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업신여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 내가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 내가 죄짓고 온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증 다 받고 대한민국 사람인데 내가 왜 이것을 숨기지... 북한에서 왔는데 우리랑 문화차이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연구참여자 P1)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을 사회적 소수자로 표현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이주민 역시 사회적 소수자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 언어, 종교 등과 같은 이주민 속성은 숨길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공동체와 연대를 생성·유지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그들 스스로 노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북한이탈주민인 것을 알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하기 보다는 침묵하려는 태도가 강하다. 연구참여자 P1은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불만 및 분노하였지만, 해결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스스로 세상에 벽을 쌓는 것이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옆집에서 다 알았어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모임에 나가서 저희 집주소를 알려줘서 탈북자 동지회 등에서 우편물 막 날아오고... 학교 동문회 이런 데서도 날아오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솔직히 그런 것 너무 싫었어요. 어머니는 이런저런 활동이 좀 많아요. 단체 같은 데 많이 다니고 뭐 그래가지고 솔직히 좀 싫어서 작년 6월 달에 이사 올 때도 엄마랑 나랑 절대로 평택 이사 가서는 그 누구한테도 우리 주소 알려주지 말자고 약속했

어요. 그래서 우편함에 탈북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날아오지 않게 하자고. 서울에서는 너무 다 아는 어느 호수에 딱 가면 누구 사는 정도 까지 다 알게 되었는데 평택에 오면서 그런 건 없어진거죠.

(연구참여자 P2)

한국에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의 78%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들은 다세대주거 공간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단독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신분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연구참여자 P2는 서울시에 거주할 때 본인의 거주지가 외부의 한국인들로부터 ‘탈북자촌’이라는 인식을 받을 정도로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에 있었다. 그는 이곳에 거주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주한 공간에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외부에서의 불편한 시선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 (6) 유사한 생애사 경험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친밀도와 공감대에 기반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 특히 여성들은 폐쇄적이지만 강한 사회연결망을 지속적으로 맺고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연결망은 한국에서 정착하고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면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과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신뢰를 구축하였고 이는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회연결망을 넘어 외부로의 연결망을 확장하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로 기능하였다.

같은 마을에서 안 살았는데 그냥 중국에서 브로커 사람 모집하는 거기서 만나서 지금까지 주욱 같이 왔죠... 난 이곳에서도 생활하면서도 제일 마음 준 친구는 개예요. 맘 딱 주고 그런 적 없는데 그 친구에게는 주고 있죠.

(연구참여자 A3)

연구참여자 A3은 중국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북한이탈주민 친구가 있었다. 그녀가 안산

시를 택한 이유도 그녀의 친구가 안산시를 거주지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한국에 단 한명의 혈연관계도 없었다. 한국에서 의지하며 지낼 존재는 함께 한국으로 이주한 그녀의 친구뿐이었다.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의 생애사는 대부분 유사하였다. 이들은 북한에서 자녀를 두고 온 경우가 많고, 중국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살았거나 자녀를 낳아 키웠던 경우도 많다. 이러한 유사한 경험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받는 매개가 된다.

중국에서 같이 고생했고 하나원에서 같이 교육받았어요. 그 친구보고 제가 이쪽으로 와라 해서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대구 쪽은 포기하고 여기를 오고 싶어 하는데 이쪽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가 없잖아요. 부동산 정보를 물어보면 알아봐주고...

(연구참여자 G1)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이주하면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에서 한국사회 적응에 관련된 정착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같은 시기에 한국에 이주한 사람들이며 하나원에 입소하여 집단 거주 생활을 한다. 이 기간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하루 종일 교육을 받고 같이 생활하면서 돈독한 사회연결망을 축적한다. 본 연구자가 만난 연구참여자 G1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그녀와 그녀의 하나원 동기는 거주지 이주라는 굉장히 큰 모험을 단행할 정도로 오랜 신뢰를 구축한 관계였다.

### 5.1.3. 단절되기 쉬운 정부 주도의 사회연결망

#### (1) 필요하지만 느슨한 관계

북한이탈주민이 이주한 후 한국인과 처음 맺는 사회연결망은 하나센터 등 공식적인 정착지원 기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다. 한국에 처음 온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연결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 공식적인 기관에 의존한다. 그렇지만 이들 간의 관계는 매우 느슨하고 단절되기 쉬우며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민들이 정착국에서 공식적 연결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결망을 형성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정착국에서 제시한 공식적 연

결망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Massey *et al.*, 1993).

처음에 왔을 때는 서울에서 온 담당 형사 분이셨는데, 평택으로 거주지를 옮기니깐 평택 분으로 바뀐거예요. 평택에서 온 형사로 바뀌더라고요...(중략)... 1년 전인가 무슨 일 있어서 연락했었는데, (웃으면서) ○○씨가 하도 너무 잘사니깐 연락을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전화하면 그 형사 분이 아니라 다른 형사 분이 전화를 받으시는거예요.

(연구참여자 P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상당부분 정부 주도하에 여러 혜택을 받는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연스럽게 정부 주도의 공식적 사회연결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P1의 진술처럼 정부주도의 공식적인 사회연결망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공식적인 사회연결망은 상호관계의 목적이 달랐다. 정부는 이들을 관리와 지원의 대상으로 연결망을 유지했다면, 북한이탈주민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원했다. 이처럼 상반된 목적은 이들의 공식적인 연결망을 느슨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 (2) 만족스럽지 못한 정착지원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약직이거나 순환보직이어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맺은 사회연결망은 쉽게 단절되곤 한다. 실제로 입국 후 5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일반 사회복지 서비스망으로 이관된다. 이와 같이 정부 주도의 정착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심리적인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안정적인 정착을 돕지 못한다.

센터 다니실 때 같이 직원 분들과 초기에는 서로 주고 받으면서 도움을 주었고 생활상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곤 했죠. 쌀도 어떨 때는 주기도 하고 그릇 같은 것들도 선물로 주기도 하고 처음에 와서는 그분들이 이 저희들한테 많은 힘을 주었어요. 저희는 대한민국 전혀 모르고 스프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저



회를 정착 시킨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소홀해 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온 지 5년이 지나서 새로운 사람들도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G2)

연구참여자 G2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사회복지차원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정착 후 5년이 지나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착지원 시스템의 혜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어느 순간 그를 도와주던 담당자는 도움의 손길을 더 이상 주지 않았다. 위의 면담내용처럼 그는 계속해서 이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자신이 혜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속내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하나센터나 적십자지원센터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 도와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나원을 나와서 집을 배정받으면 하나센터 직원이 우리를 데려다줘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오라고 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거나 연락하면 제 때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뭐 그쪽도 바쁘니깐 그럴겠지만 도움청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하니 연락을 하지 않게 되죠.

(연구참여자 G3)

경기도는 6개의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시·군에 각각의 하나센터가 위치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시·군을 거점으로 하여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지역인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에는 모두 하나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즉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식적인 연결망은 많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망은 호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G3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그녀는 공식적인 연결망을 통해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형식적인 사무관계는 지원을 받는 수용자에게 오히려 반감을 갖게 하고 상호 간의 연대감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 5.1.4. 스스로 만들어 가는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

## (1) 생존과 생활을 위한 협력 수단

백경민(2007)은 탈북단체가 아닌 한국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낼수록,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노동시장 진입이 더 용이하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람과의 사회연결망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 사람과의 사회적 연결이 일자리 연계, 친목도모, 교육정보 제공 등을 위한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소소한 부분까지 의지하고 협조하는 관계로 발전한다.

한국 분이 취업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저도 일반 사무실의 업무를 도와줘요. 일반사무실 업무에 대해서 도와주니까 그런 걸 저한테 도움을 청할 때가 있어요. 세법에 관련해서는 제가 일을 해주니까.

(연구참여자 G1)

연구참여자 G1은 취업활동을 위하여 오랫동안 취업스펙을 쌓았다. 그녀는 한국 이주 후 자격증 학원을 다녔고, 자격증 취득 후에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어려움은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취업고용센터의 담당자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취업하게 되었다. 취업한 이후 동종업종에서 형성된 사회연결망을 통하여 이직을 하는 경험도 있었다. 이처럼 한국인과의 연결망을 약하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만들어 가다보면 강한 연대감으로 전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요. 직장도 그렇고... 아이 학교문제로 아들 친구 학부모 들하고 모임도 갖죠.

(연구참여자 A2)

연구참여자 A2은 다양한 사회연결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중학생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자녀의 학교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녀의 학교문제로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다른 학부모들과 개인적인 모임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임에서 한참 사춘기인 자녀의 성장문제, 학교에서의 학업성취 여부, 사교육 방법 등의 정

보를 제공받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녀를 통한 교육정보를 통해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이를 해결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의 생존 방법도 엿 볼 수 있었다.

## (2) 사회적으로 확장된 공동체

면담 결과 공동체 생활(직장, 조직)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한국 사람과의 사회연결망을 형성하고 확장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을 통해 더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신뢰가 깊어지며 사회연결망의 밀도도 견고해졌다.

모임에서 만나는 건 여러 가지 분야예요. 대부분 한국 사람이죠. 일하면서 만난 사람도 있고 학교 다니면서 만난 사람도 있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깝더라고요. 한 달 만나서 대화하는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고, 지역이랑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가깝게 지내는데.

(연구참여자 G4)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사회연결망의 규모는 커지고 범위는 넓어진다.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 역시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 연구참여자 G4는 한국에서 기술학교를 졸업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하였다. 그는 학교, 직장을 통해서 사회연결망을 확장시켰고, 그 구성원들과 신뢰를 구축하였다. 그는 한국에서 8년간 거주하면서 한국인과 오랜 신뢰구축 과정을 거쳤고 사회적으로 한층 발전되고 확장된 사회연결망을 가질 수도 있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공동체의 생성 및 확장은 보다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인 사회연결망의 유형과 그 특성을 분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의 유형은 <표 5-1>과 같다.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 북한이탈주민 간의 사회연결망, 정부 주도의 사회연결망,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으로 나누어진다.

<표 5-1> 북한이탈주민 사회연결망의 유형별 주요 특성

유형	주요 특성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노출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혈연 중심의 상호작용</li> <li>• 거주지를 선택 시 혈연 중심으로 선택 또는 이들의 조언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li> <li>• 혈연 중심의 정보습득에 의해 찾음: 취업, 진로 및 진학에 영향</li> </ul>
북한이탈주민 간 사회연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나 협동과 같은 호혜적 특성이 뒷받침될 만큼 연대감을 나타내지는 못함</li> <li>• 적응에 대한 동화적 태도와 신분 노출에 불안감 자조적 모임 참여 기피</li> <li>• 특정한 힘든 경험을 공유한 경우 친밀도와 공감대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li> </ul>
정부주도의 사회연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정착 과정에서 도움을 받음</li> <li>• 제도 및 업무변화로 인한 지역사회단체의 구성원과 연결망 쉽게 단절</li> </ul>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연계, 친목도모, 교육정보 제공 등을 위한 이해관계에서 출발</li> <li>• 확장된 한국인과의 연결망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신뢰의 깊이가 깊어짐</li> </ul>

출처: 심층면담 자료(재구성)

## 5.2. 지역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특성과 거주지 선택

### 5.2.1. 혈연 중심 사회연결망에 따른 이주: 고양시 사례

#### (1) 사회안전망이 완비된 공간: 서울시, 주거, 교육 그리고 정착지원 기관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수료 이후 최초 거주지로 서울시를 가장 많이 희망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한계 때문에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 서울시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고양시의 공공임대주택이 2011년 7.5%로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차선책으로 고양시를 많이 선택하였다. 고양시는 주택공급요인, 서울시와의 지리적 근접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기관의 소재, 자녀들의 교육여건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유인하는 요인들이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다(류연택, 1997).

애가 있으니까 학교 문제가 되게 고민이 되요. 교육에 관해서 그게 일단은 서울이나 경기 쪽에 가야 좀 더 교육이 좋다고 말을 해가지고요.

(연구참여자 G1)

학습자녀를 둔 부모의 거주지 선택은 그들의 자녀를 위한 학습 환경이 구비되었는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특히 이주민은 주류사회에 그들의 자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학습기회와 정착국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다(Grant & Sleeter, 2011). 연구참여자 G1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며, 여느 부모들처럼 자녀교육에 열성이다. 그녀는 자식교육을 위해서 학습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서울시 또는 서울시와 근접한 경기도 도시 지역에 최초 거주지를 선호하였고 이에 따라 고양시를 최초 거주지로 선택하였다.

일산이란 곳이 다른 곳 보다 좋잖아요. 여기를 뜨고 싶지 않아요. 집도 괜찮고 집주변도 모두 괜찮아요. 특히 지하철도 있고 대중교통도 다 있잖아요. 모든 게 편리해요.

(연구참여자 G3)

하나원에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거주지 신청 지역으로 서울시를 지원한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그들은 북한에서 거주 당시 평양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고양시 연구참여자들 역시 평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평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은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최초 거주지로 한국의 수도인 서울시를 택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제한으로 그들은 서울과 가까운 공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주거환경, 교통 등이 편리한 고양시를 선택하였다. 연구참여자 G3의 면담내용처럼 그녀는 고양시에 대하여 주거환경, 자녀교육환경 등에 만족하고 있었다.

## (2) 자금·자활이 가능한 공간: 우리끼리만 살 수 있을까

고양시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주)우드림션블라인드와 일산서구 덕이동의 핸드백과 지갑을 제조하는 (주)고운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직원으로 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자신

들이 주체가 되어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자립·자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처럼 고양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매력적인 입지 조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지만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에 북한사람만 들어와서 일하는 곳이에요 ○○○이라는 회사인데 이곳에는 15명쯤 되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있어요. 다들 일산에서 살고 있죠...(중략)... 가끔 회식도 하고 친하게 연락하면서 지내기도 하죠.

(연구참여자 G5)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한국사회의 소수자인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양시의 사회적 기업은 이 단계를 넘어서 그들이 주주가 되어 자립·자활 할 수 있는 기업구조로 성장시켜 나갔다. 연구참여자 G5는 이 기업에서 3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함께 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녀의 진술에 의하면 이곳에 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친인척 관계로 맺어졌다는 점에서 사업적 기업은 가족경제의 재구성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러한 자기중심적 문화정체성을 지닌 공간은 그들의 경제적 자립에는 도움을 줄지언정 한국사회에서 사회연결망을 확장시키는데 제한이 된다.

### (3) 여성 중심의 산업경제 공간: 언니, 여동생만 오세요

고양시의 대부분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에 묶여 있어 대규모 제조업 단지가 발달하지 못해 정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대신 소자본의 제조업과 일산의 신도시 지역 등에 숙박 및 음식점 등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다. 이러한 산업경제구조로 인하여 고양시의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의 미숙련 여성 노동력을 요구한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들의 취업은 수월한 편이지만 직업의 안정성이나 전문성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반면 좀 더 안정적인 취업을 원하는 남성의 경우 고양시가 아닌 주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중략)... 처음 왔을 때는 여기 와서 세차장에서도 일해보



고 책제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어디 있어야지요.

(연구참여자 G3)

연구참여자 G3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오랫동안 한 직종에서 종사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경제활동은 대부분은 일용직이거나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고양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었다. 고양시는 북한이탈남성보다는 북한이탈여성의 취업률이 높았다. 이처럼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고양시로 새롭게 이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대다수가 그들의 여성 친인척 일 수밖에 없었다.

저는 파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조형물이나 용접부분 쪽으로 사업하죠... (중략)... 사업하기 전에 파주 ○○동에서 일했거든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도 파주에서 일해요... (중략)... 파주가 임대료도 싸고 이런 일이 그쪽으로 몰려있어요.

(연구참여자 G4)

반면,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산업단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G4의 경우 그의 부인이 고양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로 이주하지 않고 고양시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 이처럼 기존 고양시에 거주하던 북한이탈남성은 고양시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남성 취업자를 요구하는 주변지역으로 취업활동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새롭게 한국으로 이주해 온 북한이탈남성은 고양시를 거주 기피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 (4) 그들만의 공간: 몰락하는 집성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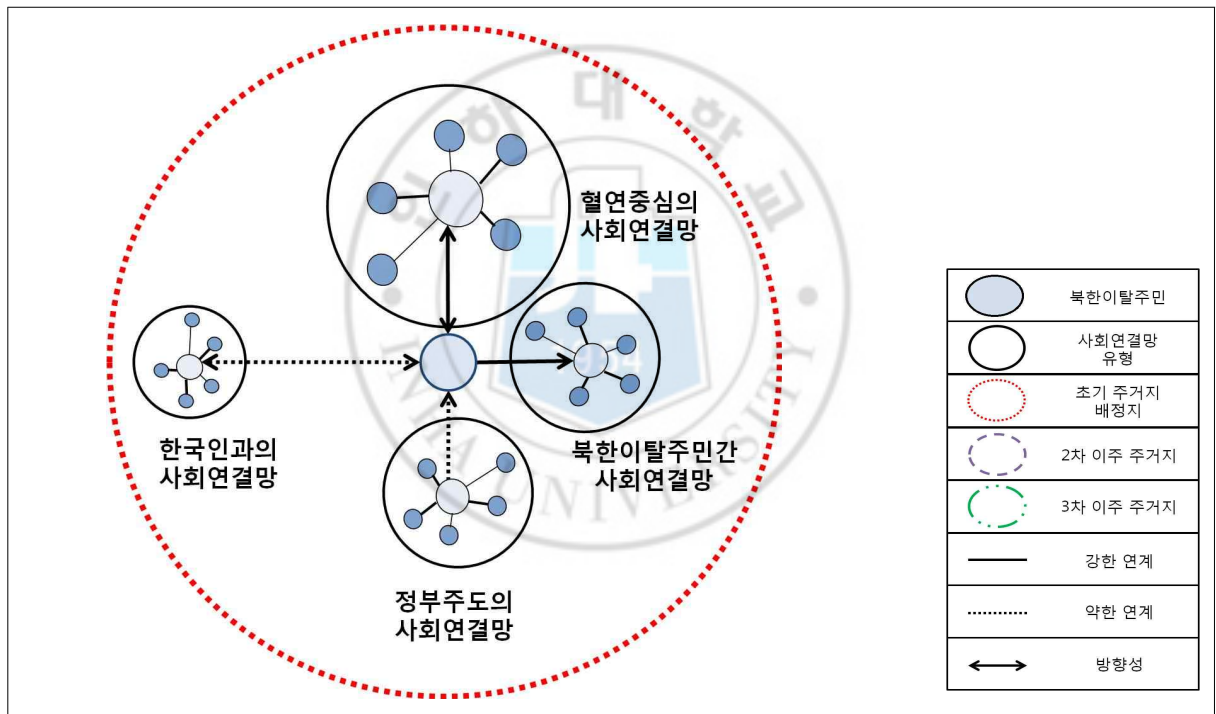
결혼한 북한이탈여성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취업기회를 원하더라도 단기간에 숙련 기술 습득에 대한 어려움, 더 좋은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 가족부양을 위한 생계,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 등으로 고양시를 떠나기가 쉽지 않다.

처음엔 제가 ○○동에서 살았어요. 작년 11월에 △△동으로 이사 왔거든요... (중략)... 사람

들이 서울에서 가까운 고양시로 오고 싶어 하지만, 이곳에 대해서 말하다보면 점점 고양시에 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구요.

(연구참여자 G1)

연구참여자 G1은 고양시에서 고양시로 재이주한 드문 참여자이다. 과거 그녀의 친인척 대다수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취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고양시의 사회자본과 물적자본을 가지고 있는 몇 명만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고양시에 친인척들을 불러 모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들에게 고양시는 생존을 위해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하였다.



출처: 심층면담(재구성)

[그림 5-1]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에 의한 거주지 선택

## 5.2.2. 중국인 사회연결망에 따른 이주: 안산시 사례

### (1) 다문화 공간: 결혼이주남성과의 결합

안산시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있어서 주요 변수인 공공임대주택이 많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배정을 받기 어려운 곳이다. 그렇지만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특히 중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다. 안산시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다문화 밀집거주 지역으로 안산 다문화 공간에 거주하는 60% 이상이 중국인 또는 중국 문화를 공유하는 조선족이다. 안산시는 주로 중국인 남성 배우자가 노동이주민으로 먼저 이주·정착한 후에 여성 배우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데려오는 이주 패턴을 보였다. 한국에 이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70%가 여성인데, 이들 여성들 중에는 상당수가 탈북과정에서 중국인(조선족, 한족) 남성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

전 남편(한족)이 먼저 와 있었고. 전 남편 시누이 둘, 남편 형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나만 못 왔다가 제일 늦게 왔어요. 오기 전에 안산에 대해서 얘길 들었죠. 남편이 안산으로 취업하기로 했거든요. 안산 회사로... (중략)... 안산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곳에 대한 얘기는 중국에 있을 때도 들곤 했어요.

(연구참여자 A1)

연구참여자 A1은 결혼이주남성과 결혼한 유형을 나타냈다. 그녀는 중국에서 결혼한 다문화가정의 형태였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국적의 여성(연구참여자 A1)이 중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한 형태인 것이다. 그러나 이주의 형태는 그녀의 배우자가 가족을 불러들이는 연쇄이주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었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은 그녀의 배우자인 남편에게 신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장기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남편(조선족)이 있으니깐 편하더라구요. 남편이 저보다 1년 먼저 나왔는데 이것저것 할 게 많이 있잖아요. 핸드폰도 만들어야 하고 먹을 것도 사야하고 근데 저는 그런 어려움 없었어요. 이것저것 남편이 일일이 챙겨줘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죠.

(연구참여자 A2)

이주민에게 사회연결망은 거주지 선택에 중요하다. 연구참여자 A2는 한국에 먼저 이주해 온 그녀의 남편을 통해 한국생활을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면담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남편이 해주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을 지닌 연구참여자보다 중국인 사회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혈연으로 확장된 공간: 단단한 상호부조 활용하기

안산시에서 결혼을 통해 중국인과 맺어진 사회연결망은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보다 그 규모와 범위가 더 크고 넓은 편이다. 이렇게 확대된 이 사회연결망은 안산시의 거주지 및 일자리에 대한 정보나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혼을 통해 가족 관계로 맺어진 중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은 폐쇄적이지만 강한 연대를 나타내었다.

남편(한족) 사촌 여동생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안산에 자리 잡았어요. 남편은 산업체로 들어와서 안산에 취업하고 시누이 남편의 도움으로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A6, 여)

연구참여자 A6은 한국, 중국, 북한의 다국적인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시누이(한족)가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녀의 남편이 한국에 초청 받을 수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었고, 연구참여자 A6을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브로커를 주선하여 그녀를 한국으로 이주시켰다. 이처럼 안산시는 다양한 혈연관계가 존재가능하고 이러한 가능성은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을 유인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 (3) 판시의 공간: 중국인 인맥 쌓기

북한이탈여성은 중국인 남편과 시댁식구로부터 거주지와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 음식이나 문화 및 여가 생활 등을 공유하며 자신의 친구와 친족들에게까지 중국

의 연결망을 소개하고 확장시켜 나갔다. 즉 초기의 혈연 중심의 폐쇄적인 사회연결망으로 출발하여 좀 더 개방적인 사회연결망으로 확장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제3의 북한이탈 주민을 이 지역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남편은 한족인데 남편 친구들이 안산에 많아요. 그래서 남편친구들 내외와 모임을 많이 가져요. 한 달에 한번...주로 안산역 근처 중국 음식점을 찾거나 집에서 모임을 갖지요. 남편 친구들 부인들은 모두 중국 사람인데 저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지만 가끔 필요할 땐 따로 연락하며 지내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A6)

함께 탈북해서 하나원을 함께 마친 북한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 때문에 안산으로 이사 왔어요.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취업을 다시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친구(한족) 부인들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청한 적이 있어요. 주로 공장에서 일하다보니 사람 구하기가 훨씬 쉽고 저보다 그곳이 더 많은 일자리를 알고 있더라구요... (중략)... 소개 받아서 그곳에서 일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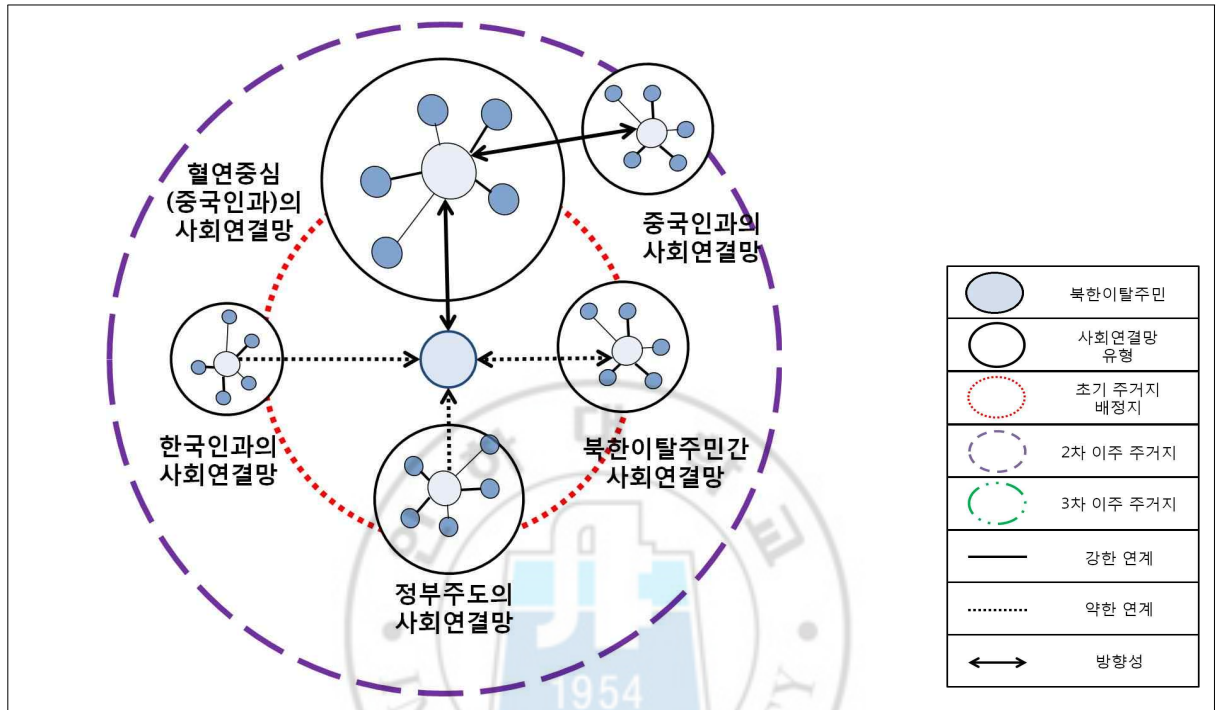
(연구참여자 A6)

판시는 사람 사이의 관계, 인맥의 의미로 많이 쓰여 지고 있다. 한국의 인맥 또는 관계와 의미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인맥은 단순히 아는 사이의 수준이라면 판시는 주고받음이 가능한 관계이다. 중국인에게 판시는 개인능력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다. 연구참여자 A6은 이러한 판시 문화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남편의 지인을 통해서 중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을 확장시켰고, 신뢰와 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이러한 사회연결망을 통해 그녀의 지인을 더 수월하게 취업시킬 수 있게 되었다.

#### (4) 중국인 사회자본 공간: 거주지 벽 쌓기

안산시는 처음부터 이곳으로 이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유출과 유입이 활발하지 않다. 중국인과 결혼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산시의 폐쇄적인 강한 연대가 최소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이미 축적된 사회자본을 포기하면서까지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중국인과의 사회연결망으로 연결되지 않은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안산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출처: 심충면담(재구성)

[그림 5-2] 중국인 사회연결망으로 진입하기 위한 거주지 선택

### 5.2.3.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에 따른 이주: 평택시 사례

#### (1) 골드러시(gold rush)의 공간: 일자리 찾기

평택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원에서 거주지 선택 시 북한이탈주민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서 머무르는 기간,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기간, 초기 거주지 선택 기간 동안 평택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또한 평택시는 2000년대 초반 서해안 개발로 인하여 개발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을 유인할만한 매력적인 도시가 아니었다. 그러



나 평택시가 경기도 서남부 벨트의 제조업 중심의 공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저임금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급증하는 인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자 새롭게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도 점차 증가하였다. 평택시의 경우 고양시, 안산시와 달리 다른 지역에 살다가 자발적으로 재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이 많았다.

서울에서 이사왔는데요, 내가 (서울에 있는)이 회사 그만두고 이 근처(평택)에서 회사를 알아 봐야겠다. 회사에서 또 사람들 만나면서 친구도 만나고 동생들도 만나고 하다보면 소개로 소개로 또 다니고 하면 아마 인근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연구참여자 P1)

1849년 상업적 가치가 있는 금을 쫓아 이주하던 노동이주민들처럼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이주한다. 연구참여자 P1은 평택시로 이주하기까지 서울시에서 평택시로의 이주경로를 보였다. 그녀는 오로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움직였고 일자리를 완전히 얻은 이후에는 그의 가족들도 함께 이주시켰다. 평택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실현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다.

## (2) 코리아 드림(korea dream)의 공간: 어엿한 한국인 되기

평택시는 고양시나 안산시와 달리 한국인 사회연결망에서 습득한 정보에 따라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이 많았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초기 정착 시기에 서울시와 대도시에서 숙박 및 음식점이나 건축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나 기술이 숙련되면서 직장동료부터 평택시에 밀집한 제조업체의 정규직 일자리를 정보를 듣거나 혹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평택시로 옮겨가면서 함께 이주하였다.

일 자리를 스스로 알아보기도 하고 다른 회사 사람을 통해서 일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그 분 (처음 취업을 알선해 주던 한국인)과 원래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 분이 사무실 쪽에서 일을 하시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해요.

(연구참여자 P2)

같이 일하는 사람들 끼리 이제 뭐 그만 두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회사로 또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평택에서 일을 하다가 포천으로 이사를 간 거잖아요. 거기서 평택에서 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 따라 간 거라서. 다 거기 평택 쪽에서 다 알던 사람이니깐 어딜 가든 다 통해요. 이 회사 저 회사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만 두기 전부터 이제 어느 평택 쪽 어느 회사가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 거기 괜찮다더라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저는 오게 됐죠. 인맥으로 해가지고…

(연구참여자 P2)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는 ‘경제난 극복’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탈북을 강행하였고 이후 이주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왔다. 연구참여자 P2는 어린나이에 북한에서 홀로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일찍 탈북하여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삶을 의지했던 하나뿐인 누나 역시 그를 두고 탈북하여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는 10대 후반이 지나서야 그의 어머니와 누나를 한국의 서울시에 다시 만날 수가 있었다. 그에게 한국은 가족의 재결합과 굶주림에서 벗어난 공간이 되었다. 그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물질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 인정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다양한 한국인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그들의 정보와 도움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평택시로 이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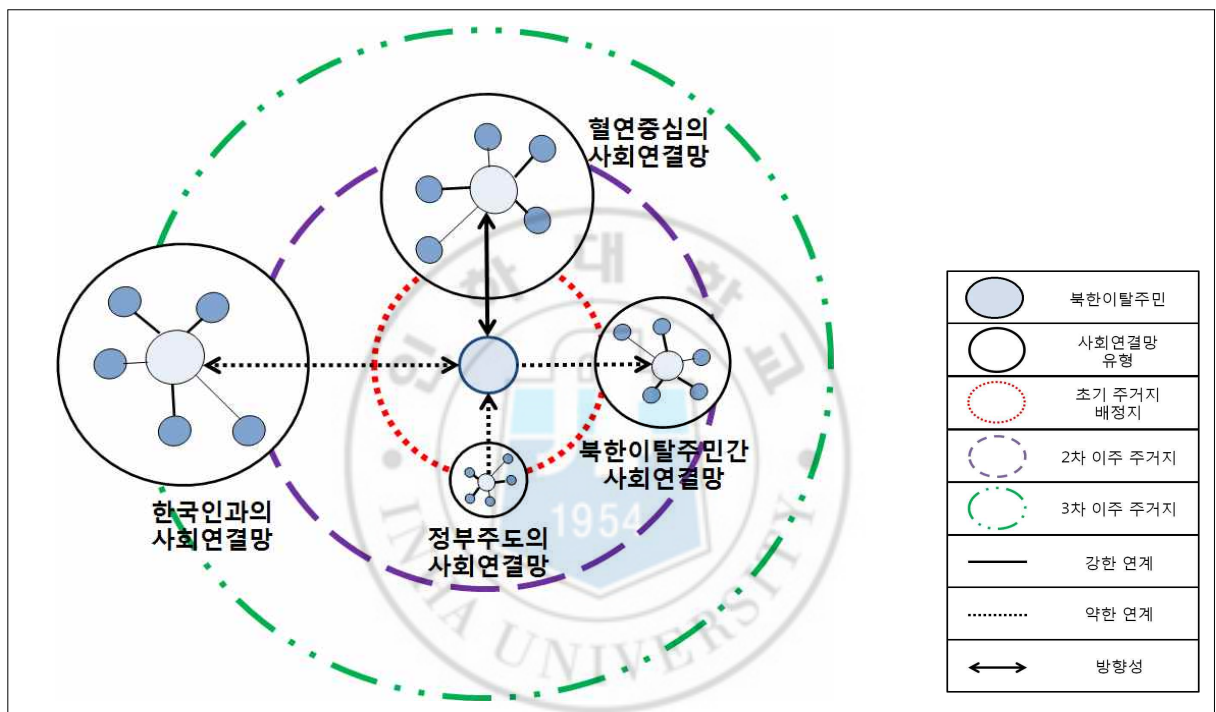
### (3) 스스로 살아남는 공간: 한국인 틈 속으로

평택시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평택시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초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하나센터의 지원 대상에 벗어난 자들이다. 이들은 고양시나 안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정부 주도의 사회연결망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여기에 하나센터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어요. 센터가 생겼어도 온지 얼마 안 된 사람 도와주겠죠. 저는 뭐 10년 정도 되고 하니까… 저한테 까지 관심을 가져주겠어요.

(연구참여자 P1)

오랜 시간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들은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인 간의 사회연결망만 남게 되었다. 정부 주도의 사회연결망이 약한 평택시는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이 공간 내에서 자립해야 할 의지를 갖게 해주었고,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소외계층 및 소수자로 낙인찍혀 한국인 틈에 통합되지 못하고 곁도는 상황을 악화시켰다. 연구참여자 P1의 면담내용을 보면 그녀는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 이처럼 그녀는 한국에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적응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



출처: 심층면담(재구성)

[그림 5-3]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이 제공한 정보에 따른 거주지 선택

세 지역 모두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이 거주지 선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혈연 중심 사회연결망은 이주 및 정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물질 자본까지 제공해 주면서 강한 유대를 나타내는데 구성원 간에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보였다. 안산시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혈연 중심 사회연결망이 중국인과의 사회연결망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였다. 안산시는 중국인과 결혼한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이주하는 지역으로 중국인과의 사회연결망에 진입함으로써 취업기회의 확대와

초기 적응과정에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문화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이 혈연 중심 사회연결망에는 적극적인 반면, 정부주도의 사회연결망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 주도의 연결망의 영향력이 비교적 강한 고양시와 안산시의 경우도 접촉빈도 등은 많지만 유대감이 약했다. 평택시의 경우는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이 동시에 나타났다. 두 유형의 사회연결망의 구성원 간 관계는 쌍방향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은 평택시로의 이주를 결심하고 실행하는데 선택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자발적으로 이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5.3. 소결

북한이탈주민은 난민과 이주민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지닌다. 북한이탈주민은 결혼이주민과 노동이주민 집단과 달리 우리와 민족적 동질성을 공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보다 더한 문화적 이질성을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이중적 지위와 독특성으로 인하여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사회연결망 특성과 역할도 일반 이주민과는 다른 패턴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특수성이 사회연결망 형성에 어떻게 반영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이 거주지 선택과 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사회연결망은 크게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 북한이탈주민 간 사회연결망, 정부주도의 사회연결망,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으로 나뉘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중요한 사회연결망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강한 유대감을 나타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이주와 정착을 기본 정보를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었다. 정부주도의 사회연결망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성이 약화되거나 단절되기 쉬웠다.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주도의 사회연결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절히 이용하지만 담당 직원의 지위와 직책 변화나 입국 후 5년 이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규정 등으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간의 사회연결망은 다른 이주민 집단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연

결망 형성에 민족 집단에 근거한 강한 유대보다는 탈북과정에서 발생한 불신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표피적인 수준에서 관계가 유지되었다. 사회자본이 한 행위자가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타인을 신뢰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유입국에서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Newton, 1997)는 관점에서 볼 때 이들 단체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진정한 사회자본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은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나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이 그들의 거주지 선택에 미친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고양시는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이 강하게 작동하였고 정보의 폐쇄성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재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산시는 중국인 사회연결망과 연계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중국인 사회연결망이 북한이탈주민의 연결망보다 크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수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폐쇄적인 경향이 있었다. 평택시는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안정적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재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이 많았다.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을 가진 이들은 다른 북한이탈주민보다 한결 수월하게 거주지를 선택하고 이주를 결심하였다. 평택시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기회,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그들이 제공한 지원이나 정보 등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는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었고 성격도 다양해졌다(최정호·박선미, 201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은 그들의 거주지 분포와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북한이탈주민 사회연결망이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관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부가 배정·관리하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북한이탈주민의 혈연 중심 폐쇄적 사회연결망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물적 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터로 기능하는 동시에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혈연 중심의 폐쇄적 사회연결망보다는 한국인과의 개방적 사회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이 그들의 성공적 정착에 미친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여 이러한 유형의 사회연결망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6. 결론

### 6.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이주민으로 부상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어느 공간에 거주지를 선택하고, 왜 그 공간을 선택하였는지에 주목하였다. 또한 이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사회연결망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그들의 경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진행은 광역시·도 중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로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통합연구방법으로 순차적 변형 모형을 적용하여 양적자료와 질적자료를 수집하고 각기 분석하였다. 양적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미치는 요인을 산업경제부문, 주거부문, 재정부문, 사회복지부문, 교육부문, 사회연결망부문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 중 단계선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선정된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의 연구지역을 현지조사 하였다. 질적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거주지 선택에 관한 경험을 통해 그들의 사회연결망과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탐색적 분석을 통한 질적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선택에서 사회연결망의 본질적 의미와 특징을 탐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들의 사회연결망 특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지역적 특성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히게 되었다. 첫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분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의 거주지가 지역별로 상이한 거주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이들이 경기도 일부지역에 밀집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06년에는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의 구도심에 많이 거주한 반면 2012년에는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등 경기도 서남부 권역으로 확산되어 집중 거주하였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이탈주민이 유입된 시기에는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주를 희망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었다. 따라서 서울, 경기도 구도심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게 된 북한이탈주민은 그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공간으로 이주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졌다. 따라서 이들은 차선책으로 일자리와 주거기반이 자리 잡은 신도심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유용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초기에 거주지를 선택하여 이주해온 북한이탈주민은 주거기반 및 일자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거주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주거생활과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지역으로는 이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의 거주지 분포에 미친 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주거부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사회연결망부문에서는 기존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경우는 주거부문에서는 주택거주 비율이 사회연결망부문에서는 기존이주민 비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하는 사회연결망부문은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단순 기능 인력의 노동이주민과 난민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이중적인 이주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이주민들의 거주특성보다는 안정된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생활공간에 더 영향을 받는다.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사회연결망은 향후 한국사회에 거주하게 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공간과 사회연결망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연결망이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회연결망은 혈연 중심의 연결망, 북한이탈주민 간의 연결망, 정부주도의 연결망, 한국인 간의 연결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중요한 사회연결망으로써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강한 유대감을 나타냈다. 북한이탈주민 간의 사회연결망은 다른 이주민 집단과 달리 민족 집단에 근거한 강한 유대보다는 탈북과정에서 발생한 불신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표피적인 수준에서만 관계가 머물렀다. 정부주도의 사회연결망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성이 약화되거나 단절되기 쉬웠다. 북한이탈주민

이 자발적으로 만든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은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나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혈연, 민족, 정착국 정주민과의 사회연결망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이 그들의 거주지 선택에 미친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연결망은 새로운 정착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기제가 된다. 또한 사회연결망을 통해서 주택시장, 주거지역, 일자리, 지역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성찰하여 본인 스스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고양시는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이 강하게 작동하였고 정보의 폐쇄성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재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산시는 중국인 사회연결망과 연계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중국인 사회연결망이 북한이탈주민의 연결망보다 크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다른 사회연결망과는 연계되지 않는 폐쇄적인 경향이 있었다. 평택시는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안정적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재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이 많았다.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을 가진 이들은 다른 북한이탈주민보다 한결 수월하게 거주지를 선택하고 이주를 결심하였다. 평택시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기회,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그들이 제공한 지원이나 정보 등을 받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사회연결망은 새로운 정착국에서 더 나은 정보와 삶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에게 사회연결망은 삶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이자 새롭게 이주해 올 그들의 가족, 친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요소이다. 또한 각각의 연결망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6.2. 논의 및 시사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과 사회연결망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주 및 정착에 관한 연

구들이 간과했던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주목하였다. 한국에 이주해 온 북한이탈주민 중 경기도에 거주지를 선택하고 이주 및 재이주해 온 경험을 토대로 사회연결망의 관점에서 도출한 개념을 통계자료와 질적자료를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주민의 거주지 공간과 사회연결망에 관련한 선행연구와 기존 문헌에서 다뤄진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과 거주지 선택에 관한 연구의 지평에서 갖는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주 정책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논의는 한국사회의 적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방향 제시, 사회문화적·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분석,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동화정책에 관한 모색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관점, 사회복지적 관점, 노동경제적 관점, 인권 및 국제정치적 관점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담론은 이 5가지 관점에 근거를 두고 논의되었다. 일부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들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또한 지역구성원으로서 정착 과정에 대한 관점에서도 논의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결혼이주민, 노동이주민, 난민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만큼 북한이주민의 이주특성을 모두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새롭게 이주하고 정착하는데 제약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온전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적합한 이주 정책과 지원체계를 위해서는 북한이주민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책에서 사회연결망을 고려한 다각적 정책이 필요하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책 방향은 인도주의와 통일준비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1997년 제정한 법률을 토대로 지원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 배정·정착금·주거지원금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고용알선을 통한 지원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소극적 자세와 빈약한 사회연결망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 지역사회에서의 취업,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는 이들이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편입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통합되기 위해서는 위 세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선택에 관한 사회연결망, 취업에 관한 사회연결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사회연결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 방안이 필

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특성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안정적 사회연결망에 대한 정책적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연결망의 수준으로 정의한 ‘스스로 만들어가는 한국인과의 사회연결망’ 유형은 평택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들이 스스로 사회연결망을 확대시킬 힘이 없다고 여겨왔지만,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 만들어 간 사회연결망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안산시의 사회연결망의 유형은 새롭게 형성한 혈연 관계로 인하여 초국가적 이주의 성향을 보였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사회를 넘나드는 사회연결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질적인 문화 차이, 배우자의 신분과 계층으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혜택 제한, 단조로운 정보와 배재된 기회 제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고양시의 사회연결망은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외부와 차단되어 사회생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로 나타나는 사회연결망을 탐색적 사례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이 한국사회의 삶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대중적인 편견을 넘어 그들의 삶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및 정착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연결망을 확충시킬 수 있는 제도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함의들을 토대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이주민으로서 한국사회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회연결망을 의미 있는 실천 전략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그들의 사회연결망을 연계하여 나타난 현상을 볼 때, 한국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구조적·개인적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이들의 사회연결망의 생성·유지·확장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총괄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식적 사회연결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위한 업무를 분장하고 조정할 총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에게 이러한 총괄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권한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업무 분장 및 조정을 원활하게 만든다. 통일부는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 유관부처로 분산된 업무를 통일부 중심의 시스템 산하로 재정비하여 그동안 중복적으로 추진한 유사사업들을 통폐합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유관부처 간 연계가능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생성·유지·확장시킬 공식적 사회연결망을 견고히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지역과 연계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장시켜야 한다. 지역 내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상담사, 종교 및 민간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의 공식적 사회연결망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기에 정책수요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현행 지역협의회를 재편하여 가동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 예산 등을 조정하여 지역사회에 특화된 북한이탈주민의 수요에 부합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제기되었던 5년 이상의 보호기간 경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일반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주류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각종 자원봉사활동과 결연사업을 확대시켜주고 확충된 사회연결망을 통해 그들 스스로 다양한 욕구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채용경로는 대부분 벼룩시장, 지역정보지, 구인전단지 등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최창욱, 2012).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최대 사안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주류사회로부터 단절된 사회연결망만을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주변 사업체 고용주들 간의 구인구직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유형을 분류하여 거주지역에 대해 각기 다른 차별화된 공식적인 사회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 경기도에 이주해 온 북한이탈주민의 거



주 분포는 지역별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의 시·군 유형을 보면,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sup>25)</sup>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 북한이탈주민이 도시형에 밀집하여 거주한 반면, 시간이 경과 후에는 도농복합형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최성일 외, 2008). 또한 경기도는 원활한 행정지원과 정책반영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었다. 6개의 권역 중에서 거점중심 소재지는 경기도 내에서 도시형 지역이었으며 이들 지역은 대부분 도시의 재정적·주거환경 면에서 부유하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 반면 권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도농복합형과 농촌형 지역은 도시형 지역에 비해 대부분 고립되거나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이와 같은 지역적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연결망을 확충하기 위해 개인적 관점에서 정책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외연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스스로 변화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의 기본적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은 한국에 이주한 후 기존의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이나, 혹은 탈북 과정이나 한국 이주 과정에서 혈연관계가 해체되거나 새로운 혈연관계로 형성된 가족·친지이다(염유식, 2010) 북한이탈주민 간의 사회연결망의 대상은 대체로 탈북 과정, 하나원, 거주공간에서 맺어진 지인이다. 정부주도하의 사회연결망의 대상은 종교단체 및 NGO 관계자, 하나원에서 만난 공무원이나 하나원 강사, 거주지 신변보호담당관 및 정착도우미이다(조영아, 2003). 그러나 실제로 같은 거주지 내의 공공임대주택에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며 살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나 한국인 정주민을 잘 알지 못하고 특별히 그들과 사귀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흔치 않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거주지 내에서 이들을 연계해줄 연결점을 확장시켜주어야 한다. 비공식적 사회연결망은 혈연, 지연, 학연 등 공통된 연계가 없다면 한국사회에서 결코 쉽게 확장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스스로 오랫동안 북한사회에서 형성된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행동양식과 삶의 태도 등을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생각과 삶의 양식으로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5) 정기선 외(2007)를 통해 도시형·도시복합형·농촌형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행정구역의 유형을 통해 구분하였으며, 도시형은 모든 행정구역이 동(洞) 이상일 때, 도농복합형은 동과 읍(邑)·면(面)이 혼합되어 있을 때, 농촌형은 모든 행정구역이 읍·면 이상일 경우로 분류한다.



둘째, 다문화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그들의 새로운 사회연결망을 생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국사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 간,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 간의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에 평등한 관계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위축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소통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지지확산을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거주지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이웃주민, 직장동료, 자원봉사자로 사회연결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산시켜야 하며 선도하는 조직화된 힘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연계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주민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미래의 사회연결망을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거주지 지역의 학교에 편입학하지만 학습결손·학습부진·연령차이 등으로 중등교육과정 진학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학연연결망이 사전에 배제되는 모습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정규교육과정을 무난히 이수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학업증진 시스템 지원, 복지교육과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부모의 한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및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들은 비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합한 맞춤형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초국가적 이주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을 확장시켜야 한다. 북한이탈여성이 탈북과 함께 중국 및 제3국을 걸쳐 한국사회로 이주하면서 반복적인 초국적 이주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초국적 이주의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을 통해 형성된 초국가적 사회연결망을 갖게 된다. 따라서 결혼이주, 경제이주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의 흐름을 확대해서 이들의 이주에 대해서 접근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일규·김종우(2006). 『새터민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창구(2010).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정착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방안”, 『통일문제연구』, 22(1), 261-290.
- 강창구(201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와 전망: 취업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3(1), 3-22.
- 경기개발연구원(2007).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07년~2010년)』, 서울: 보건복지부.
- 경기도청(2014). 『2014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 수원: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과.
- 경기통계연보(2007). 『경기통계연보, 2007(47회)』, 수원: 경기도청.
- 경기통계연보(2011). 『경기통계연보, 2011(51회)』, 수원: 경기도청.
- 경기통계연보(2013). 『경기통계연보, 2013(53회)』, 수원: 경기도청.
- 곽해룡(2005). “중국의 탈북자 정책연구”, 『민족연구』, 14, 76-96.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www.kosis.kr>
- 국민일보(2011). “국내 최대 새터민 거주지, 인천 남동구... 모여 살지만 그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 국민일보, 2011년 3월 3일자 기사.
- 권용우(1997). 『안산시의 도시화 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31, 89-104.
- 길준규(200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법적검토”, 『공법학연구』, 10(4), 249-275.
- 김경학(2007). “국제이주와 편자비의 ‘이주문화’”, 『국제지역연구』, 1(3), 61-96.
- 김두섭(1998).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21(2), 144-181.
- 김미숙(2006).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통합에 대하여”, 『교육사회학연구』, 16(3), 43-63.
- 김범수 외 4인(2008). 『다문화 사회복지론』, 파주: 양서원.
- 김석우·최태진(2009).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선화(2010). “하나센터 성과와 발전방안”, 북한이탈주민 민간단체연대 정기총회.

- 김성경(2011). “북한이탈주민 일상연구와 이주연구 패러다임 신고찰”, 『아태연구』, 18(3), 1-21.
- 김수암(2006).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 김순양(2013). 『한국 다문화 사회 의 이방인: 사회적 배제 와 정책적 대응』, 서울: 집문당.
- 김연희(2010). 『하나센터 서비스 효과성 평가』, 서울: 통일부.
- 김영순·임지혜·정경희·박봉수(2014).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유대관계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론』, 10(3), 36-96.
- 김용학(2010). 『사회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김은미(2006). “서울의 세계화: 서울의 외국인 마을들”, 『서울경제』, 11, 3-7.
- 김정선(2010). “아래로부터의 초국적 귀속의 정치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2), 1-39.
- 김창석(2002). “서울시 상류계층(파워엘리트)의 주거지역 분포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7(5), 65-85.
- 김현미(2008). “중국 조선족의 영국 이주 경험: 한인타운 거주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1(2), 39-77.
- 김현선(2010).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 서울시 구로·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231-264.
- 김혜순 외 7명(2006).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서울: 동북아시아위원회.
- 김효선·이미숙·조현주(2010). “한국 사회의 이주 외국인 현황 및 개선 방안: 이주 여성 및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2010년 서울 팍스 포럼.
- 김희연(2008). 『정책 보고서: 경기도 특성에 기반한 복지정책 방향』, 수원: 경기도청.
- 다음지도 홈페이지. <http://map.daum.net>
- 독고순(2001). “탈북 주민의 가치 정향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5(1), 149-174.
- 두산백과 홈페이지. <http://www.doopedia.co.kr>
- 류연택(1997). “하위주택시장과 이주에 관한 연구: 서울 근교 신도시(분당·일산)를 사례지역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2(2), 245-263.

- 류주현(2012).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분포와 민족적 배경에 관한 소고: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71-85.
- 문남철(2004).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요인과 이주패턴 및 이주경로: 재외 거주공간정책의 필요성”, 『지리학연구』, 38(4), 497-511.
- 문영주(2011). “사회복지조직의 사회적 자본 척도 구성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381-407.
- 박경태·설동훈·이상철(1999). “국제 노동력 이동과 사회적 연결망: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 노동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3(겨울호), 819-849.
- 박경환(2007). “초국가주의 뿌리 내리기: 초국가주의 논의의 세 가지 위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1), 77-88.
- 박동훈·안화선(2012). “중국 조선족의 초국가적 활동과 한반도: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성격에 관한 시각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3(1), 173-201.
- 박배균(2010). “외국인 국내 적응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1), 89-110.
- 박배균·정건화(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 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800-823.
- 박성재·김화순(2008). “탈북이주민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71-96.
- 박세훈·이영아·김은란·정소양(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안양: 국토연구원.
- 박세훈·이영아(2010).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구로구 가리봉동 사례연구”, 『다문화사회연구』, 3(2), 71-101.
- 박영자(2010). “탈북이주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민주평화협의회 사회문화분과 정책발표회.
- 박용순·신영희(2005). “탈북자 주거복지실태와 주거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3), 95-122.
- 박현식(2006). “사회복지조직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애 요인 연구: 탈북자 정착지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203-223.
- 배규식 외 4인(2013). 『중국 조선족 청년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 연구』, 서울: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 백경민(2007). “탈북자의 취업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연구: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25-24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1).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2).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 서윤환(200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2(2), 265-288.
- 서창록(2010).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탐색: 취업정책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22(1), 145-174.
- 석현호(2000).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23(2), 5-37.
- 선우현(2012). “한국인 속의 한국인 이방인: 국내 탈북자 집단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64, 5-28.
- 성태제(2007). 『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손승호(2008).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변화와 주거지 분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1), 19-30.
- 송주연·이혜경(2009). “다문화 공간과 다문화 사회: 전문직 이주자의 현황 및 적응 실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03-111.
- 신상영(2010). “1인 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사례로”, 『국토계획』, 45(4), 81-95.
- 안산통계연보(2013). 『2013년 안산시통계연보』, 안산: 안산시청.
- 안전행정부(2013). 『2013 지방세통계연감』, 서울: 안전행정부.
- 안혜경·이금순(200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분석”, 『통일정책연구』, 16(2), 145-171.
- 연합뉴스(2010). “국내 입국 탈북자 2만 명 돌파”, 연합뉴스 2010년 11월 15일자 기사.
- 염유식(201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과 정착 수준의 변화』, 서울: 북한이탈주민지

원재단.

- 염유식·김여진(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한국사회학』, 45(2), 91-129.
- 오경석·정건화(2006).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 가지 쟁점들”,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72-93.
- 오세현(2012). 『평택시 도시공간구조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기준(2011). “2011년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출처: 유기준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2011년 9월 20일자.
- 윤호(2012).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 특성분석』, 인천: 인천학연구원.
- 윤여상(2002).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민관 협력 방안”, 『통일문제연구』, 24, 65-100.
- 윤인진 외 5명(2006). 『새터민 여성·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윤인진(1998). “탈북 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지원 대책”, 『1998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130-142.
- 윤인진(2000). “미국으로의 한인 이주와 이민가족의 세대갈등”, 『재외한인연구』, 9(1), 5-44.
- 윤인진(2007).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착지원 방안”, 『아세아연구』, 128, 106-143.
- 윤인진(2009).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서울: 집문당.
- 윤인진(2012). “북한이주민의 문화변용과 사회적응”, 『한국학연구』, 41, 37-61.
- 이금순(2005).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 이민관·이주형(2010).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주택의 점유형태 및 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 9(5), 105-120.
- 이병민(2013).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의 적용과 활용: 공간적 의미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1), 50-70.
- 이성우(2002).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이동과 연계이동”, 『지역연구』, 18(1), 49-82.
- 이순형·조수형·김창대·진미정(2007).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순형·김창대·진미정(2009).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용균(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용균(2013). “초국가적 이주 연구의 발전과 한계: 발생학적 이해와 미래 연구 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1), 37-55.
- 이우영(200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서울: 통일연구원.
- 이윤경(2014). 『재중한인의 초국가주의: 왕징 코리아 타운 사례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진·이정림·김경미(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원.
- 이종구 외(2011). 『이주민의 에스니시티와 거주지역 분석』, 과주: 어울누리.
- 이종구·임선일(2011). “재중동포의 국내 정착과 취업네트워크”, 『산업노동연구』, 17(2), 309-330.
- 이종복 외 13명(2012). 『제2기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 평택: 평택복지재단.
- 이종수(2009). 『행정학사전』, 서울: 대영.
- 이지경(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문제의 개선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3(1), 101-132.
- 이진영·남진(2012).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12(2), 249-272.
- 이현철·김영천·김경식(2013). 『통합연구방법론: 질적연구, 양적연구』,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 이희승(2008).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 임정빈(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한국정책연구』, 12(2), 249-272.
- 장원진(2006).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 지역의 성장과 민족 네트워크: 안산시 원곡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23-539.
- 전연숙·최성일·황은주(201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전우택 외 4명(2009). 『북한이탈주민 패널 연구: 2007년 남한 입국자들의 경제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부.
- 정기선 외 6명(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길호 외 4명(2009).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방안』, 서울: 행정안전부.
- 정병호(2004). “환상과 부적응: 탈북 이주민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 혼란과 그 영향”, 최현 외 엮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 정병호(2014). “냉전 정치와 북한 이주민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 『현대북한연구』, 17(1), 49-100.
- 정수열(2008).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 미국 시카고 아시아인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3(4), 511-525.
- 정수열·이정현(2014). “이주 경로를 통해 살펴본 출신국가별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발달 과정: 서울시 대림동 소재 중국 국적 이주민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8(1), 93-107.
- 정희정 외 5명(2013). 『경기도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 안정성 연구 재구성: 주거 클린케어 사업 대상 가구를 중심으로』, 수원: 경기복지재단.
- 조영아(2003).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 남한 주민 및 재한 조선족과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정아(2007).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16(2), 285-306.
- 진미정·이순형·김창대(2009). 『탈북인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자본』, 서울: 학지사.
- 최대석·박영자(2011).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양적 성장을 넘어선 ‘성찰’과 ‘소통’”, 『국제정치논총』, 51(1), 187-214.
- 최대석·조영주(2008).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북한학보』, 33(2), 97-119.
- 최락인(2006).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탈북자 주거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3), 119-146.
- 최병두·박배균·안영진·임석희(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서울: 푸른길.
- 최성일·공선영·박지혜·정미화(2008). 『경기도 새터민 정착지원 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최성일·이윤희(2012).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승호(2010). 『충북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청주: 충북개발연구원.
- 최용환·김을식(200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경기도 정책방안 연구』,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 최웅선·이진만·김준모(2013).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은 어디에서 사나?』, 서울: 대영출판사.
- 최재현(2007).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여성결혼이주와 결혼중개업체의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1-14.
- 최정호·박선미(2013).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 요인: 경기도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71-85.
- 최정호·박선미(201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특성이 거주지 선택에 미친 영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2), 83-98.
- 최창옥(2012).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채용기업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 통일부(2013). 『201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2014). 『2014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연구원(2008). 『북한인권백서 2008』, 서울: 통일연구원.
- 하순(2007). “미국 거주 베트남인 이민가족: 변화와 연속”, 『외대논집』, 33, 111-130.
- 하순(2010). “베트남계 미국인의 초국가주의와 민족정체성: 1.5세와 2세를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20(1), 261-293.
- Antcliff, V., Saundry, R., & Stuart, M. (2007). Networks and social capital in the UK television industry: The weakness of weak ties, *Human Relations*, 60(2), 371-393.
- Barbbie, E. R. (2007). *Guided Activities,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11th ed.),

- Boston: Cengage Learning, 고성호 외 공역, 2012,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센케이 지리닝코리아.
- Basch, L., Schiller, N. G., & Blanc, C. S. (1994).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London: Routledge.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1986,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241-258.
- Boyd, M. (1989). Family and personal networks in international migration: Recent developments and new agenda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3), 638-670.
- Burt, R. S. (1995).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urt, R. S. (2000). The network structure of social capital,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2, 345-423.
- Castles, S., & Miller, M. J.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4th ed.), NY: Guilford Press.
- Christoforou, A., & Davis, J. B. (Eds.). (2014). *Social Capital and Economics: Social Values, Power and Social Identity*, NY: Routledge.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 Thousand Oaks: Sage, 조홍식·김진숙·권지성 공역, 2010,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Creswell, J. W., & Plano Clark, V. L. (2011).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2nd ed.), Thousand Oask: Sage.
- Creswell, J. W., Plano Clark, V. L., Gutmann, M., & Hanson, W. (2003). Advanced mixed methods designs, In A. Tashakkori., & C. Teddlie. (Eds.), 2003,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The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Thousand Oask: Sage, 209-240.
- Crotty, M. (1996). *Phenomenology and Nursing Research*, London: Person, 신경림·공병

- 혜 공역, 2001, 『현상학적 연구』, 서울: 현문사.
- Erwin, L. J. A. (1995). *Effects of Maternal Social Support Networks on Development in African-American, Anglo-American and Hispanic-American Infant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uston.
- Faist, T. (1998). Transnational social spaces out of international migration: evolution, significance and future prospects,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39(2), 213-247.
- Faist, T. (2000).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arley, R., & Frey, W. H. (1994). Changes in the segregation of Whites from Blacks during the 1980s: Small steps toward a more integrated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1), 23-45.
- Goodman, A. C., & Kawai, M. (1982). Permanent income, hedonic prices and demand for housing: New evidence, *Journal of Urban Economics*, 12(2), 214-237.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Granovetter, M. S. (1983).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Social Theory*, 1(1), 201-222.
- Granovetter, M. S. (1995). *Getting a Job: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nt, C. A., & Sleeter, C. E. (2011). *Doing Multicultural Education for Achievement and Equity*(2nd ed.), 김영순 외 공역, 2013,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서울: 북코리아.
-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105-117.
- Haddad, E. (2008).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Society: Between Sovereigns*, NY: Cambridge University
- Hesse-Biber, S. N., & Leavey, P. (2011). *The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2nd

- ed.), Thousand Oaks: Sage.
- Huang, Y., & Clark, W. A. V. (2002). Housing tenure choice in transitional urban China: A multilevel analysis, *Urban Studies*, 39(1), 7-32.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2011). *Glossary of Migration*, Geneva: IOM, 2012, 『이주용어사전』, 고양: IOM이민정책연구원.
- Johnson, R. B., & Onwuegbuzie, A. J. (2004). Mixed methods research: A research paradigm whose time has come. *Educational Researcher*, 33(7), 14-26.
- Kim, I. (1981). *New Urban Immigrants: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nox, P., & Pinch, S. (2009).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6th ed.), New Jersey: Person Education.
- Kvale, S. (1996). *Interview: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신 경림 역, 1998, 『인터뷰: 내면을 보는 눈』, 서울: 하나의학사.
- Kwon, V. (1997). *Entrepreneurship and Religion: Korean Immigrants in Houston, Texas*, NY: Garland Publish.
- Lin, 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gan, J. R., Alba, R. D., & Zhang, W. (2002). Immigrant enclaves and ethnic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99-322.
- Marcuse, P. (2005). Enclaves Yes, Ghettos No: Segregation and the State, In D. P. Varady. (Ed.), 2007, *Desegregating the City: Ghettos, Enclaves and Inequalit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5-30.
- Massey, D. A., Alarcon, R., Durand, J., & Gonzalez, H. (1987). *Return to Aztlan: The Social Process for International Migration from Western Mexico*, Berkeley &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ssey, D. A.,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 Taylor, J. 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31-466.



- Mertens, D. M. (2003). Mixed methods and the politics of human research: The transformative-emancipatory perspective, In A. Tashakkori, & C. Teddlie. (Eds.),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The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2003, Thousand Oask: Sage, 135-164.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Mitchell, J. C. (1969). *Social Networks in Urban Situations: Analyses of Personal Relationships in Central African Town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orrison, E. W. (2002). New commers' relationships: The role of social network ties during soci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6), 1149-1160.
- Morse, J. M. (1991). Approaches to qualitative-quantitative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Nursing Research*, 40(1), 120-123.
- Myers, D. (1985). Wives' earnings and rising costs of home ownership, *Social Science Quarterly*, 66, 319-329.
- Newton, K.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575-586.
- Ong, A. S., & Ward, C. (2005).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social support measure for sojourners: The index of sojourner social support(ISSS) scal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6), 637-661.
- Pahl, R. E. (1975a), Urban managerialism, *Revista de Sociologia*, 3, 325-343.
- Pahl, R. E. (1975b). *Whose City? and Further Essays on Urban Society*, London: Penguin.
- Peach, C. (1996). The meaning of segregation,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11(2), 137-150.
- Portes, A., Guarnizo, L. E., & Landolt, P. (1999). The study of transnationalism: Pitfalls and promise of an emergent research field,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 217-237.
- Portes, A. (1995).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nt*, NY: Russell Sage.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In E. Lesser. (Ed.), 2000,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 and Application*, Boston: Butterworth-Heinemann, 43-68.
- Pries, L. (2001). The approach of transnational social spaces: responding to new configurations of the social and the spatial, In L. Pries. (Ed.), 2001, *New Transnational Social Spaces: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nsnational Companies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NY: Routledge, 3-33.
-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 Rubin, H. J., & Rubin, I. S. (1995), *Qualitative Interviewing: The Art of Hearing Data*, Thousand Oaks: Sage.
- Schiller, N. G., Basch, L., & Blanc-Szanton, C. (1992). Transnationalism: A New analytic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igration, *Annals of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645(1), 1-24.
- Seidman, I.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3rd ed.), 박혜준·이승연 공역,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교육학과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서』, 서울: 학지사.
- Smith, R. C. (2001). Current dilemma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Inter-American migration system, In A. R. Zolberg., & P. Benda. (Eds.), 2001, *Global Migrants, Global Refugees: Problems and Solution*, NY and Oxford: Berghahn.
- Tashakkori, A., & Teddlie, C. (2003). *Handbook of Mixed Methods Research in The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Thousand Oaks: Sage.
- Weiss, R. S. (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 In Z. Rubin. (Ed.), 1974, *Doing Unto Others: Joining, Molding, Conforming, Helping, Loving*, New Jersey: Prentice-Hall, 17-26.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4th ed.), Thousand Oaks: Sage, 신경식·서아영 공역, 2011,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 부록

### <부록 1>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친 변수

<표 부록 1-1> 종속변수

구분	북한이탈주민 (명:2012년)	인구 천명당 북한이탈주민 (명:2012년)	이주민 (명:2012년)	인구 천명당 이주민 (명:2012년)
가평군	9	0.15	994	16.35
고양시	256	0.26	11,304	11.65
과천시	6	0.08	310	4.36
광명시	311	0.87	4,44	12.50
광주시	27	0.10	9,106	33.03
구리시	8	0.04	1,404	7.30
군포시	291	1.01	5,360	18.69
김포시	346	1.20	11,687	40.66
남양주시	116	0.19	5,325	8.88
동두천시	19	0.20	2,491	25.63
부천시	527	0.61	16,005	18.40
성남시	358	0.37	15,656	16.00
수원시	523	0.47	27,697	24.72
시흥시	168	0.42	20,960	52.47
안산시	525	0.73	43,465	60.78
안성시	98	0.54	7,311	40.26
안양시	74	0.12	6,818	11.15
양주시	54	0.27	7,011	35.00
양평군	20	0.20	1,138	11.14
여주군	13	0.12	2,379	21.72
연천군	2	0.04	729	15.99
오산시	207	1.03	4,954	24.73
용인시	482	0.53	14,099	15.39
의왕시	18	0.12	1,246	8.05
의정부시	278	0.65	3,613	8.42
이천시	68	0.33	4,422	21.58
파주시	225	0.57	7,925	20.10
평택시	447	1.03	13,032	30.01
포천시	221	1.40	10,586	67.19
하남시	16	0.11	1,621	11.08
화성시	577	1.10	25,159	47.88

<표 부록 1-2> 산업경제부문

구분	고용밀도 (명/km <sup>2</sup> )	인구 천명당 제조업 사업체수 (개)	인구 천명당 건설업 사업체수 (개)	인구 천명당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 (개)	인구 천명당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수 (개)
가평군	2.32	4.31	3.91	40.23	4.10
고양시	4.84	4.39	1.53	9.03	4.83
과천시	7.67	1.06	1.76	7.46	6.54
광명시	3.40	4.72	1.58	7.94	4.27
광주시	7.17	18.32	2.26	10.61	6.26
구리시	5.16	3.38	1.80	12.05	6.27
군포시	6.95	9.23	1.70	8.49	3.78
김포시	3.54	22.05	1.66	9.61	4.22
남양주시	2.84	6.67	1.14	8.61	3.39
동두천시	2.32	3.93	1.75	14.37	3.68
부천시	6.83	11.61	1.60	10.66	4.57
성남시	7.95	3.96	1.83	10.44	5.25
수원시	5.50	3.06	1.74	10.77	4.39
시흥시	3.58	26.39	2.13	12.38	5.99
안산시	5.68	10.59	1.99	11.69	4.52
안성시	4.72	11.17	2.54	15.00	4.07
안양시	8.07	6.32	2.68	11.31	5.88
양주시	1.80	16.91	1.89	11.70	4.30
양평군	4.46	2.84	3.11	19.21	3.24
여주군	7.90	7.36	2.06	15.26	4.54
연천군	1.29	6.23	3.88	19.08	3.81
오산시	2.64	3.18	1.31	10.44	3.29
용인시	4.78	3.13	1.20	7.99	3.37
의왕시	5.02	5.29	1.41	8.01	3.37
의정부시	4.03	2.85	1.51	10.98	4.18
이천시	8.76	6.54	2.38	13.45	4.66
파주시	4.78	9.55	1.41	10.63	3.98
평택시	2.96	6.60	2.33	13.73	4.68
포천시	6.65	28.24	2.17	18.74	5.89
하남시	2.97	8.69	2.84	9.80	11.27
화성시	3.64	23.25	2.16	11.51	4.87

<표 부록 1-3> 주거부문 및 재정부문

구분	주거지역 비율(%)	공공임대주택 비율(%)	면적당 재산세 (천원/k㎡)	1인당 지방소득세 (천원)	재정자립도 (%)
가평군	91.47	3.06	20,688	107	27.4
고양시	85.84	4.21	673,893	101	54.6
과천시	95.43	0.94	634,405	327	47.1
광명시	84.91	11.02	1,264,527	90	51.6
광주시	95.56	0.54	146,420	132	57.4
구리시	90.56	0.57	795,157	94	47.2
군포시	70.57	5.65	1,156,467	115	53.4
김포시	76.73	13.43	265,060	123	55.0
남양주시	94.08	5.20	181,587	70	41.8
동두천시	73.36	5.80	121,230	60	20.0
부천시	74.06	3.20	1,992,391	90	51.5
성남시	81.18	4.92	1,539,068	255	63.0
수원시	81.42	4.12	1,278,948	215	61.5
시흥시	65.95	3.01	501,521	144	57.5
안산시	54.50	3.13	574,587	154	48.8
안성시	61.56	2.48	72,724	196	40.0
안양시	75.76	1.75	1,621,890	136	58.0
양주시	88.07	8.48	153,214	89	33.3
양평군	88.08	0.17	18,567	85	24.7
여주군	66.57	0.84	58,438	152	39.0
연천군	74.45	2.64	6,780	66	23.4
오산시	74.86	11.67	736,516	85	46.1
용인시	84.64	5.70	402,856	247	60.8
의왕시	78.81	6.56	494,989	137	47.6
의정부시	88.56	5.45	537,711	56	37.9
이천시	69.81	2.25	88,970	249	42.9
파주시	69.31	11.92	115,173	135	47.7
평택시	50.21	4.24	184,254	212	53.5
포천시	73.82	4.70	34,550	126	28.6
하남시	93.14	7.13	447,316	181	49.5
화성시	71.94	9.80	208,175	385	58.8

<표 부록 1-4> 사회복지부문 및 교육부문

구분	사회복지 시설 수 (10만 명당)	사회복지 예산 비중(%)	초등학생 비율(%)
가평군	31.25	20.88	4.81
고양시	13.51	28.42	5.92
과천시	4.22	17.82	5.71
광명시	3.66	32.53	5.92
광주시	8.71	25.89	5.89
구리시	7.28	27.16	5.67
군포시	11.85	33.56	6.03
김포시	11.83	26.28	6.68
남양주시	12.68	31.63	6.71
동두천시	36.02	25.79	5.61
부천시	11.95	34.82	5.21
성남시	5.62	28.78	5.22
수원시	6.52	28.42	6.22
시흥시	14.27	30.72	6.70
안산시	14.40	34.94	6.08
안성시	26.43	24.70	6.14
안양시	3.76	30.20	5.52
양주시	15.98	25.05	6.67
양평군	32.29	19.88	4.74
여주군	26.47	19.11	5.41
연천군	35.09	11.85	4.42
오산시	5.99	30.78	7.32
용인시	9.17	19.44	7.20
의왕시	9.69	28.26	5.28
의정부시	16.54	34.41	5.69
이천시	9.76	25.31	6.48
파주시	17.00	26.00	6.57
평택시	6.68	22.06	6.39
포천시	35.54	20.22	5.35
하남시	13.67	18.57	4.96
화성시	15.60	23.83	7.91



<표 부록 1-5> 사회연결망부문

구분	북한이탈주민 (명:2006년)	인구 천명당 북한이탈주민 (명:2006년)	이주민 (명:2006년)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 (명:2006년)
가평군	5	0.09	685	12.49
고양시	118	0.13	9,159	10.06
과천시	3	0.05	394	6.51
광명시	144	0.46	2,573	8.21
광주시	11	0.05	7,864	35.42
구리시	6	0.03	1,207	6.23
군포시	102	0.37	3,480	12.67
김포시	13	0.06	9,734	46.84
남양주시	53	0.11	5,116	10.87
동두천시	6	0.07	2,007	23.39
부천시	227	0.26	10,163	11.82
성남시	207	0.21	12,796	13.26
수원시	120	0.11	13,365	12.50
시흥시	14	0.04	13,171	33.73
안산시	129	0.18	24,256	34.71
안성시	24	0.15	4,027	25.22
안양시	58	0.09	5,379	8.62
양주시	6	0.04	7,259	42.75
양평군	2	0.02	790	9.15
여주군	1	0.01	1,248	11.88
연천군	2	0.04	648	14.06
오산시	48	0.35	2,145	15.74
용인시	109	0.14	11,280	14.71
의왕시	1	0.01	1,142	8.26
의정부시	56	0.14	3,092	7.52
이천시	29	0.15	2,394	12.32
파주시	32	0.11	7,307	24.96
평택시	157	0.40	9,287	23.41
포천시	138	0.88	8,038	51.11
하남시	3	0.02	1,651	12.25
화성시	109	0.35	19,141	61.71

## <부록 2> 연구참여 동의서

### 연구참여 동의서

#### 1. 연구 제목: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경험에 관한 연구”

#### 2. 연구기관/부서 및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인화로 100번지 인하대학교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전공

#### 3. 연구자 성명, 소속 및 연락처

- 연구책임자: 최정호(인하대학교 다문화학과 박사과정 / 010-XXXX-XXXX)
- 지도교수: 박선미(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032-860-XXXX)

#### 4. 연구참여 권유

본 연구자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선택 경험(한국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대상)”에 대하여 연구참여 여부를 결정하거나 참여와 관련하여 연구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본 설명문은 연구의 목적, 내용, 위험(불편감)이나 이익, 정보를 포함한 자료관리 등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본 양식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분명치 않은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 5.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을 사례로 ‘거주지 선택’과 ‘지역’의 의미와 관계를 연구합니다. 본 연구는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관련하여 사회연결망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를 선택하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사회연결망이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분류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사회연결망의 특성이 다른지를 도출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 6.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통합연구방법에서 순차적 변형 모형(Creswell *ea al.*, 2007)을 활용합니다. 이 연구

는 사회연결망 이론과 질적연구에 주목하는 연구방법을 활용합니다. 통합연구방법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합하여 연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그들의 거주지 선택, 사회연결망 특성 및 유형 변화와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합니다.

## 7.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존중, 익명성 보장 및 면접 내용의 비밀 준수 등 인터뷰 대상자로서의 제 권리를 보장하며, 추후 본 인터뷰는 학술 목적(학위 논문 혹은 연구 단행본 출판)으로만 사용합니다.

인터뷰 도중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만일 느낀다면 언제든지 인터뷰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인터뷰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문화상품권(금액 삼만원)을 제공합니다.

## 8. 연구참여자와 중지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와 중단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언제든지 연구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9. 개인정보 비밀보장 및 연구자료 폐기

본 연구에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 및 인터뷰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학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금함을 밝힙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획득한 기록자료는 3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10. 연구 관련 문의

- 연구실: 박선미 연구실 (032-860-XXXX)
- 연락처: 최정호 박사과정 학생(010-XXXX-XXXX)

귀하께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 귀하와 연구자는 본 설명 및 동의서의 아래 부분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 연구자 성명: (서명)  
서명일:
- 연구참여자 성명: (서명)  
서명일:

##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 면담 질문지

이름:

연령:

성별:

일시:

장소:

#### 1. 기본적인 질문

1-1) 한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1-2) 거주지 위치 / 주택 유형은 무엇인가요?

1-3) 가족, 친지들은 같이 오셨어요?

1-4) 그들은 어떤 경로로 먼저 오셨나요?

1-5)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 2. 거주지 선택

2-1) 이곳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2-2) 처음부터 계속 여기서 사셨나요? 아니면 이사 오셨나요?

\* 이사하였다면 왜 이전 거주지에서 이사 하셨나요?

2-3) 거주지 선택에서 가장 많이 고려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예: 임대아파트 배정, 직업, 가족과 친지, 기관혜택 등)

2-4) 이곳에서 살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 특별히 좋은 점(직장, 주거사정, 가족친구, 교통, 쇼핑 등)이 있나요?

2-5)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언제, 누구에게 구한 어떤 정보가 가장 유용했나요?

2-6) 이 지역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2-7) 잘 아는 친지나 친구에게 이곳에서 거주하라고 추천하실 건가요?

2-8)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2-9) 왜 그곳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 3. 일자리

3-1)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3-2) 하시는 일은 안정적인가요?

3-3) 일하시는 직장은 집에서 가까운가요?, 어디인가요?

3-4)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셨는지요?,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있나요?

3-5)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쉬운가요?

\* 만약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일자리 구하기 쉽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6) 북한이탈주민 중에 같이 일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3-7) 잘 아는 친지나 친구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면 이 곳에서 구하라고 추천하시겠습니까?

#### 4. 모임

4-1) 이 지역에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4-2) 최근에 가장 많이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4-3) 그들과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4-4) 그들도 이 지역에 살고 있나요?

4-5) 그들과 만난다면 주로 어디서 만나시나요?

4-6) 만남이나 연락하는 목적(친교, 일자리에 대한 정보 교환,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 교환, 기타 남한사회 정착에 필요한 정보 교환 등)이 주로 무엇입니까?

4-7) 실제로 그들과 만남이나 연락이 남한 생활에 도움을 줍니까?

\* 도움을 준다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줍니까?

4-8) 이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이 있습니까?

\* (있다면) 모임의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 (있다면)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중심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 5. 지역의 사회연결망

5-1) 이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살고 있나요?

5-2) 이 지역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나요? 혹은 감소하고 있나요?

\* (증가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다고 답할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3)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중심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5-4) 그 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5-5) 그 분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6) 이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상점, 음식점, 단체 등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어디에 있나요?

\* (있다면) 그 상점이나 음식점의 주 고객은 주로 누구입니까?

5-7) 이 지역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한국정부기관, 시민단체, 교회 등이 있나요?

\* (있다면) 실제로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요?



# Abstract

## The Impact of Social Networks of North Korean Refugees on Their Residence Choice: The case of Gyeonggi-Do

Jungho Choi

Ph. 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Sunmee Park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February, 2015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why and how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choose their residential locations.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social network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ir impact on the choice of residential locations. More specifically, the dissertation examines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residential area distribu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over time by using data from 2006 to 2012, and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in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on their migration decisions.

Four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orth Korean Refugees began to set up their residence in major downtowns as Bucheon, Seongnam and Suwon by 2006 and over time, they were specifically concentrated in the heavy residential areas such as Hwaseong, Ansan, and Pyeongtaek, which are the Southwestern part of Gyeonggi-Do since 2012. Second, the social networks and housing are the factors significantly affect their residential choice. The housing means the government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which is substantial amount of benefits for them. Third, the social networks were initially based on their kinship and ethnic relationship but over time they were expanded to the Korean communities. Forth, the impact of social networks on their residential choice was different from region to region. In the case of Goyang, the network based on kinship played the major role, while in the case of Ansan, the role of social networks with Chinese was enormous, and in the case of Pyeongtaek, the role of the networks with Koreans was critical.

In sum, the social network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ir choice of residential locations. In order to help them to achieve more successful settlement, however, the government and society of South Korea should create diverse opportunities for them to establish social networks with Korean communities.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Networks, Migration, Residence Choice, Mixed methods Research*